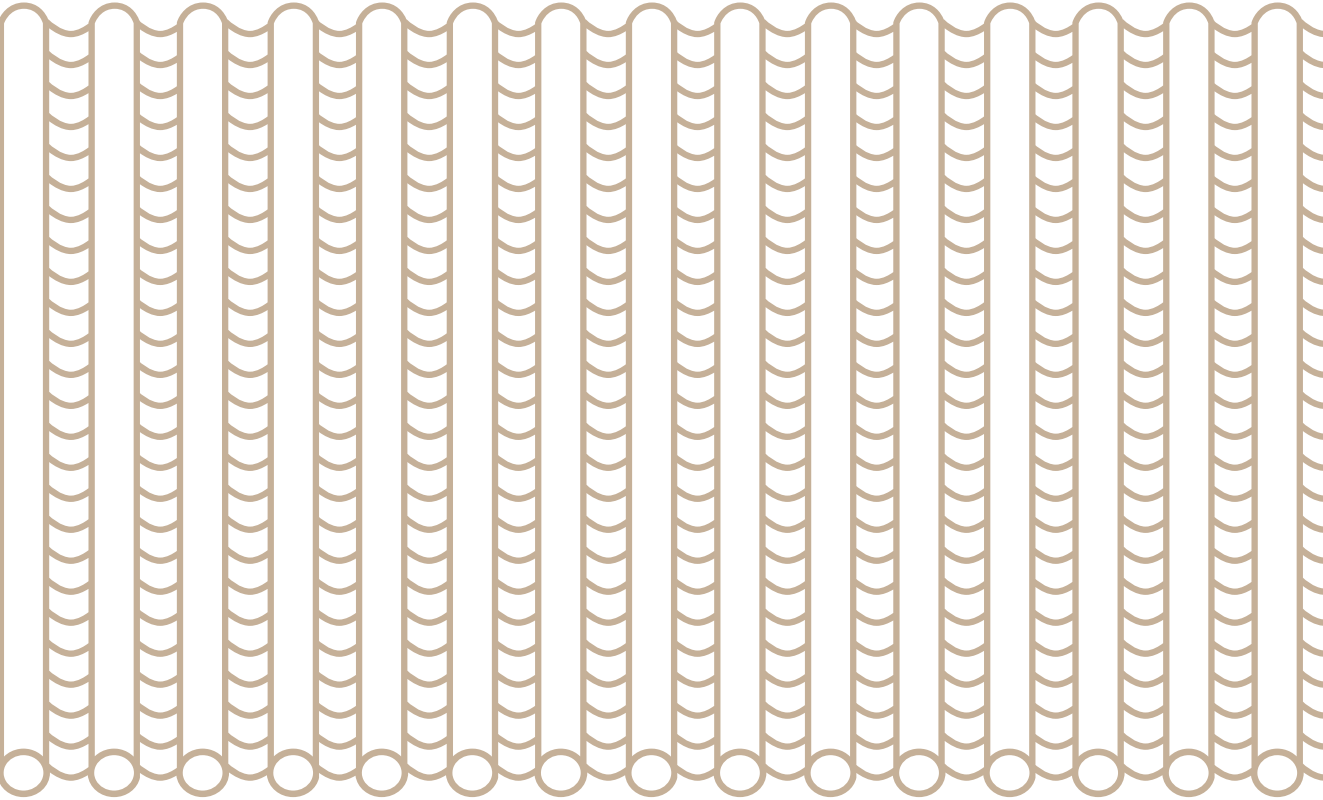
한옥고치는책 II

"주방·욕실·다용도실"

(au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고치는책 II

" 주방·욕실·다용도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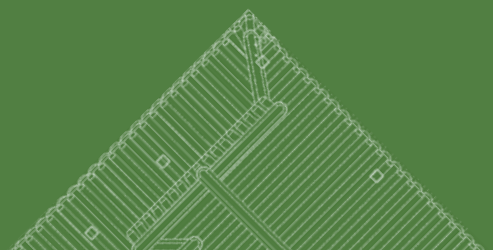


한옥고치는책 II

"주방·욕실·다용도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들어가기



한옥고치는 책 Ⅱ

"주방 · 욕실 · 다용도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는 2012년부터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옥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증대되면서 한옥생활을 꿈꾸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옥이 춥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한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부재하다는 진단에서 시작되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 중인 한옥의 성공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수집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좋은 한옥에 대한 인상을 만들어나갈 기회를 제공코자 함이다.

「한옥 고치는 책」은 위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함께 기획되었다. 즉 한옥을 현대생활에 적합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소개하여 한옥에 대한 좋은 인식을 유도하고 수요를 증대시키는 매체로서 단행본을 기획한 것이다. 이에 실제로 건축된 사례를 중심으로 풍부한 도면과 사진, 시공방법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누구나 곧바로 이용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조를 통해 양질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옥 고치는 책」은 3부작 시리즈로 구성된다. 한옥의 공간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대청과 방을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고, 두 번째 책에는 부엌,

「한옥 고치는 책」 3부작 시리즈

2013	Ⅰ. 대청과 방
2014	Ⅱ. 부엌 · 욕실 · 다용도실
2015	Ⅲ. 마당 · 담장 · 대문

욕실, 다용도실 등 서비스 공간을 담았다. 세 번째 책에는 마당, 담장, 대문 등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사례를 소개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한 권씩의 「한옥 고치는 책」이 시리즈로 발간될 예정이다.

시리즈의 두 번째 결과로서 「한옥 고치는 책Ⅱ - 부엌 · 욕실 · 다용도실」은 한옥의 부엌 및 부엌 · 화장실 및 욕실 ·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변화들을 수록했다. 현대적 공간수요를 반영한 공간의 기능 확장,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가구 및 설비의 현대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추구, 물사용공간 실내화에 따른 설비보완 사례 들을 담았다. 제시된 한옥들은 북촌HRC, 가은앤파트너스, 황두진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혹은 시공한 서울의 사례들이다.

「한옥 고치는 책」의 주요독자는 한옥거주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과 현재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현대한옥이 고유한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종래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데 이 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한옥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 및 한옥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김희정**

한옥 서비스 공간의 특징

주거양식의 변화에 따라 한옥에서의 서비스 공간(부엌, 화장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흔히 물을 사용하는 서비스 공간은 나무와 흙을 재료로 하는 한옥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 지어지는 한옥들에서는 생활의 입식화 · 내부화에 따른 공간 개선 및 설비 · 성능 보완에 대한 해법이 상당히 발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한옥 서비스공간의 특징

물을 사용하는 공간
한옥에서 현대적 변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서비스 공간은 부엌, 화장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 수도 설비와 연결되어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외부공간의 실내화 경향
주로 마당에서 접근했던 부엌 및 화장실이 실내화되면서 협소한 면적과 비효율적인 동선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식 가구, 설비의 도입
가사노동의 편리, 실내공기질의 향상 등을 위해 현대식 가구, 설비 등이 새로 도입되면서, 조화로운 디자인 처리가 새롭게 요구되고있다.

기존 한옥 서비스공간의 문제점과 최근 수요자의 요구사항

구분	기존 한옥의 문제점	현대 생활의 요구사항
부엌 및 식당	• 전통 한옥의 부엌은 안방 옆에 위치하여 대청이나 다른 방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별도의 식당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음 • 채광, 환기 등을 위해 건물의 끝에서 마당과 연계했기 때문에 반외부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 • 실내화된 부엌은 면적이 협소하여 수납공간이 부족하고, 현대식 부엌설비의 설치가 쉽지 않음 • 항상 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벽체, 기둥 등 건축요소의 노후화에 따른 내구성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위치임 • 나무나 창호로 마감되어 음식조리 시 냄새배임에 취약함	**확장** 부엌과 연결된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고추를 말리고, 장을 담그는 등의 가사활동 희망. 거실 내부에 탕비실이나 간이 부엌 필요. 생선구이 등 조리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 공간 **다용도** 부엌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티비를 보는 등 소통과 시야 중시. 여유로운 식사와 음료를 마시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홈바(Bar)의 기능 추가 **설비** 현대적인 시설은 도입하되 한옥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좌식문화와 전통적인 요소들을 결합. 대형 냉장고와 정수기, 김치냉장고, 오븐, 세탁기 등의 효율적 배치. 동선이 짧고 편리한 최적의 작업대. 수납공간과 환기 등 쾌적한 부엌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설비 추가
화장실 및 욕실	• 외부에 있던 뒷간은 신발을 신고 마당을 건너야 출입할 수 있는 불편한 동선을 가짐 • 실외에 면하는 면이 많아 보온과 냉방에 취약 • 습하고 청소가 어려워 곰팡이 등 세균번식에 취약 • 바닥 물기로 인해 아이나 노인이 미끄러질 염려가 있음 • 면적이 협소하여 샤워실이나 욕조 등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기 어려움	**동선** 탈의, 화장 등이 가능한 전실 필요. 부부만의 독립된 화장실 희망(안방-드레스룸-화장실). 행랑채, 사랑채에 별도 화장실 필요. 개인적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접근하기 쉬운 가족공용 화장실 **환경** 책과 신문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좋은 향기가 나는 쾌적한 환경. 욕조에 몸을 담그고 외부경관을 감상. 비밀스런 후원에서 샤워 후 자연바람에 몸을 말리길 희망 **설비** 변기, 세면대, 샤워기, 욕조 등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되 청소와 물빠짐이 용이한 공간. 화장실 소음 및 습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장치. 한옥에 어울리는 환기창 설치
다용도실 및 설비공간	• 배관 · 배선, 흡 · 배기 등 설비시설이 노후화 되어 기밀성, 단열, 방음 등 기본적인 성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에어콘 등 현대적 설비의 도입에 따른 추가 공간 확보 및 설치가 어려움 • 다용도실 및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부엌기기 및 생활용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음	**위치** 설비는 최소한의 공간에 최소한의 동선을 갖도록 설치. 연탄광으로 사용되던 지하 방공호 활용 희망 **용도** 다용도 여유공간. 다용도실은 차를 마시면서 외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다실의 기능 추가 **차폐** 보일러실이나 설비공간이 눈에 띄지 않도록 배치

목차

부엌과 식당

1. 전통부엌 계승

부엌과 마당의 연계성 강조

- 개방성 높은 문과 창 설치로 부엌과 마당의 연계성 회복 24
- 부엌의 위치를 집의 중심으로 변경 26

다락의 활용

- 부엌 층고를 활용한 상부다락 및 수납장 설치 28
- 다락의 다양한 활용 31

찬방이나 평상 등 좌식 생활문화 계승

- 찬방의 도입 36
- 평상의 설치 38

2. 식당의 탄생

부엌-식당-대청을 연결한 현대적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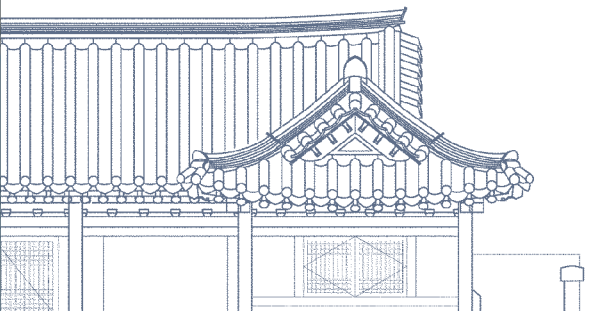
- 사례 1 44
- 사례 2 46
- 사례 3 48

부엌-대청으로 연결되는 열린공간

- 사례 1 50
- 사례 2 52
- 사례 3 54
- 사례 4 56

보조 식탁의 다양한 활용

- 작업대와 아이들 식탁 겸용 58
- 마당에 걸친 식탁 60
- 접이식 보조식탁 62



간이 부엌

- 거실 겸용 부엌 64
- 서재의 간이부엌 66
- 사랑채 간이부엌 68
- 외부 뒷부엌 설치 70

3. 빌트인 가구의 채용

벽면을 뒤로 확장하여 작업대 설치

- 'ㅡ'자형 74
- 'ㄱ'자형 77
- 'ㄷ'자형 79
- 열린 'ㅁ'자형 80

수납 등 기타

- 붙박이 수납장과 와인냉장고 설치 82
- 틈새공간을 활용한 수납공간 설치 84
- 렌지 후드 89

화장실과 욕실

1. 화장실 및 욕실 추가 설치

개인화장실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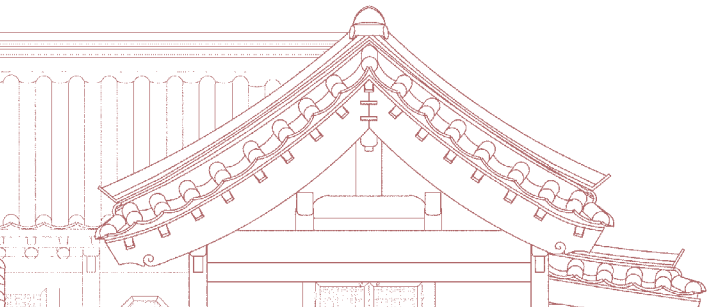
❖ 공용화장실과 개인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 94

본채와 담장사이 공간 활용

❖ 본채와 담장사이 공간을 증축하거나 확장하여 화장실 설치 100

전실을 도입하여 편리성 확보

❖ 전실을 도입하여 탈의, 화장, 드라이 등 편리성을 확보 104



2. 물사용에 따른 설비 보완

수분 접촉에 대비한 마감처리

❖ 방수코팅된 회벽과 방수목재, 나무널 사용.....108

❖ 유리마감.....110

환기 설비 보완

❖ 환기창을 유리-창호지-유리의 3중 구조로 제작하여 습기방지.....112

❖ 기계식 환기구 설치.....114

난방 설비 보완

❖ 온수코일 설치.....116

❖ 벽걸이 라디에이터 설치.....119

3. 쾌적한 화장실 및 욕실 추구

건식공간과 습식공간 분리

❖ 건식공간(세면대, 변기)과 습식공간(욕조, 샤워부스) 분리.....122

매립형욕조 도입

❖ 한옥의 바닥 높이를 조정하여 매립형욕조 도입.....126

풍경의 도입

❖ 화장실과 뒤뜰을 연결.....130

❖ 욕조 옆에 창 설치.....131

디자인요소 가미

❖ 공간에 재미를 더하는 디자인 요소 가미.....134

보일러의 자투리 공간

1. 보일러실 등의 위치

자투리 공간에 설치

◈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보일러실 설치 140

시각적 차폐

◈ 시각적 차폐를 고려한 보일러실 설치 148

가로면에 배치

◈ 검침이 용이하도록 가로면에 보일러실 배치 152

2. 자투리 공간의 활용

부분 다락의 활용

◈ 생활 공간으로서 열린다락 160

◈ 침실다락 162

기타 자투리 공간의 활용

◈ 마당데크 164

◈ 다용도 공간 165

◈ 지하 방공호의 활용 168

3. 전기 및 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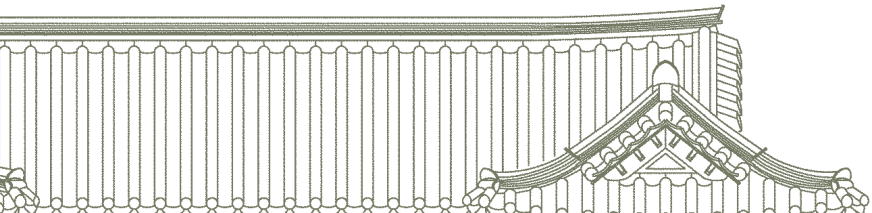
용이한 관리를 위한 설비의 집중

◈ 분산 배치되었던 보일러를 하나의 시설로 집약화 174

◈ 난방배관 176

◈ 상하수도 배관 177

◈ 전기설비 179



© 박영채

© 박영채

부엌과 식당

- 전통부엌 계승
- 식당의 탄생
- 빌트인 가구의 채용

© 박영채

1

전통부엌 계승

현대한옥의 리노베이션은 현대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한옥의 원형을 되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옥의 부엌은 마당을 통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다. 이러한 한옥의 구조적 특징을 살려 부엌과 마당이 면하는 곳에 개방성 높은 문과 창을 설치함으로써 부엌과 마당의 접근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부엌의 기능을 마당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옥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주택들에 비해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옥의 수직적 공간을 활용하여 상부다락과 평상 아래 수납장을 설치함으로써 현대인의 다양한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조리만 하던 기존 한옥의 부엌에서 식사와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엌 내부에 찬방이나 평상 등을 설치하여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놓치지 않으면서 한국의 좌식문화를 계승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천장의 서까래를 살리거나 부엌과 대청 사이에 쪽창 등을 설치하여 한옥의 독특한 멋을 살리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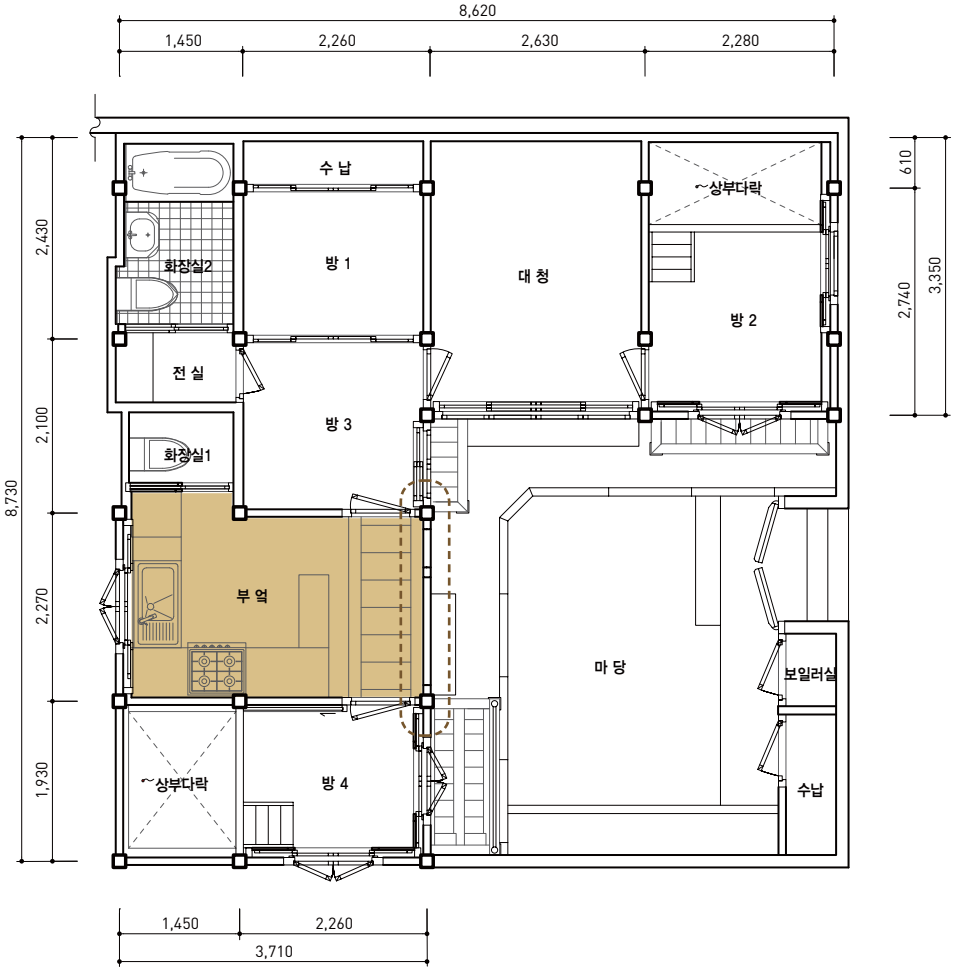
부엌과 마당의 연계성 강조

01

- **개방성 높은 문과 창 설치로 부엌과 마당의 연계성 회복**

시스템 창호 사용

이 한옥은 기존에 마당을 통해 부엌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마당에 면하는 문과 창을 모두 시스템 창호로 설치하는 작업을 통해 리모델링 후에도 부엌과 마당과의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다. 개방성 높은 문은 부엌의 기능을 마당으로 확장시켜 마당에서 김장을 하거나 장을 담글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넓은 창은 부엌의 채광을 높이고 차경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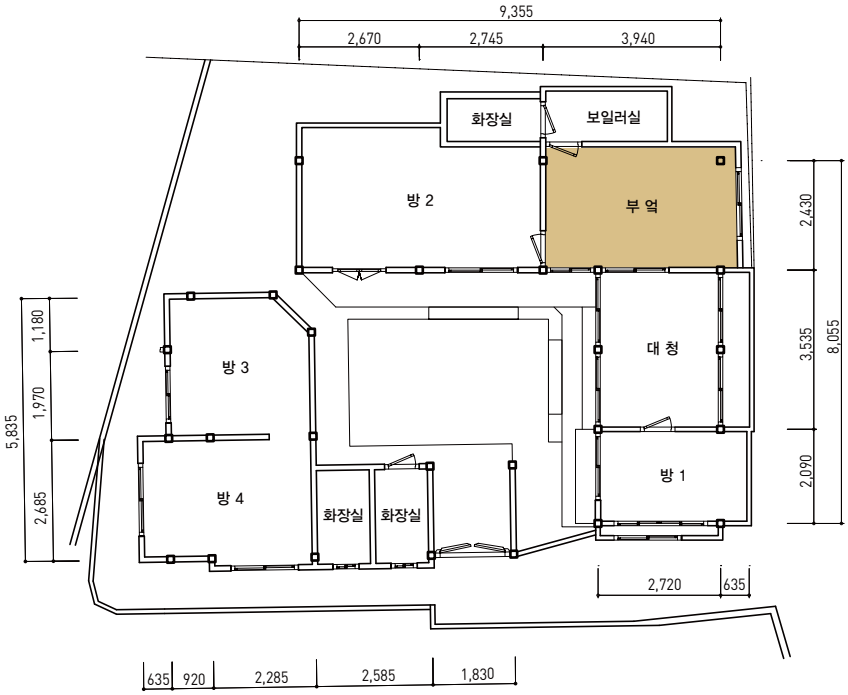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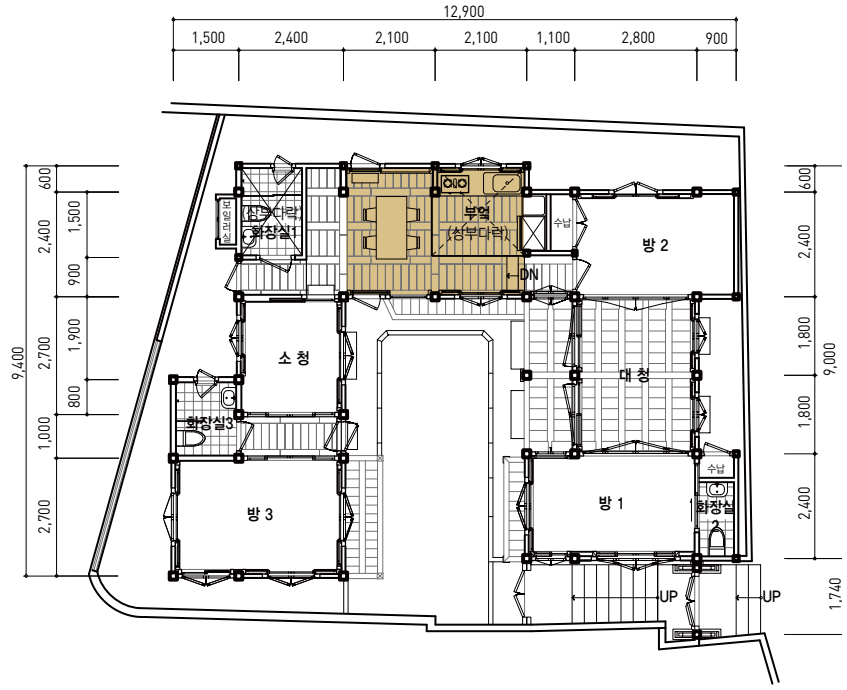
◀◀
부엌 외부 전경
(왼쪽 페이지)

부엌의 위치를 집의 중심으로 변경

이 한옥은 높은 지형으로 인해 시야가 넓게 트인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부엌의 위치를 집의 가운데로 변경하고 확장하면서 주변과 소통하고 개방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리모델링 후 부엌은 마당, 안방, 소청에서의 내외부 출입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고 앞마당과 탁 트인 전망을 갖게 되었다. 기능적인 편리함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쾌적함도 즐길 수 있는 다이닝이 결합된 부엌이 가족의 중심 생활공간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 기존에 방이 있던 공간을 증축하여 부엌으로 설치





◀◀
부엌 외부 전경
(왼쪽 페이지)

▶
리모델링 전
평면도(위)

리모델링 후
평면도(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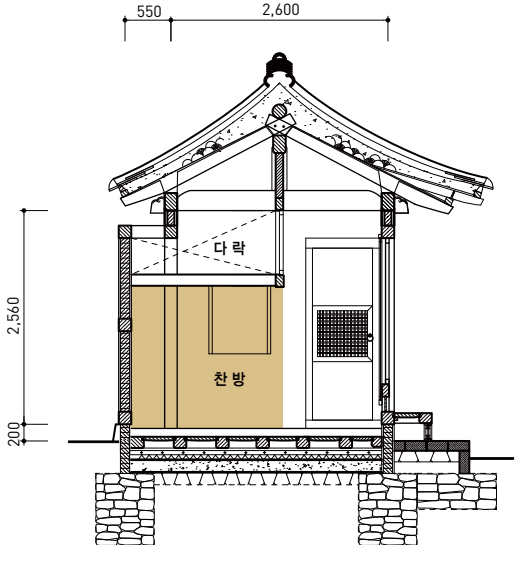
다락의 활용

● 부엌 층고를 활용한 상부다락 및 수납장 설치

한옥의 층고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층고에 비해 훨씬 높고 다양한 숨은 공간들을 가지고 있다. 주택 내 생활용품의 증가로 인해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한옥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부엌의 높은 층고를 활용한 수납공간의 설치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수납을 위한 상부다락 복원

리모델링을 통해 부엌의 바닥높이를 낮추면서 2,910㎜의 층고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부높이를 확보하여 찬방과 부엌, 화장실 위에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3칸 다락을 만들었다. 높이 600㎜의 다락에는 창이 있어 통풍과 채광이 용이하고 방에서 계단을 통해 다락으로 접근할 수 있다.



▶ 부엌 단면도

▶▶ 부엌전경 (오른쪽 페이지)

- 찬방, 부엌, 화장실 위로 3칸 규모의 다락 마련
- 방에서 다락으로 접근 가능

● 다락의 다양한 활용

- 머리벽장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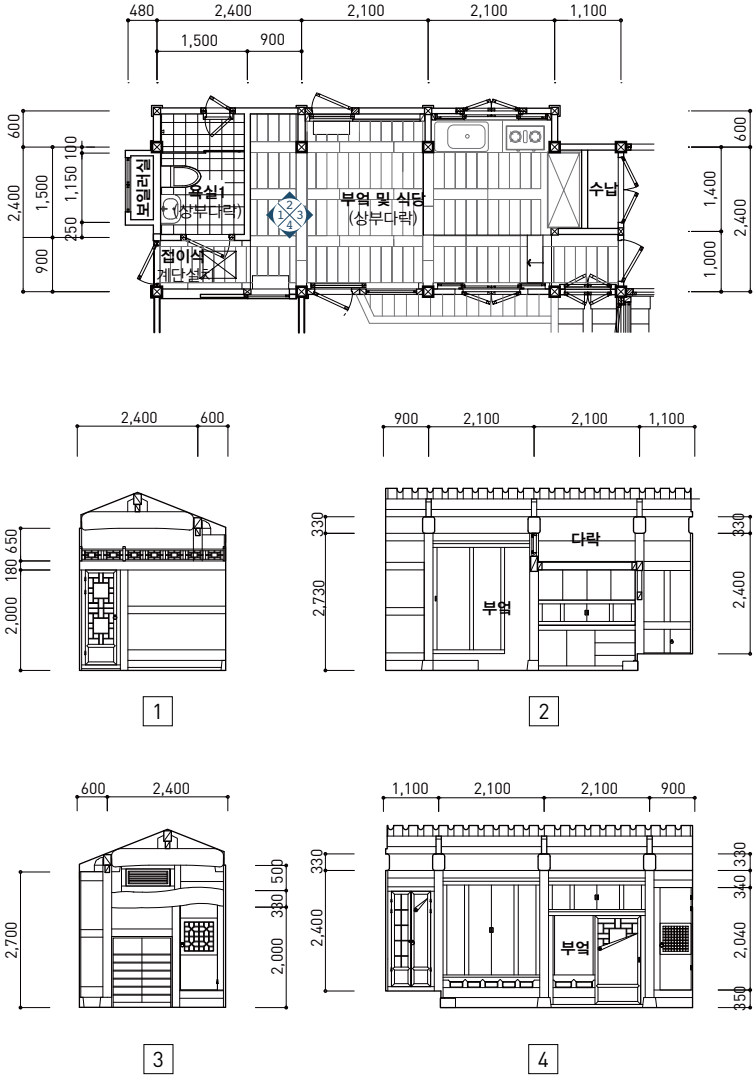
① 욕실 · 부엌 머리벽장 : 4,380×600

② 방2 머리벽장 : 900×2,300

③ 욕실2 머리벽장 : 800×2,300

수납공간으로서의 다락

다락은 한옥의 높은 층고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다용도 공간으로서 수납공간, 약식 침실, 놀이방, 서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 사례에서는 서측과 북측에 머리벽장을 설치함으로써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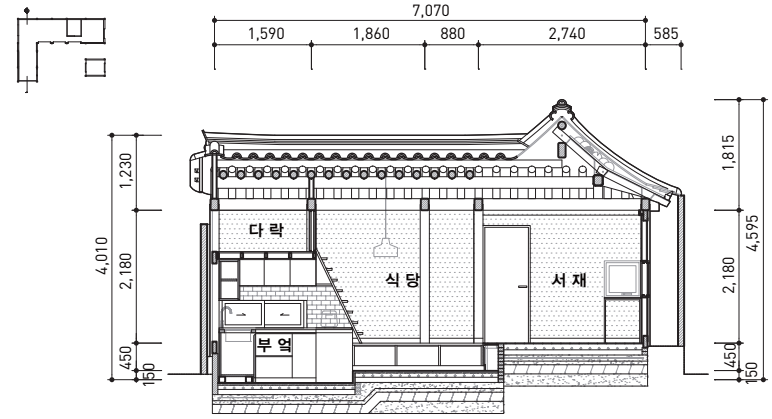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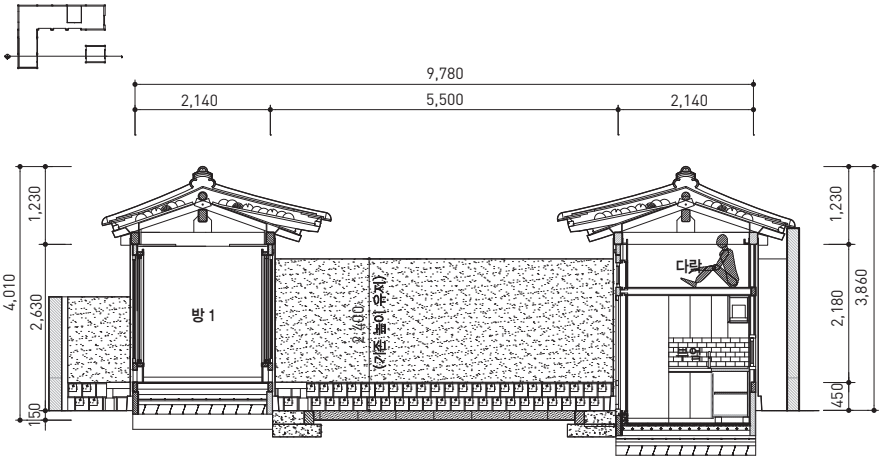
▶ 부엌 평면도 및 전개도

◀◀ 부엌의 수납공간으로 활용되는 다락 (왼쪽 페이지)

약식 서재로 활용되는 상부다락

이 집의 부엌은 마당과 같은 바닥높이로 낮추어 외부공간과의 연결성을 높임과 동시에 높은 층고를 확보하였다. 좁은 면적의 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직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부엌 상부에 작은 서재를 계획하여 공간의 재미를 더하였다.





◀ 단면도 1 (위)
단면도 2 (아래)

▶▶ 부엌 및 다락전경 (오른쪽 페이지)

부엌 바닥레벨을 낮추고, 다락의 원형복원

이 한옥은 1930년대에 지어진 것인데, 당시에는 다락이 있었으며 그 아래 아궁이가 있는 부엌이 있었다. 리모델링 이전 수차례의 개조과정에서 바닥을 높이면서 다락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안방이 들어섰으며, 안방자리에는 부엌이 들어오는 등 공간이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 사례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1930년대 한옥의 기존 골격대로 옛 부엌의 위치를 복원하여 사라진 원형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
평면도

• 방과 부엌 사이에 큰 창을 설치하여 공간의 개방성 확보

리모델링된 부엌은 마당, 안방, 대청에서의 출입이 가능하여 주변공간과의 연결성이 좋고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부엌의 바닥높이가 다른 실내공간보다 900㎜ 낮아지면서 계단을 통해 안방과 사랑대청을 연결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엌과 거실(대청)이 붙어있는 아파트형 평면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보인다. 조금 더 예스러운 한옥의 생활방식이 묻어나는 공간구조이다. 또한 두 세대가 동거할 수 있는 구조로 리모델링하면서 부엌의 통로를 통해 부엌 너머의 영역, 즉 집속의 집(사랑채)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동선을 확보하였다.

▼

사랑대청에서 바라 본 부엌과 다락 © 박영채 (왼쪽)

마당에서 바라본 부엌 ©박영채 (오른쪽)

찬방이나 평상 등 좌식 생활문화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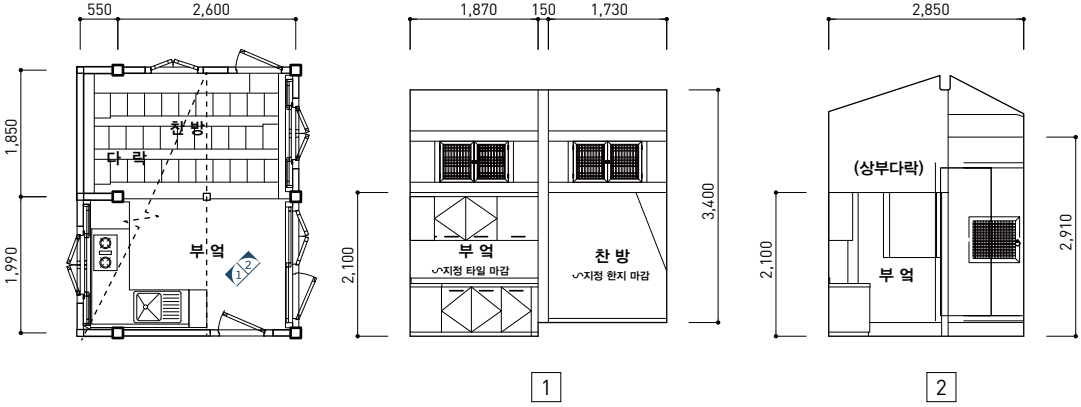
01

전통적인 한옥에서 부엌은 조리 공간으로만 기능하였고 식사는 각방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현대적인 식당 개념(dining kitchen)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입식의 테이블을 놓고 식사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부분 한옥의 부엌은 이런 배치를 할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한옥의 층고를 이용하여 찬방이나 평상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찬방의 도입

두 칸 규모의 부엌을 계획하여 한 칸은 부엌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칸은 마루를 깔아 찬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한옥의 부엌들은 흙땅이었기 때문에 찬방이 꼭 필요했었다. 이러한 한옥의 전통을 살려 부엌에 1,850㎜×3,150㎜크기의 찬방을 마련하였다. 찬방에서는 좌식식사가 가능하고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부엌이 현대화되면서 서구의 입식문화를 수용하여 편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한옥 특유의 좌식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 안방과 부엌처마 아래 공간에 머리 벽장을 두었고, 부엌의 한 칸은 찬방 형태로 우물마루를 두어 전통한옥의 원형을 되찾음



◀◀ 부엌과 찬방 평면도 및 전개도 (왼쪽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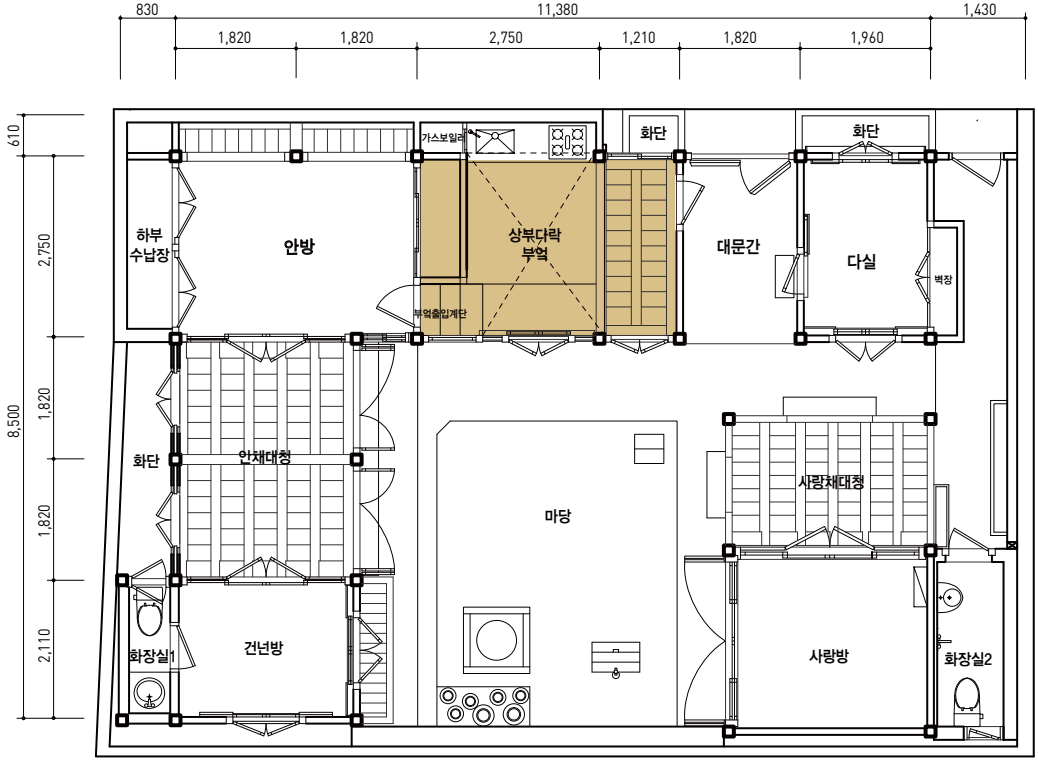
▲ 부엌과 찬방 상부에 설치된 다락

● 평상의 설치

부엌의 바닥면적이 좁아서 입식식탁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바닥높이를 낮추어 우물마루를 설치해 한국식 좌식공간을 만들었다. 평상 아래에는 수납공간을 두고 상부에는 다락을 두어서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 공간과 식사와 다과를 즐기는 공간, 다락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세 가지 기능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평상 위에는 좌식 탁자를 놓아 식사공간을 마련하였다. 상을 접어서 치우면 평상시에는 작업 공간으로 쓸 수 있고 그 하부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현대적이고 한국적인 식당-부엌의 공간을 마련한 점이 돋보인다.

• 바닥 높이 차를 이용한 평상설치와 식당-부엌(dining kitchen)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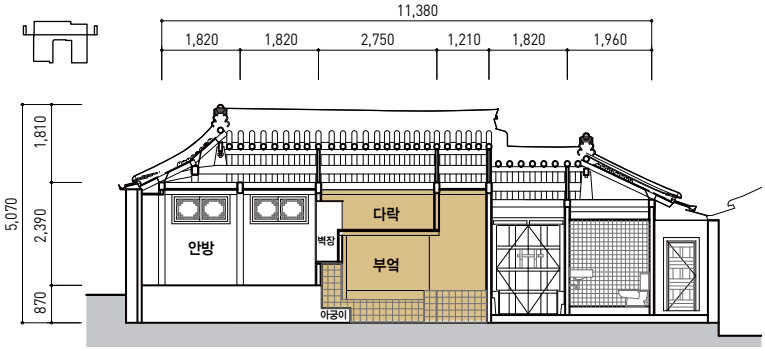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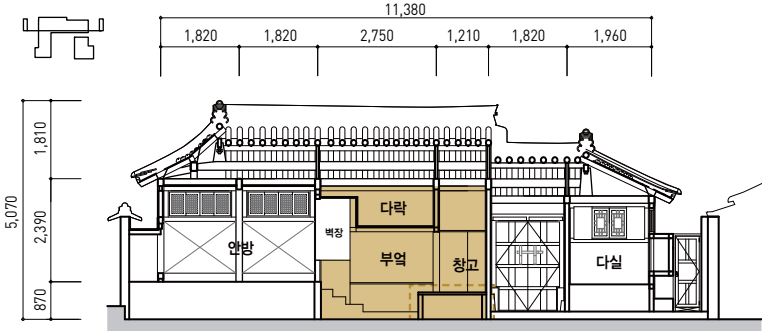


▶

리모델링 전 · 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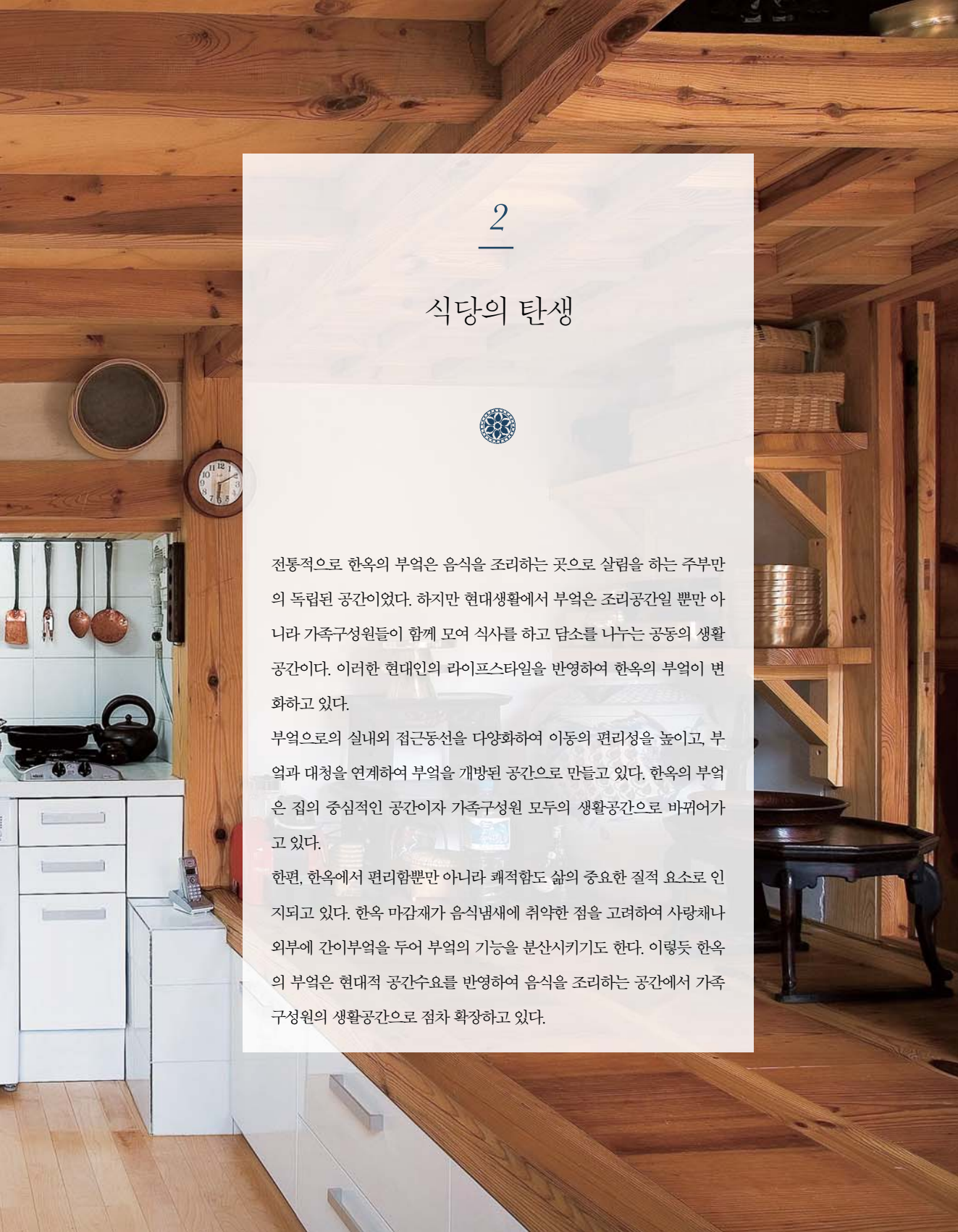




- 아궁이를 없애고 우물마루를 설치하여 하부 수납공간과 상부다락 마련

▲
부엌 우물마루와
상부 다락 ©박영채

© 박영채



2

식당의 탄생

전통적으로 한옥의 부엌은 음식을 조리하는 곳으로 살림을 하는 주부만의 독립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현대생활에서 부엌은 조리공간일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공동의 생활공간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한옥의 부엌이 변화하고 있다.

부엌으로의 실내외 접근동선을 다양화하여 이동의 편리성을 높이고, 부엌과 대청을 연계하여 부엌을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한옥의 부엌은 집의 중심적인 공간이자 가족구성원 모두의 생활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한편, 한옥에서 편리함뿐만 아니라 쾌적함도 삶의 중요한 질적 요소로 인지되고 있다. 한옥 마감재가 음식냄새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사랑채나 외부에 간이부엌을 두어 부엌의 기능을 분산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한옥의 부엌은 현대적 공간수요를 반영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에서 가족구성원의 생활공간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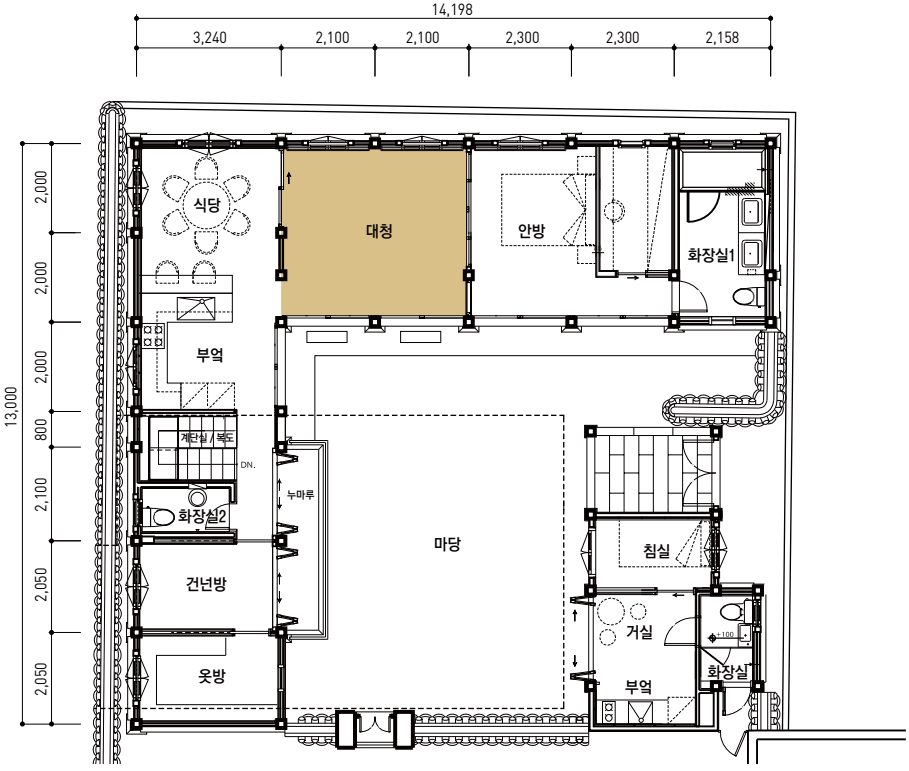
부엌-식당-대청을 연결한 현대적 부엌

02

● 사례 1

- 방을 부엌과 식당으로 변경하여 대청과 연결
- 모든 방들과 바닥높이를 동일하게 맞춤

기존 방 사이에 자리하던 부엌의 위치를 변경하여 대청과 연결하고 식당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부엌이 가족구성원의 공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다. 부엌-식당-대청이 서로 연결되는 LDK형은 전형적인 아파트 평면이기도 하면서 주부들이 선호하는 구성이기도 하다. 또한 단차를 두는 한옥과 달리, 부엌의 바닥높이를 모든 방과 동일하게 맞춤으로서 대청 및 외부, 방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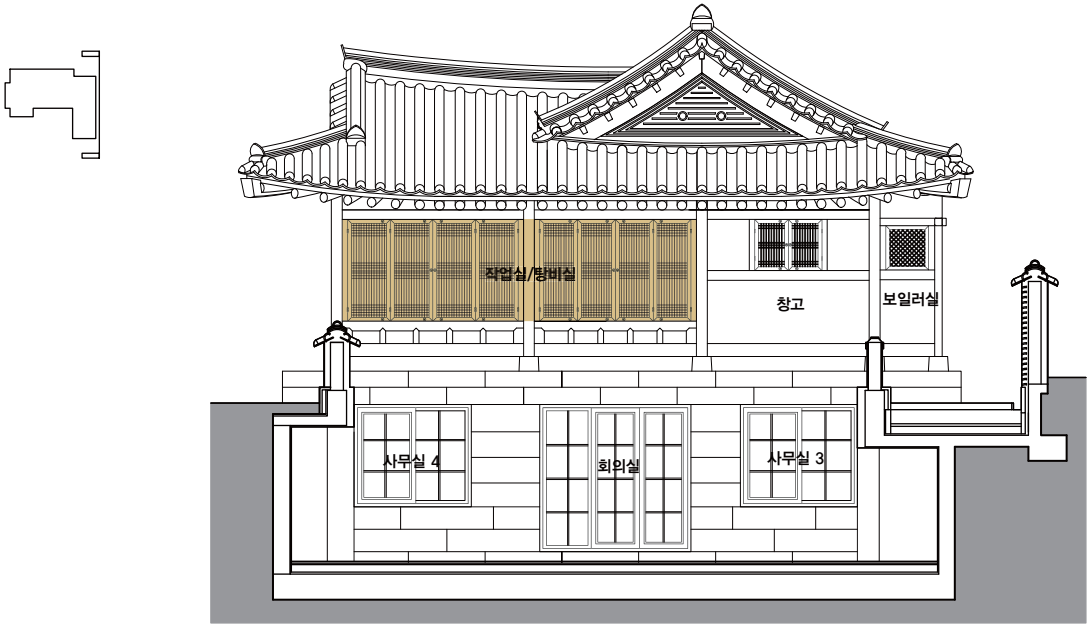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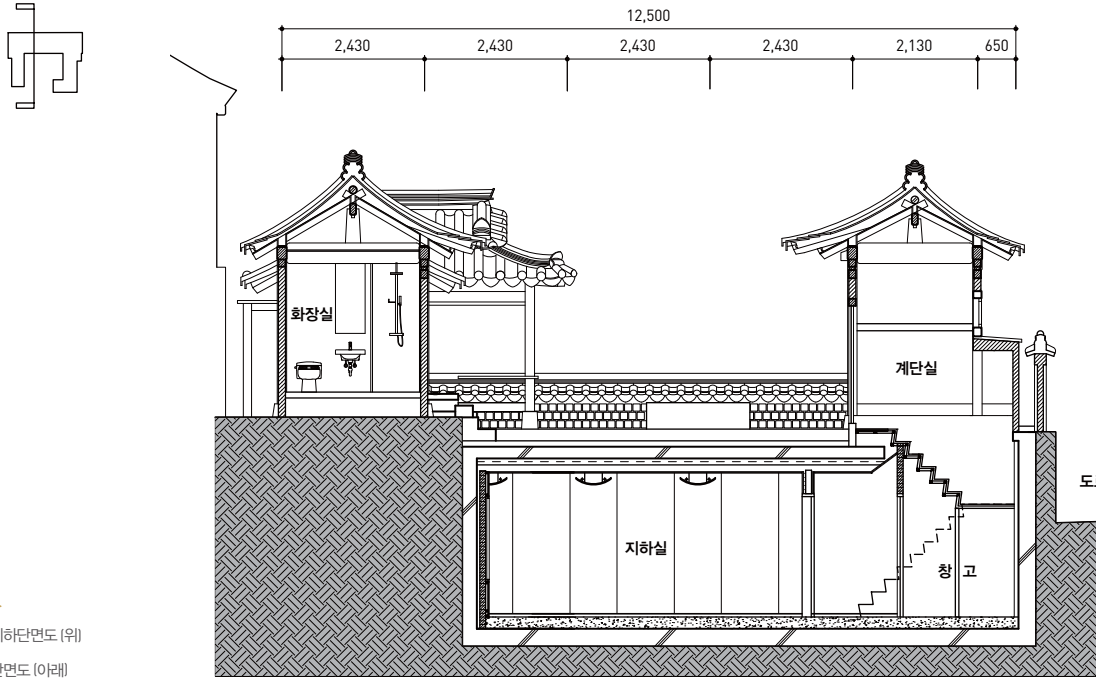
▶▶ 식당에서 바라본 대청, 부엌, 마당 © 박영채 (오른쪽 페이지)

● 사례 2

작업실 내부에 조리의 기능을 갖춘 부엌(탕비실)을 설치하였다. '-'자형 작업대 형태의 빌트인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작업대 앞에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여 입식의 현대적 부엌으로 구성하였다. 아일랜드 식탁은 거실을 향해 놓여 있는 바(Bar)로 조리대와 식탁을 겸할 수 있고 하부에 수납장을 설치하기도 한다. 수납공간을 늘리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은 식탁과 조리대는 물론이고 홈바, 파티션 등 그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여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어진다. 부엌의 환기를 위해 환풍기와 천장에 환풍구를 설치하였다.

▼
부엌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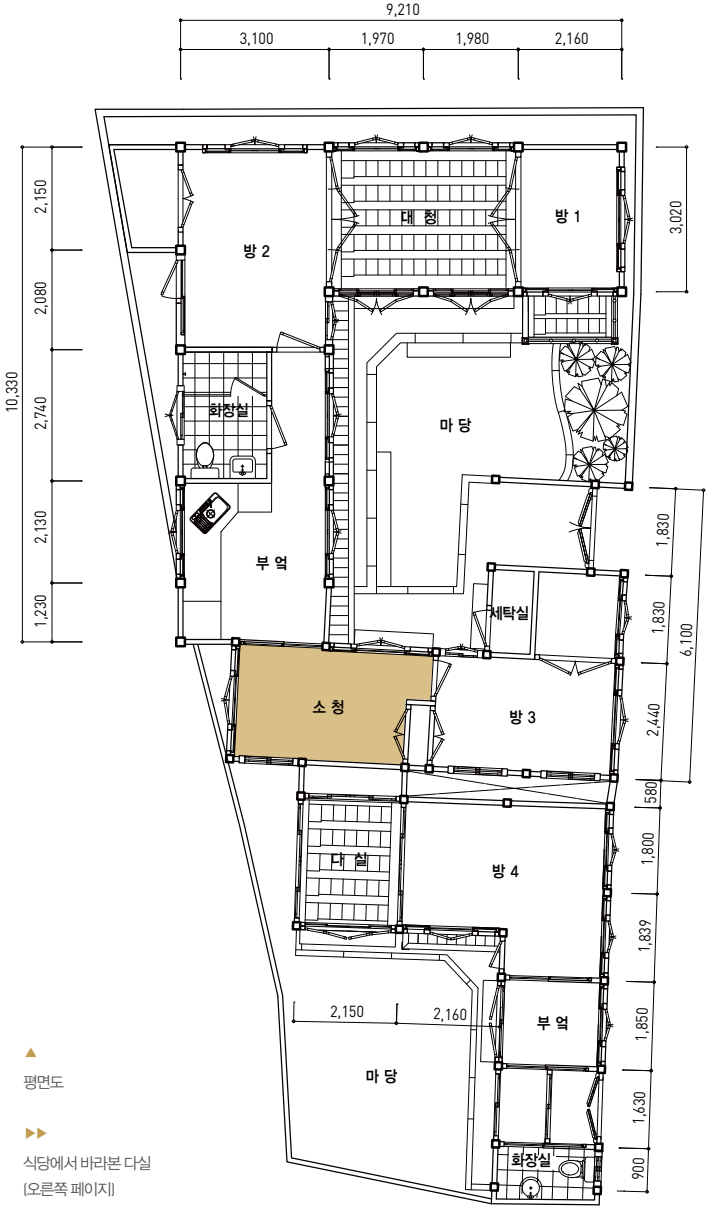


▶
지하단면도 (위)
단면도 (아래)

● 사례 3

삼대가 함께 거주하는 이 사례에서는 부엌 옆에 위치한 소청을 가족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부엌과 연결되어 있어 식사와 다과를 함께 즐기면서 가족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의 방을 부엌으로 변경
- 부엌이 있던 곳에 화장실 설치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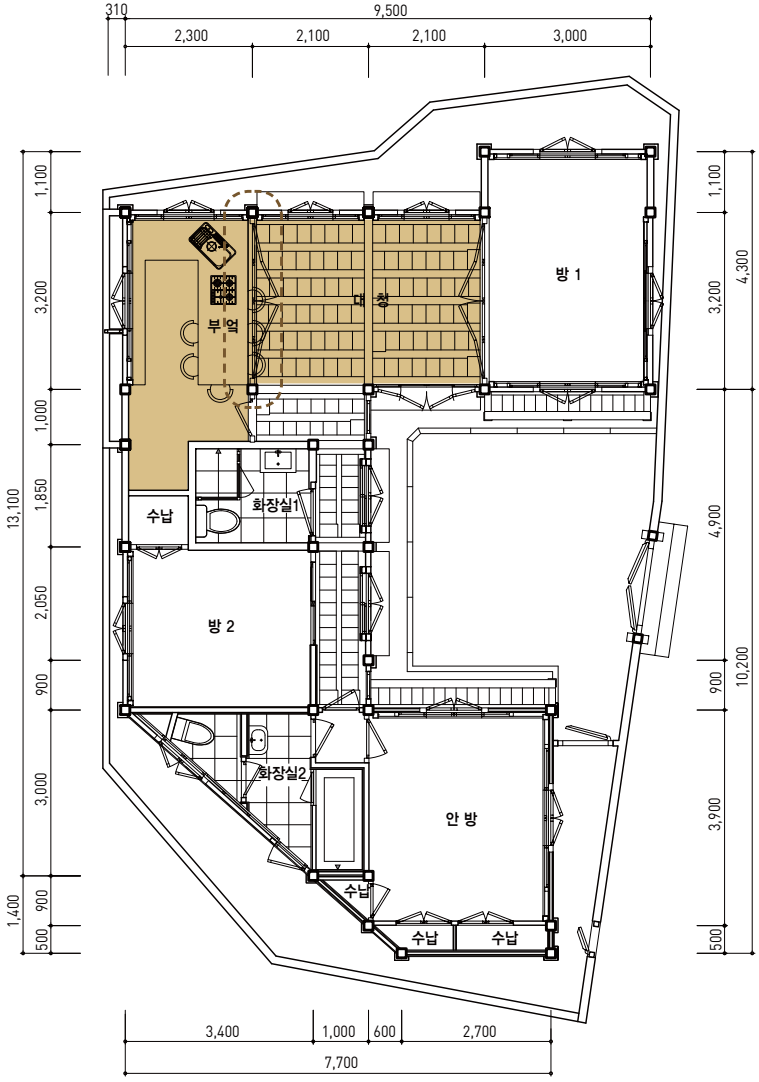
▶▶
식당에서 바라본 다실
[오른쪽 페이지]

부엌-대청으로 연결되는 열린공간

02

● 사례 1

부엌에는 간이 식탁을 설치하여 약식 DK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본격적인 식사는 넓은대청에 마련한 식탁에서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엌과 대청 사이에는 분합문을 두어서 상황에 따라 공간을 개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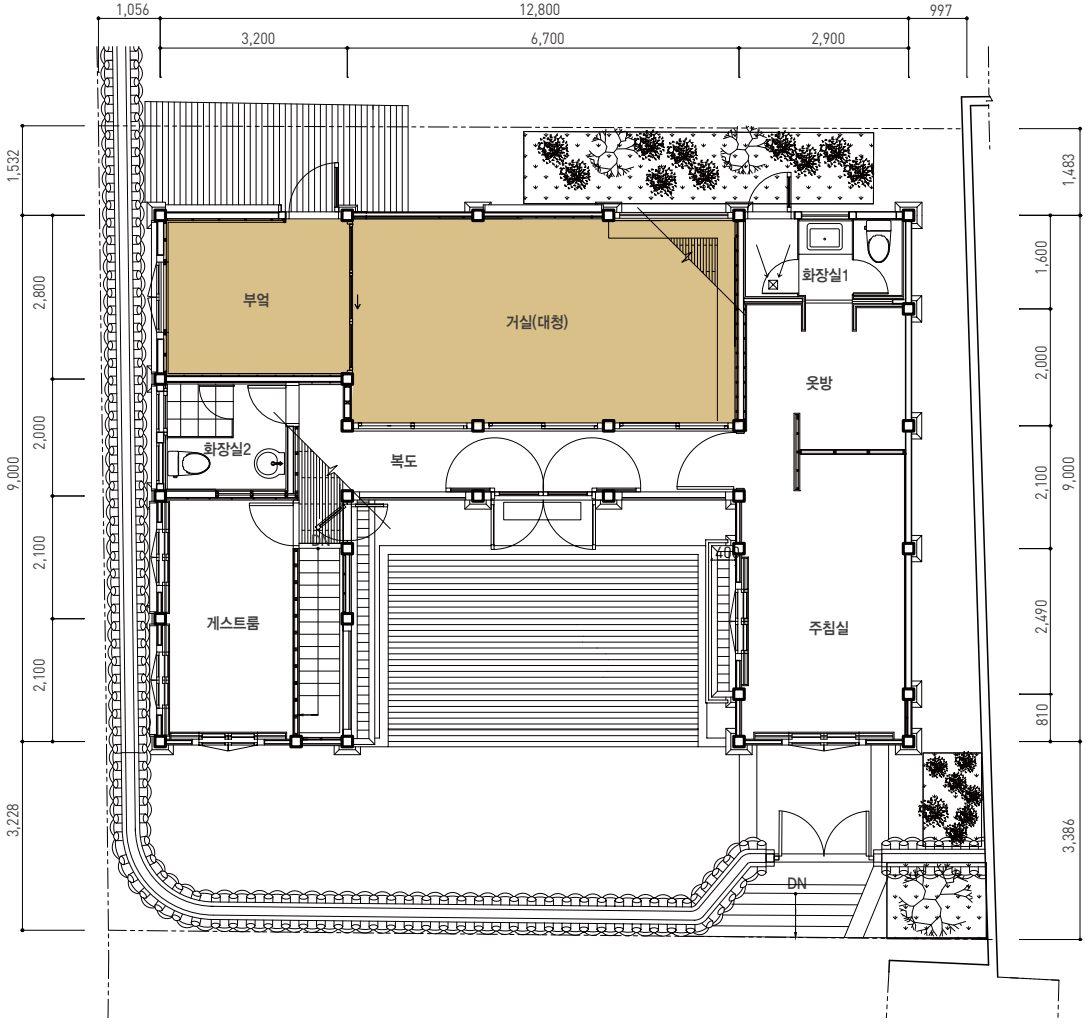
◀◀
부엌과 대청
(왼쪽 페이지)

● 사례 2

부엌은 물사용 공간으로 환기와 방수 등을 고려한 구조와 설비가 요구된다. 이 부엌은 설계 시 싱크대 위에 창문을 계획하였으나(도면참조) 주변 건물주의 민원으로 창문을 설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부엌 내부벽체에는 시멘트 액체방수를 사용하여 물 사용에 따른 재료의 탈락 등 내구성 및 내수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
부엌과 대청 전경
© 박영채
(왼쪽 페이지)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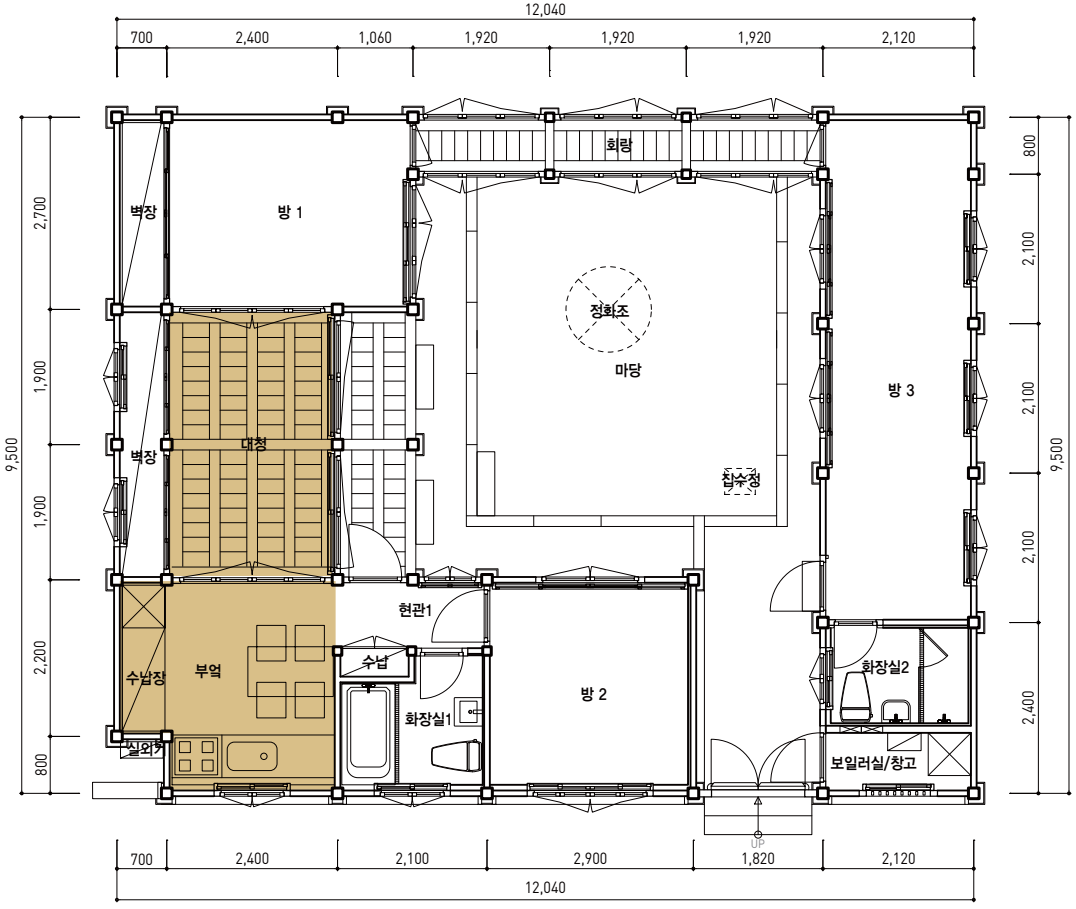
사례 3

- 대청 옆으로 부엌 이동
- 대청과 방을 통해 부엌으로 출입 가능

이 한옥은 기존에 안방과 마당을 통해서만 부엌으로의 출입이 가능하였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부엌을 대청 옆에 배치하여 대청과 현관, 방에서도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내부동선이 다양해지면서 실내 접근성이 좋고 주변공간과의 연결성이 좋은 장점이 생겼다.

◀◀ 대청에서 바라본 부엌 (왼쪽 페이지)

▼ 평면도



● 사례 4

- 부엌과 거실 사이에 분합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공간을 개방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함
- 분합문을 두어 좁은 한옥의 공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음

이 집은 거실과 부엌을 터서 공간을 넓게 확장시켰다. 부엌과 거실 사이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제작된 분합문을 두어서 상황에 따라 공간을 개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평소 부엌에서는 조리를 담당하고 거실에서는 식사가 이루어지지만, 분합문을 열면 부엌의 역할을 대청과 분담할 수 있다. 분합문의 설치를 통해 일반주택보다 면적이 작은 한옥의 공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
부엌과 대청사이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보조 식탁의 다양한 활용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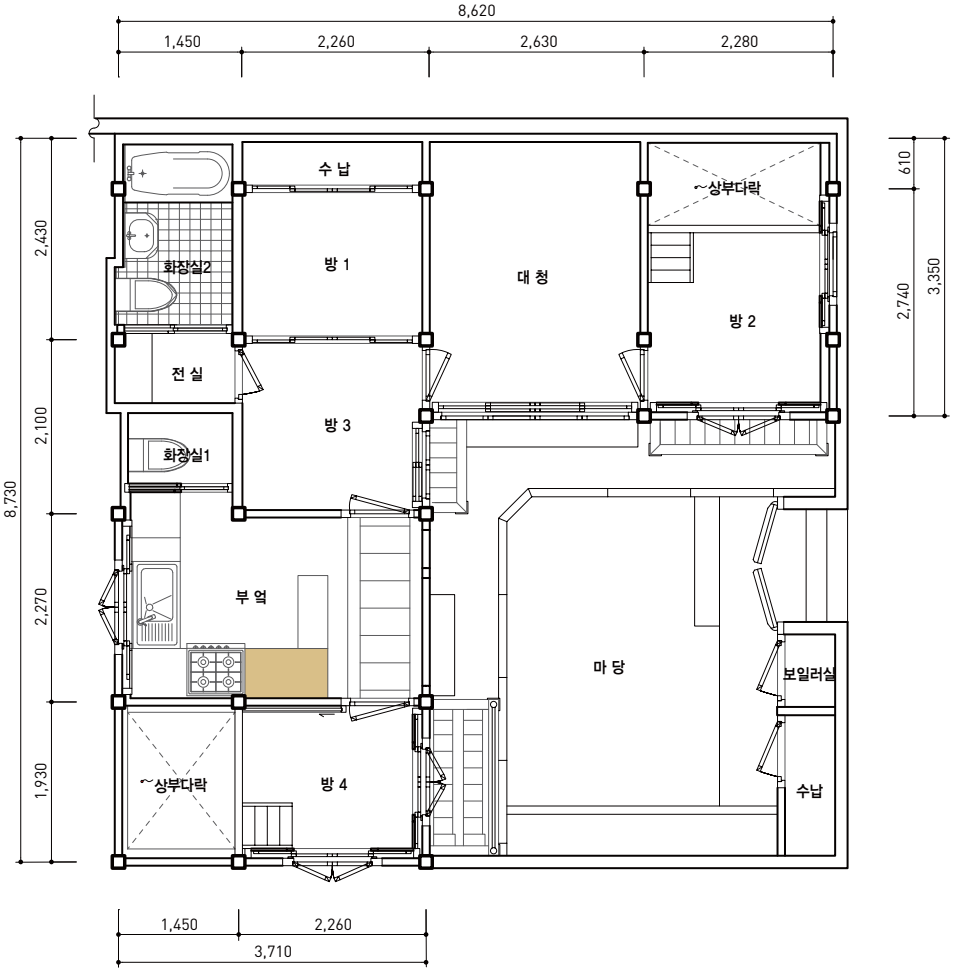
작업대와 아이들 식탁 겸용

이 사례는 부엌 작업대에 새로운 시도가 담겨있다. 부엌과 방 사이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칠판)를 밀면 방과 부엌 작업대가 연결 되고, 부엌과 방의 높낮이를 조정하여 아이들이 방에서 부엌 작업대를 식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슬라이딩 도어는 칠판으로 제작하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놀 수 있으며, 여닫이 문인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방과 부엌에서 아이와 엄마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슬라이딩 도어(칠판)를 밀면 방과 부엌작업대가 통하게 됨
- 아이들이 방에 서서 부엌 작업대를 식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부엌작업대 및 슬라이딩 도어 (칠판)

▶▶ 평면도 (오른쪽 페이지)


8,620
1,450
2,260
2,630
2,280
수 납
~상부다락
610
2,430
화장실2
방 1
대 청
방 2
2,740
3,350
전 실
방 3
2,100
화장실1
8,730
부 엌
2,270
마 당
보일러실
1,930
~상부다락
방 4
수납
1,450
2,260
3,710

● 마당에 걸친 식탁

부엌과 마당사이에 접이식 간이 식탁을 설치하여 바(Bar)처럼 이용할 수 있다. 툇마루에 걸터앉으면 마당에서도 식사나 다과를 즐길 수 있으며, 간이 식탁을 설치함으로써 부엌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마당까지 확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마당에 걸친 식탁의
내부 설치 모습

▶▶
마당에 걸친 식탁의
외부 설치 모습
(오른쪽 페이지)

● 접이식 보조식탁

접이식 보조식탁

가스레인지 옆에 접이식 보조식탁을 마련하여 가사노동을 위한 보조가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소에는 부엌과 연계된 대청에 마련된 식탁에서 식사하고, 간단한 식사는 부엌에 있는 접이식 보조식탁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작업대 옆에 접이식 보조식탁을 설치하여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가사노동을 위한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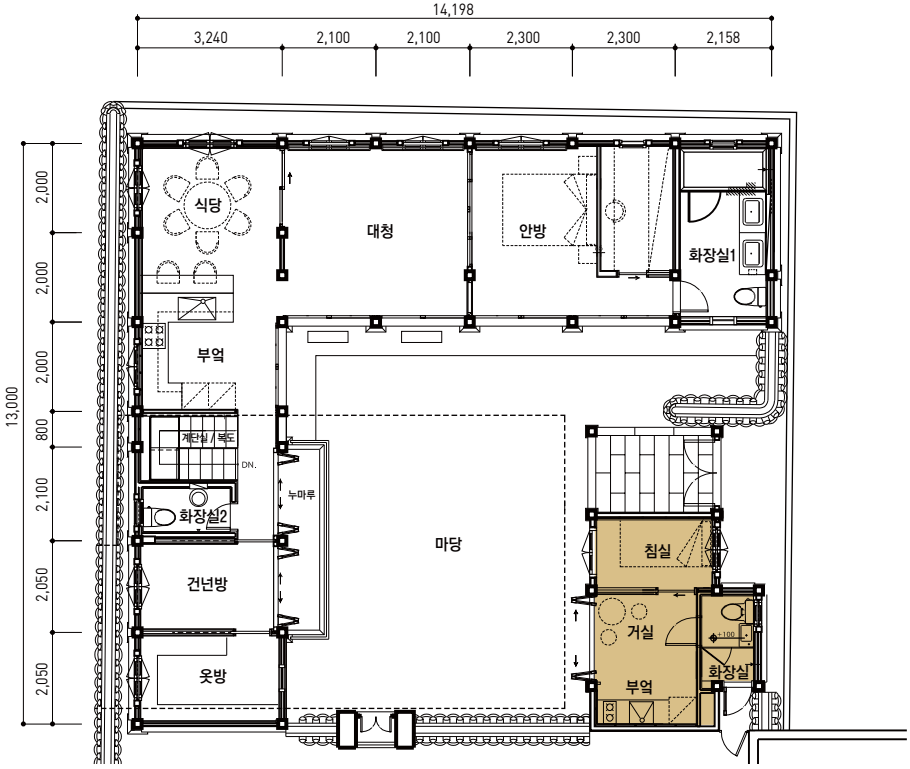
▶, ▶▶
접이식 보조 식탁의 설치 모습

간이 부엌

● 거실 겸용 부엌

- 'ㅡ'자형 작업대 구조: 빌트인시스템 설치
- 거실과 부엌, 침실을 함께 배치하는 원룸구조

침실과 거실,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사랑채를 완전히 별도로 계획하여 '주택 내 주택'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이 사랑채는 대문간을 포함하고 있다. 사랑채는 작은 공간에 거실과 부엌, 침실을 함께 배치하는 원룸구조를 적용하였다.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능(거실, 부엌, 식당)을 결합한 것은 최근 1인 가구의 수요와 생활양식에 대응하는 원룸 및 오피스텔 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거실 겸 부엌은 마당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크기는 3,090㎜×2,410㎜이다.



◀◀

사랑채 부엌 외관
© 박영채
[왼쪽 페이지]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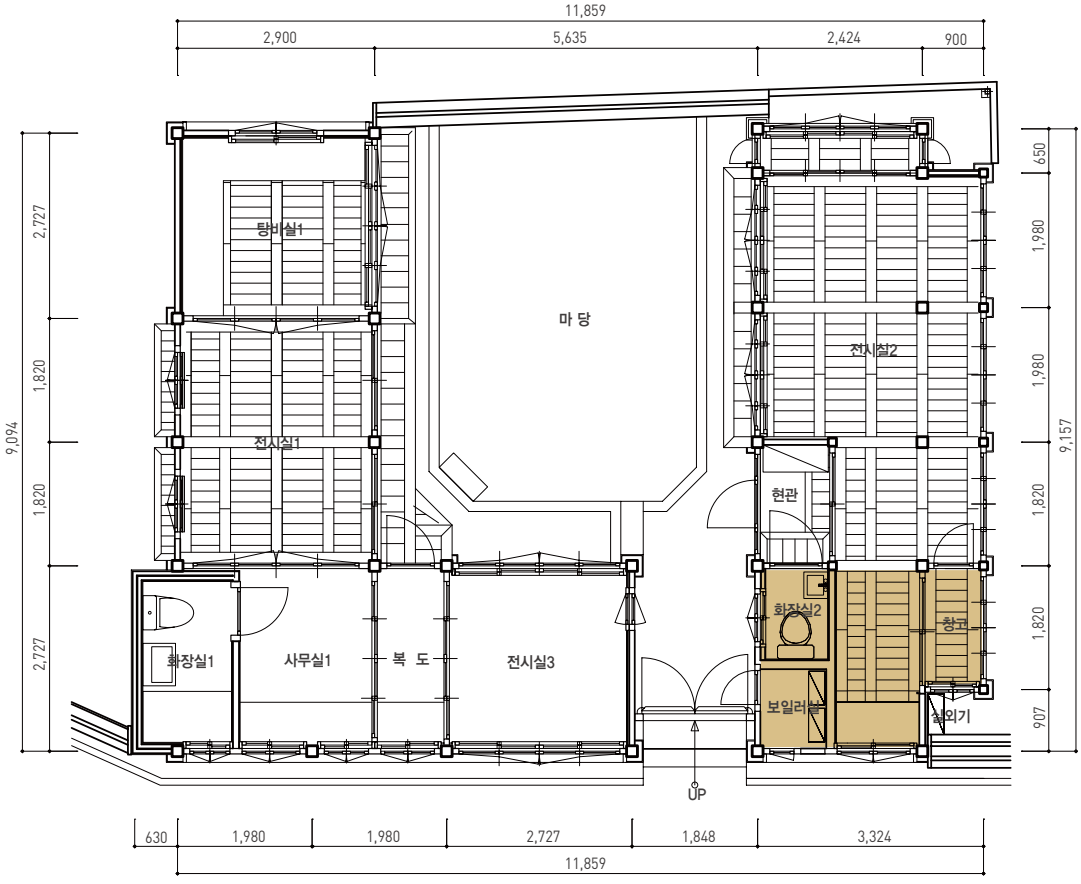
● 서재의 간이부엌

- 별채에 화장실, 간이부엌, 보일러실, 창고를 배치

별채에 위치한 전시실은 서재로 활용된다. 화장실과 창고 사이 공간(폭 1,324㎜)에 간이 부엌을 설치하여 별채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간단한 손 씻기와 수납이 가능하며 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와 외부전망을 확보하였다.

▲ 서재에 설치된 간이부엌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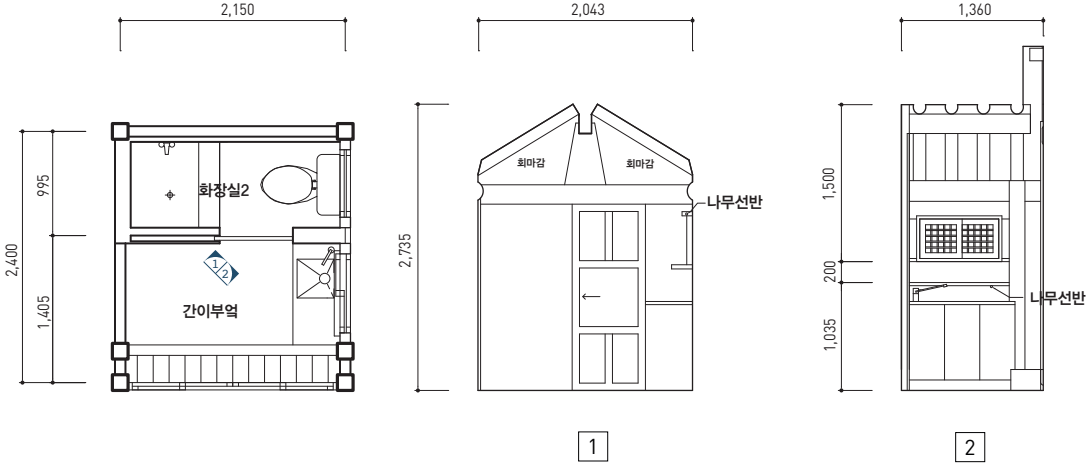

11,859
2,900
5,635
2,424
900
탕비실1
마 당
전시실2
전시실1
현관
화장실2
창고
화장실1
사무실1
복 도
전시실3
보일러실
실외기
UP
2,727
1,820
1,820
2,727
9,094
650
1,980
1,980
1,820
1,820
907
9,157
630
1,980
1,980
2,727
1,848
3,324
11,859

● 사랑채 간이부엌

리모델링 전 형태를 유지하여 같은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사랑채 간이부엌을 계획하였다. 싱크대와 수납공간의 기능을 갖는 작업대 위에 창호를 설치하여 자연환기와 외부전망을 확보하였다.

▼ 사랑채 간이 부엌 전개도

▶▶ 사랑채 간이부엌 © 박영채 (오른쪽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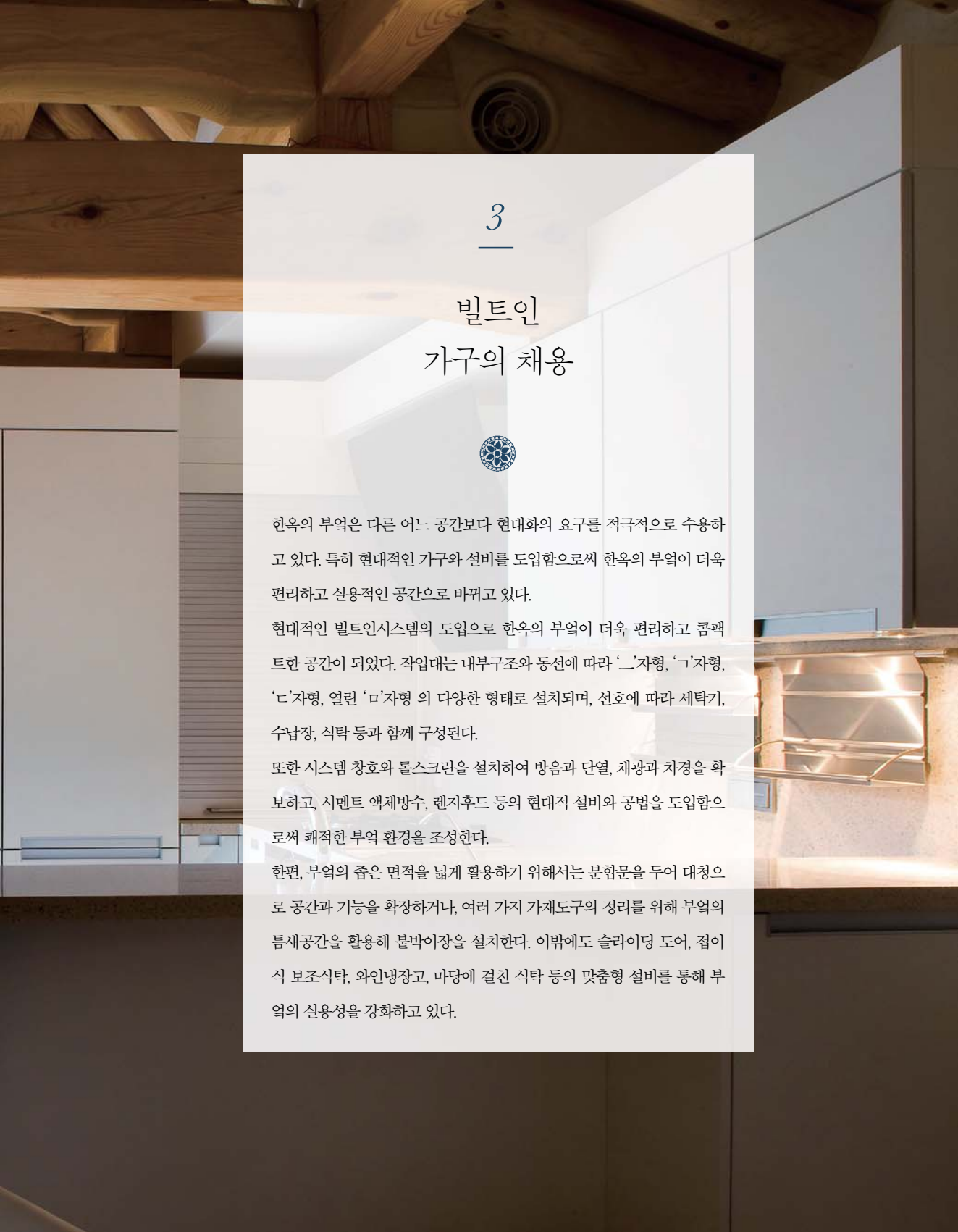


● 외부 뒷부엌 설치

이 사례는 나무나 창호지로 마감되어 냄새배임에 취약할 수 있는 한옥의 특성을 배려하여, 외부에 간이부엌을 설치하였다. 뒷부엌을 이용함으로써 환기 걱정없이 요리를 할 수 있고, 청결하고 깔끔한 주택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설비가 고안될 필요가 있다.

▼, ▶
외부 뒷 부엌 설치 모습

© 박영채



3

빌트인 가구의 채용

한옥의 부엌은 다른 어느 공간보다 현대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현대적인 가구와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한옥의 부엌이 더욱 편리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현대적인 빌트인시스템의 도입으로 한옥의 부엌이 더욱 편리하고 콤팩트한 공간이 되었다. 작업대는 내부구조와 동선에 따라 'ㅡ'자형, 'ㄱ'자형, 'ㄷ'자형, 열린 'ㅁ'자형 의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며, 선호에 따라 세탁기, 수납장, 식탁 등과 함께 구성된다.

또한 시스템 창호와 롤스크린을 설치하여 방음과 단열, 채광과 차경을 확보하고, 시멘트 액체방수, 렌지후드 등의 현대적 설비와 공법을 도입함으로써 쾌적한 부엌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부엌의 좁은 면적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합문을 두어 대청으로 공간과 기능을 확장하거나, 여러 가지 가재도구의 정리를 위해 부엌의 틈새공간을 활용해 붙박이장을 설치한다. 이밖에도 슬라이딩 도어, 접이식 보조식탁, 와인냉장고, 마당에 걸친 식탁 등의 맞춤형 설비를 통해 부엌의 실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벽면을 뒤로 확장하여 작업대 설치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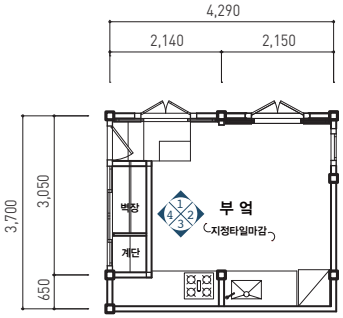
● 'ㅡ'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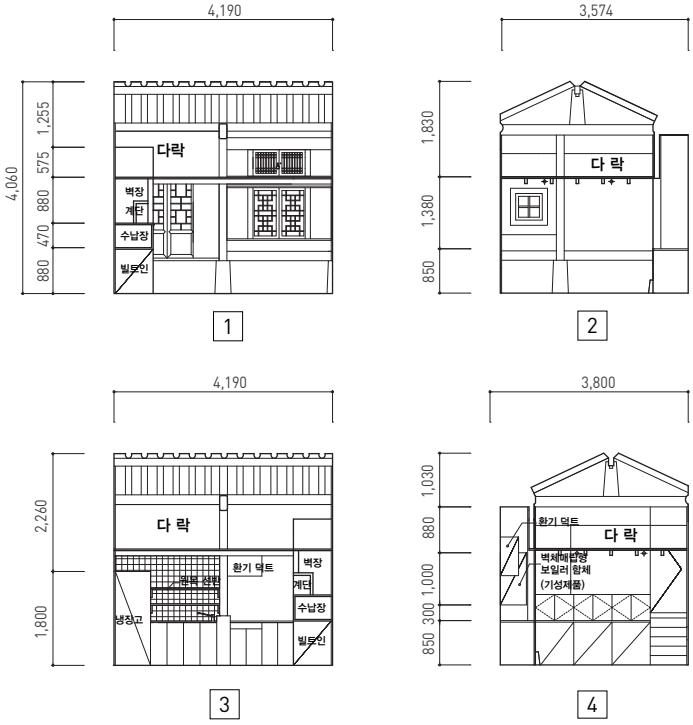
'ㅡ'자형 작업대를 빌트인시스템으로 설치하여 현대적 기능을 도입한 편리한 입식 부엌과 평상을 연상케하는 좌식 식당이 결합된 DK형식을 구현하였다. 또한 부엌 싱크대와 수납장 사이에 560㎜×735㎜의 공간을 마련하여 보일러실로 사용하는 등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 ▶
'ㅡ' 자형 작업대
© 박영채

● ‘ㄱ’자형

이 사례에서는 ‘ㄱ’자형 작업대를 갖는 빌트인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부엌의 환기는 창문과 기계식 팬(후드)으로 해결하였다.





작업대의 크기

- 서쪽부분 : 650㎜×2,150㎜
- 남쪽부분 : 600㎜×1,850㎜
- 높이 : 1,350㎜

◀◀
‘ㄱ’ 자형 작업대
설치 전경 © 박영채
(왼쪽 페이지)

▶
부엌 평면도 및 전개도
(원래는 ㅡ자형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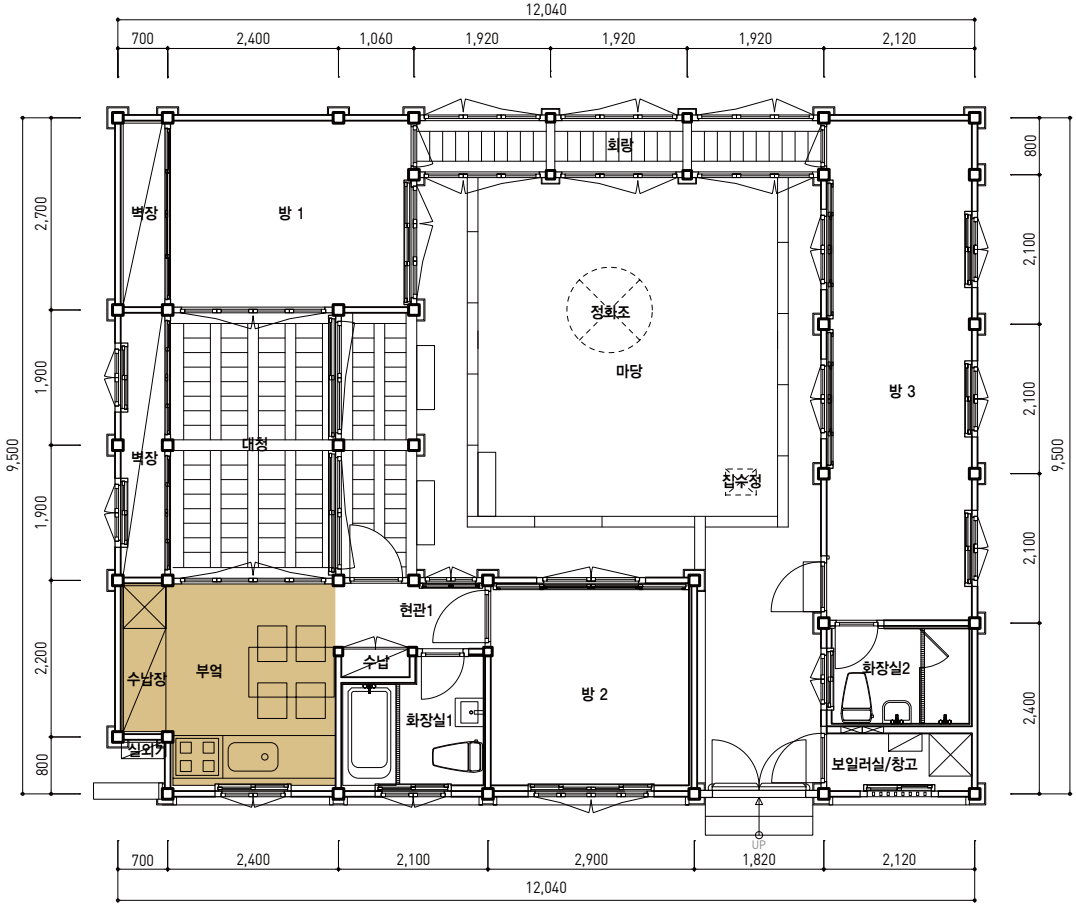
● ‘ㄷ’자형

‘ㄷ’자형 구조를 갖는 빌트인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작업대에 식탁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리기구 상부에 창과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기가 용이하다. 또한 벽면에는 냉장고와 정수기, 세탁기의 배치를 고려한 수납장을 설치하였다. 부엌의 벽면과 천장, 작업대를 나무소재로 마감하여 은은하고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 ‘ㄷ’자형 작업대 구조의 빌트인시스템
- 싱크대 위 창문과 환풍기 설치

◀◀
‘ㄷ’ 자형 작업대 설치 전경 (왼쪽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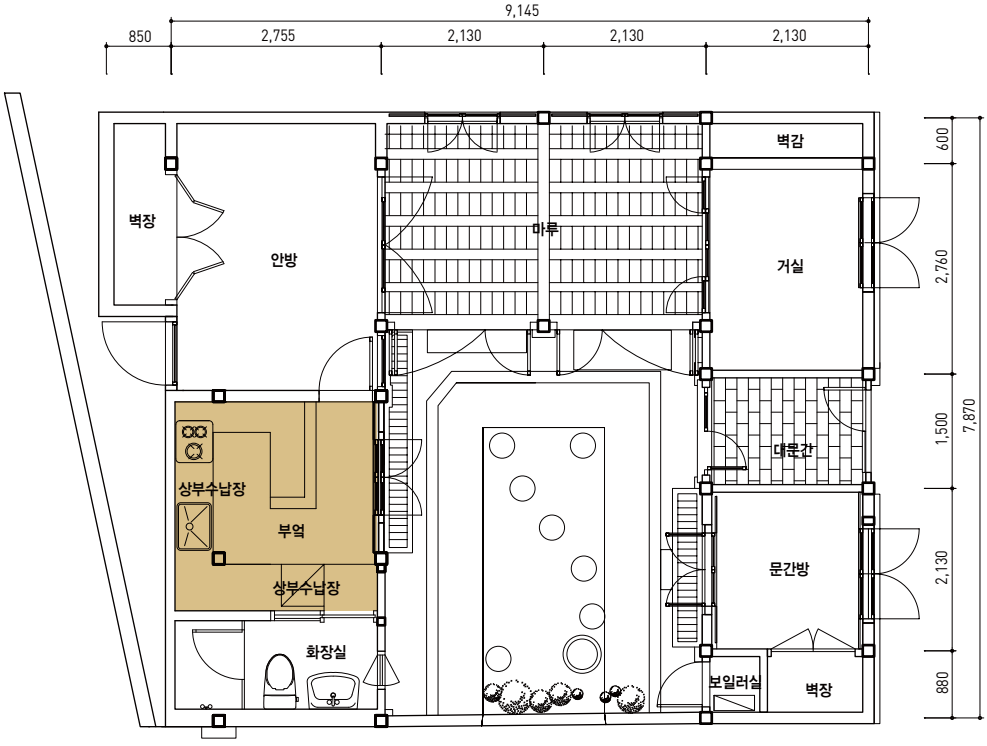
▼
평면도



● 열린 'ㅁ'자형

- 현대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
- 동선이 짧은 튼미음자 구조

이 집의 부엌 작업대는 열린 'ㅁ'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열린 'ㅁ'자 구조는 동선이 가장 짧고 편리하여 최적의 부엌 구조로 손꼽힌다. 집 안팎을 모두 한옥식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엌은 과감하게 현대식 디자인을 도입하였다. 건축주가 직접 고른 문양의 현대식 벽지로 도배하고 하이글로시 마감의 부엌가구를 배치하여 다른 사례에 비해 현대적인 느낌이 강하다. 전통과 현대 요소의 접목을 시도한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열린 'ㅁ' 자형 작업대 설치
© 박영채
(왼쪽 페이지)

▲ 평면도

수납 등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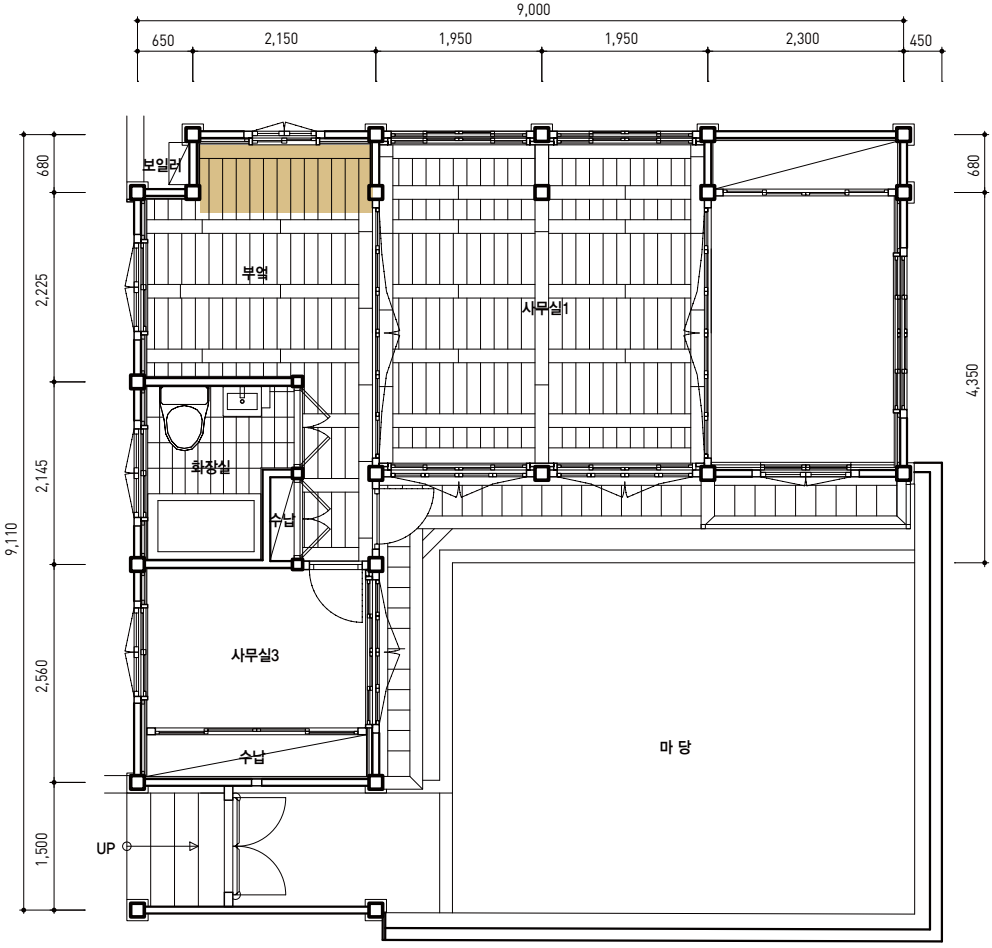
● 붙박이 수납장과 와인냉장고 설치

- 붙박이형의 부엌 수납장 설치
  : (크기) 2,000㎜×620㎜
- 부엌 층고 :
  F.L에서 주심도리 하부면까지 2,330㎜
  F.L에서 종도리하부면까지 3,400㎜

이 집은 주거보다는 사무실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납공간이 넉넉치 않다. 다락대신 부엌도구를 수납하기 위한 붙박이형의 수납장을 설치하여 부엌 내부 입면을 깔끔하게 정돈하였다. 또한 수납장 한켠에 와인냉장고를 설치하여 건축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콤팩트한 부엌을 완성하였다

◀◀
붙박이장과
와인냉장고의 설치
(왼쪽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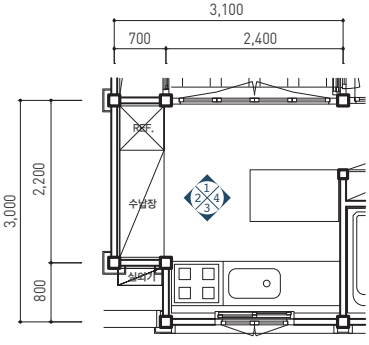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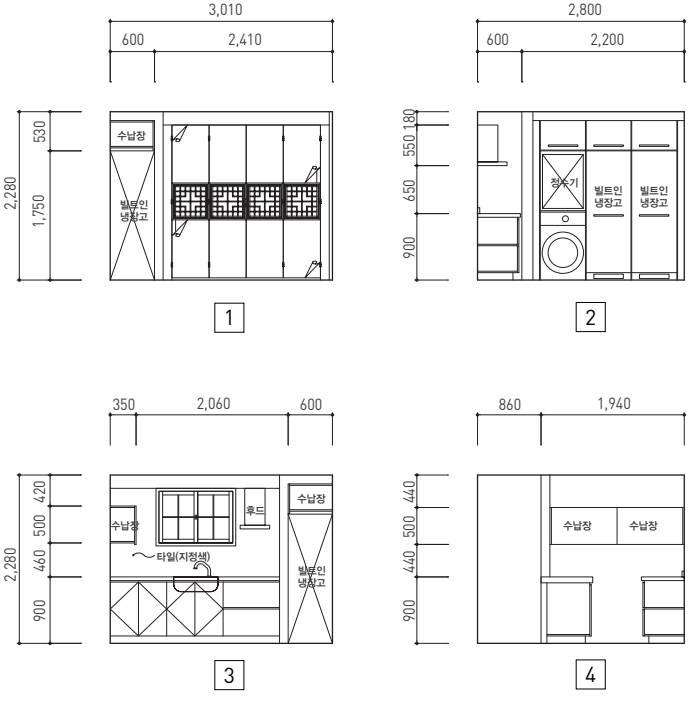


틈새공간을 활용한 수납 공간 설치

- 수납장의 크기 : 600㎜×1,450㎜
- 수납장에 정수기와 세탁기 설치

부엌에는 다양한 살림살이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납공간이 마련되어야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고 주부들의 일상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 이 집은 부엌 벽면에 정수기와 세탁기, 냉장고가 들어간 수납장을 설치하여 벽면을 깔끔하게 정돈하였다.





▶▶
틈새공간을 활용한 수납공간의 설치 [오른쪽 페이지]

▶
부엌 평면도 및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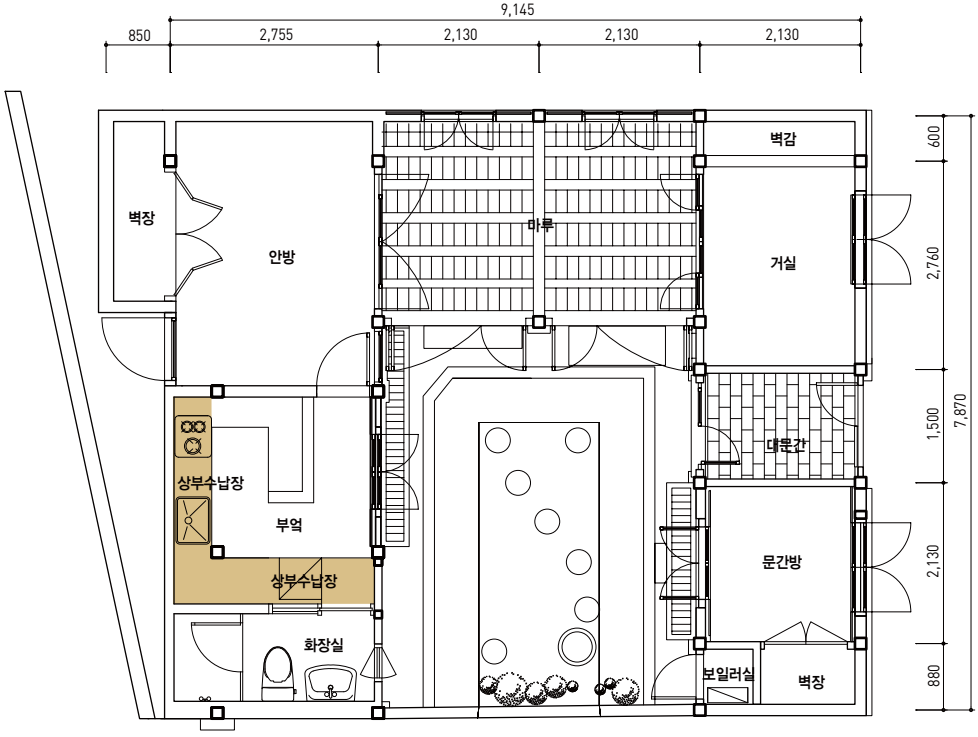
작업대 위에 수납장 설치

처마 밑 공간을 활용하여 부엌 상부에 수납공간을 마련하였다. 수납을 위해 바닥 높이를 낮춰 부엌 천장고를 2,725㎜ 확보하였고, 수납장을 답답하지 않도록 전체가 아닌 작업대 위에 부분적으로 설치하였다.

- 처마 밑 공간을 활용하여 부엌의 규모를 확장함

▶▶ 부엌작업대와 상부 수납공간 (오른쪽 페이지)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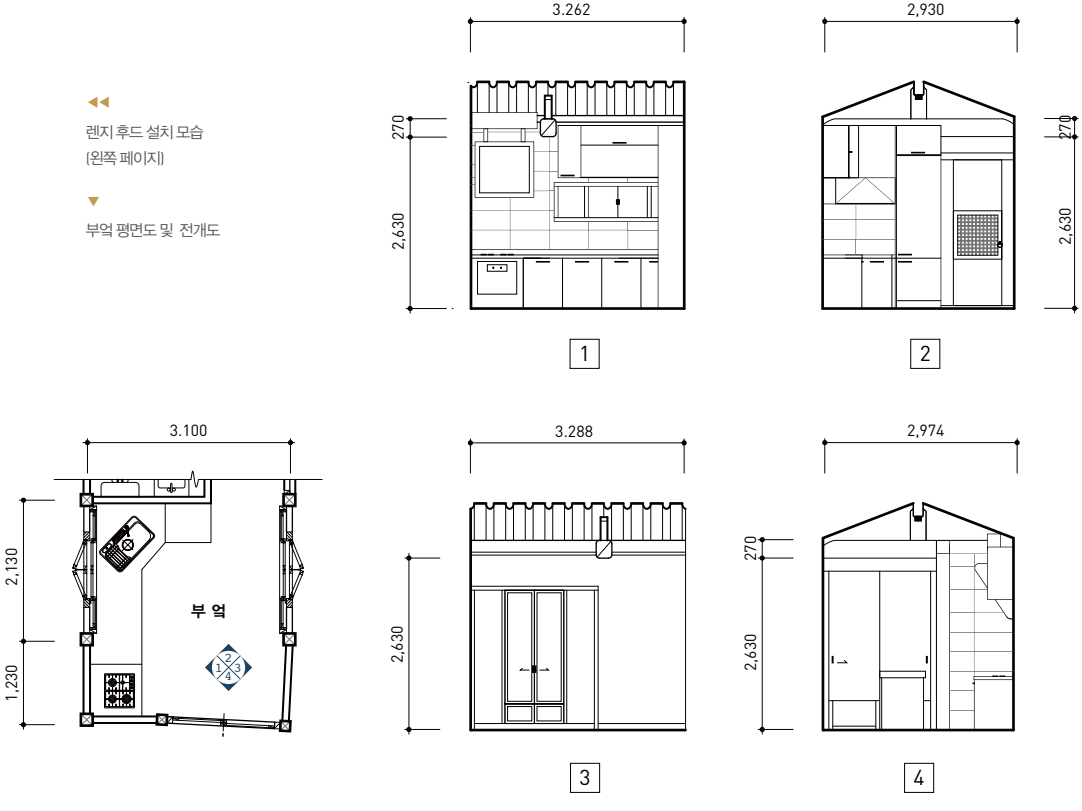
● 렌지 후드

렌지 후드 설치를 통한 환기 배려

부엌은 냄새와 습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기가 중요하다. 이 사례는 현대화에 따른 환기 방식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렌지후드를 설치하였다. 또한 싱크대 위에 창문이 있어 자연 환기도 가능하며, 부엌 작업대 위 환기창과 부엌에서 마당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통해 공기의 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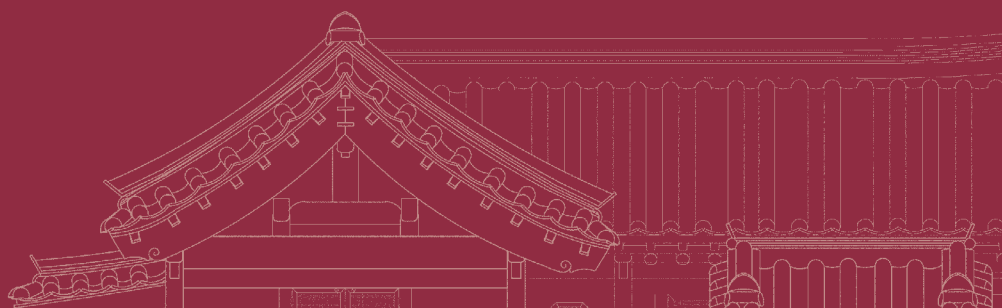
◀◀
렌지 후드 설치 모습
(왼쪽 페이지)

▼
부엌 평면도 및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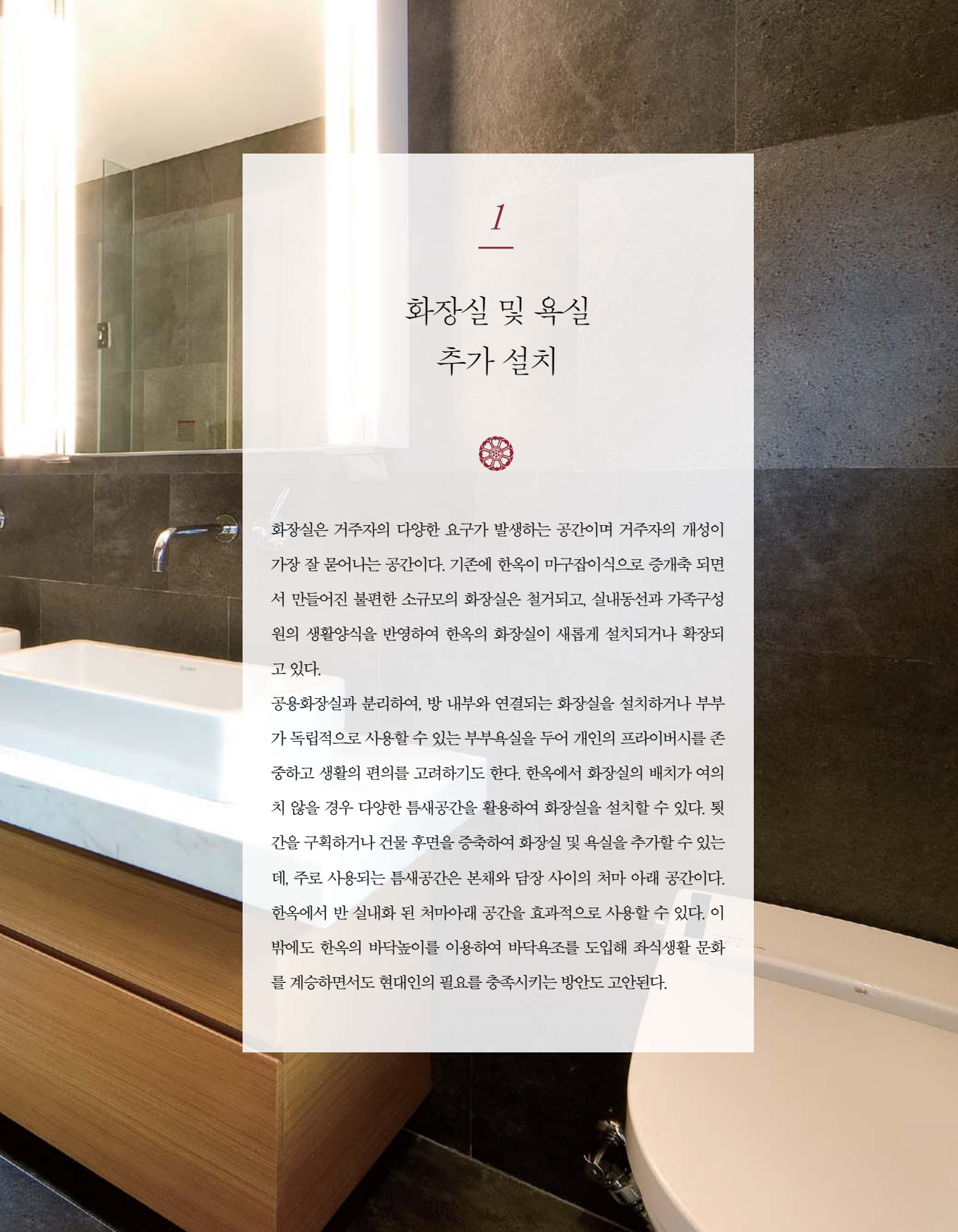


화장실과 욕실

- 화장실 및 욕실 추가 설치
- 물사용에 따른 설비 보완
- 쾌적한 화장실 및 욕실 추구



© 박영채



1

화장실 및 욕실 추가 설치

화장실은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는 공간이며 거주자의 개성이 가장 잘 묻어나는 공간이다. 기존에 한옥이 마구잡이식으로 증개축 되면서 만들어진 불편한 소규모의 화장실은 철거되고, 실내동선과 가족구성원의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한옥의 화장실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확장되고 있다.

공용화장실과 분리하여, 방 내부와 연결되는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부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부욕실을 두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생활의 편의를 고려하기도 한다. 한옥에서 화장실의 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양한 틈새공간을 활용하여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툇간을 구획하거나 건물 후면을 증축하여 화장실 및 욕실을 추가할 수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틈새공간은 본채와 담장 사이의 처마 아래 공간이다. 한옥에서 반 실내화 된 처마아래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옥의 바닥높이를 이용하여 바닥욕조를 도입해 좌식생활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안도 고안된다.

개인화장실 추가

01

❖ 공용화장실과 개인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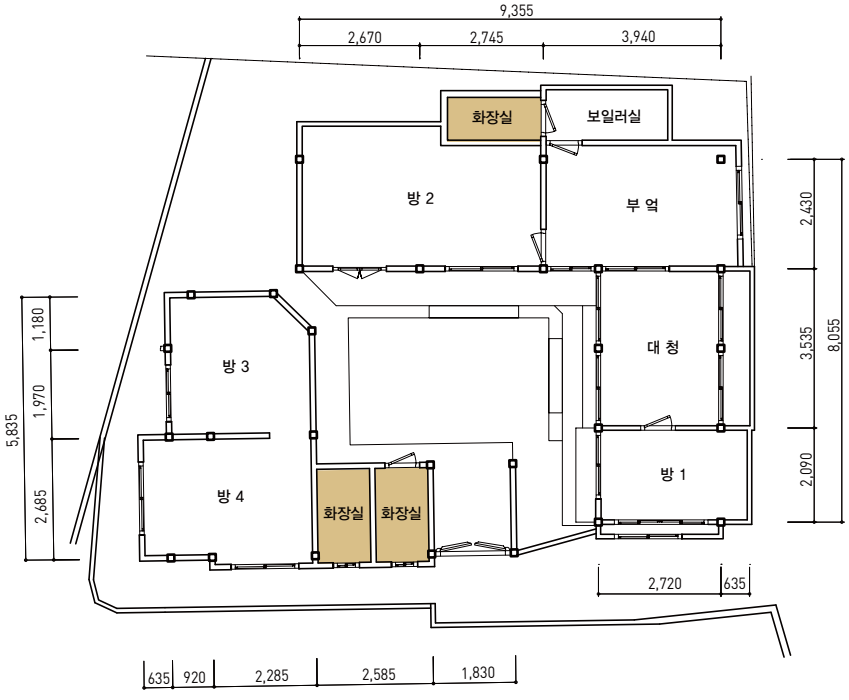
- 방 내부에 위치
- 화장실 크기 : 2,100㎜×1,500㎜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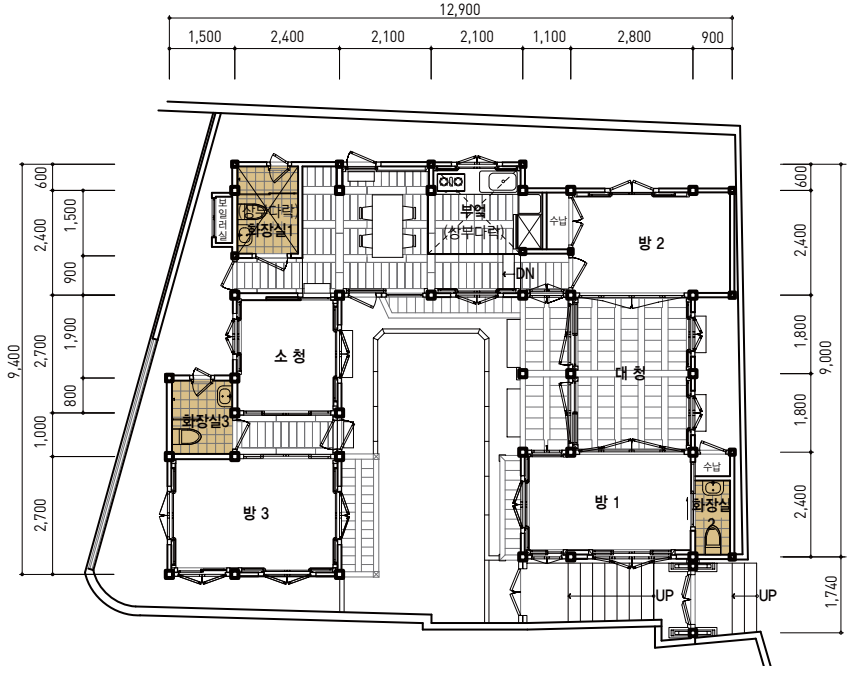
방 내부 개인화장실

이 집은 세 개의 화장실로 구성된다. 화장실1은 부엌 앞 복도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로 소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2,100㎜×1,500㎜ 크기에 세면기, 변기, 샤워부스를 설치하였다.

▶ 화장실1 내부

▶▶ 리모델링 전·후 평면도 (오른쪽 페이지)


9,355
2,670
2,745
3,940
화장실
보일러실
방 2
부 엌
2,430
3,535
8,055
대 청
방 1
2,090
2,720
635
1,180
1,970
5,835
2,685
방 3
방 4
화장실
화장실
635
920
2,285
2,585
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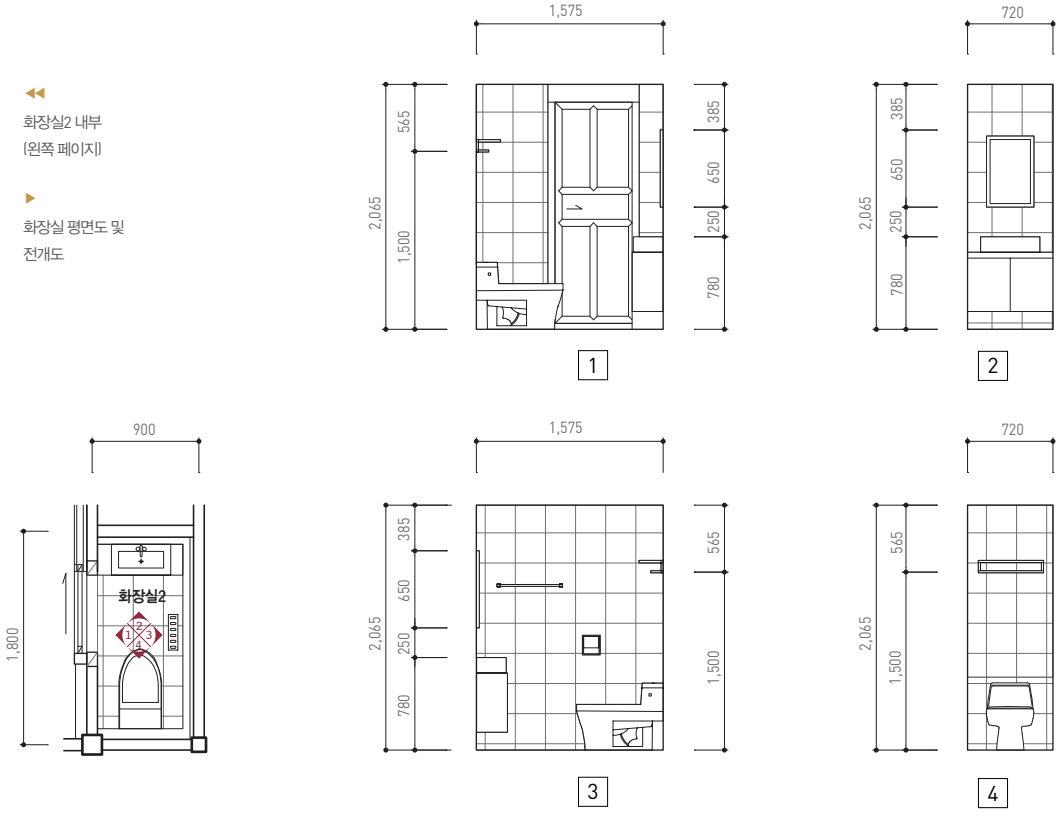

12,900
1,500
2,400
2,100
2,100
1,100
2,800
900
600
2,400
1,500
900
1,900
2,700
800
1,000
2,700
9,400
(침두마루)
화장실1
(침두마루)
부엌
수납
방 2
DN
소 청
대 청
화장실3
방 3
방 1
수납
화장실2
UP
UP
600
2,400
1,800
1,800
2,400
9,000
1,740

● 화장실 및 욕실 추가 설치

화장실2는 방1에서 출입가능한 화장실로 1,800㎜×900㎜의 작은 공간에 기본적인 세면과 용변이 가능하도록 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였다. 화장실3은 방과 소청사이의 복도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 화장실 규모는 1,800㎜×1,500㎜이고 변기, 세면대,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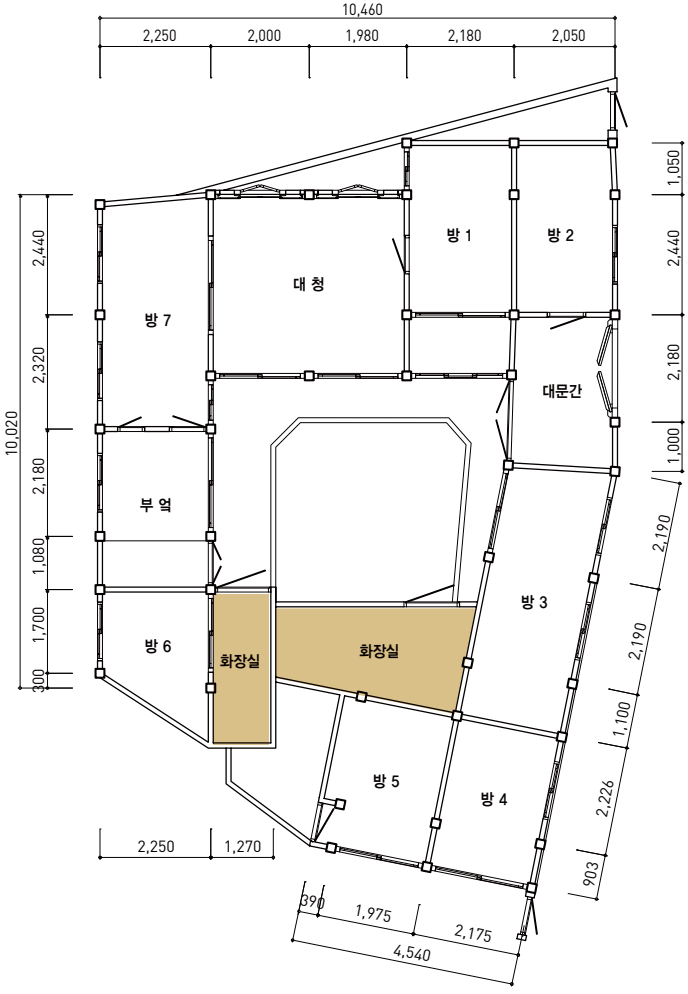
◀◀
화장실2 내부
(왼쪽 페이지)

▶
화장실 평면도 및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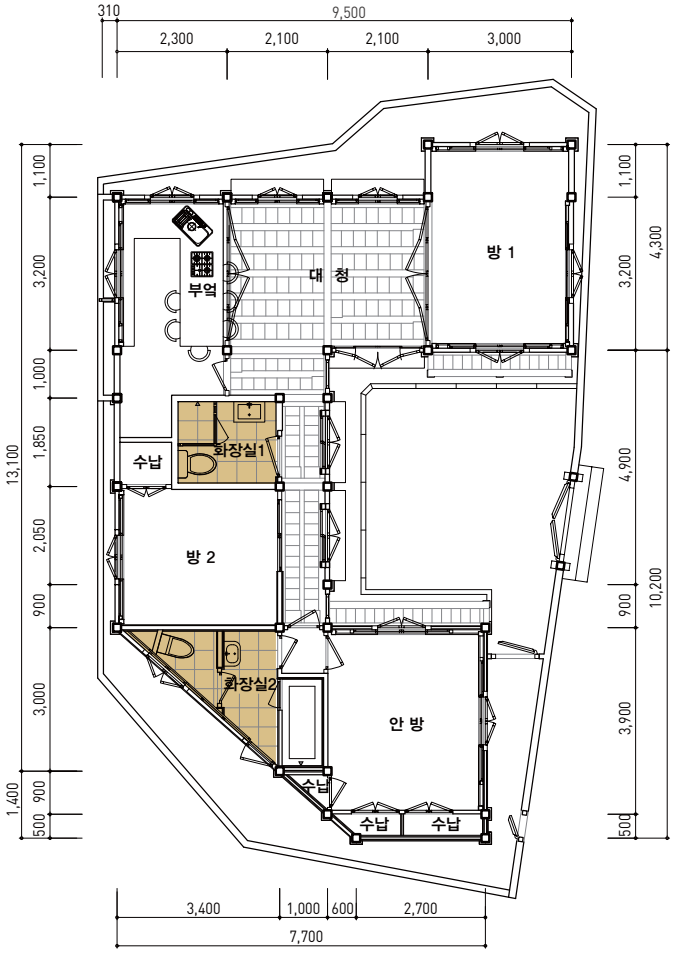


안방과 연결된 부부욕실

이 집의 대지 형태에 따라 방과 안방사이에 생긴 삼각형의 자투리 공간에 안방화장실을 배치하였다. 안방과 안방화장실이 부부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발길이 덜 닿는 곳에 배치하고 이중문을 만들었다. 화장실 내부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욕조실, 세면실, 용변실을 문과 벽을 이용해 구분하였다. 욕조와 세면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화장실 내에서 최소한의 이동거리를 주는 방향으로 출입문을 배치하여 내부동선을 편리하게 하였다.



- 욕조실, 세면실, 용변실을 문과 벽을 이용해 구분
- 안방과 복도를 통해 출입가능
- 화장실 규모 : 3,400㎜×3,000㎜ (변기, 세면대, 욕조)



◀◀
리모델링 전 평면도
(왼쪽 페이지)

▶
리모델링 후 평면도 (위)
화장실2 내부 사진 (아래)

본채와 담장사이 공간 활용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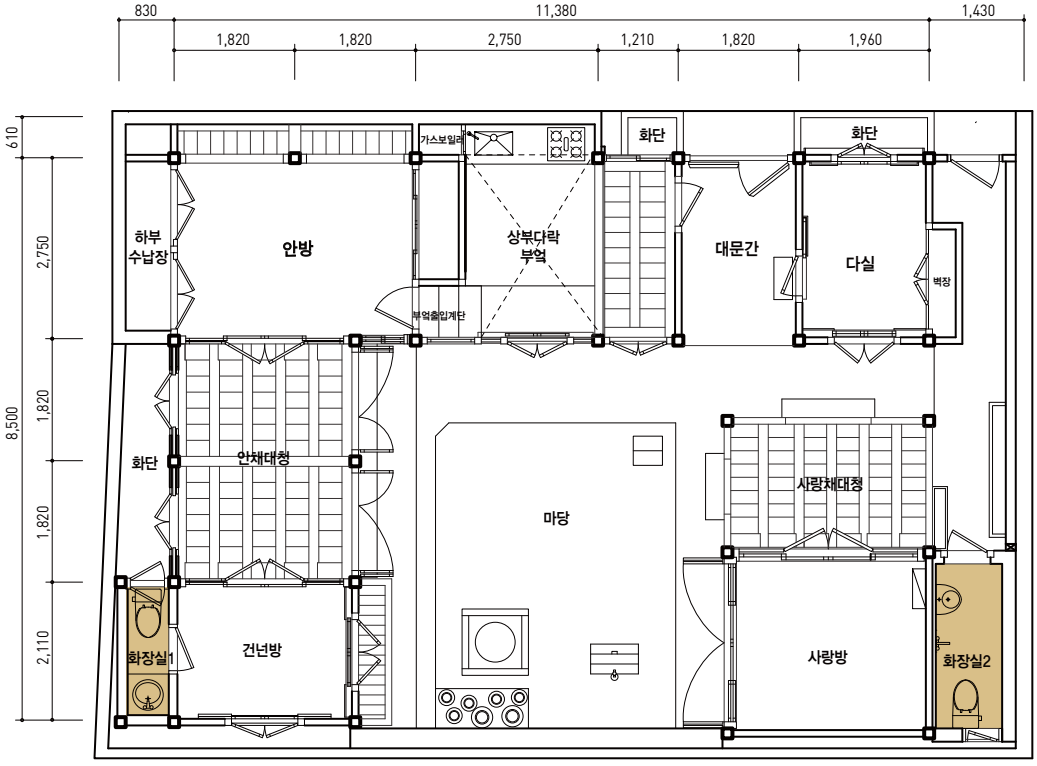
❖ 본채와 담장사이 공간을 증축하거나 확장하여 화장실 설치

- 화장실 폭은 620㎜×1,900㎜(안폭)으로 매우 작지만, 변기와 세면대의 설치가 가능한 컴팩트형
- 화장실은 건넌방을 통해 출입가능, 마감재료는 방수목재

본채와 담장 사이 공간 활용 (사례 1)

한옥의 내부가 높은 층고와 구석구석 숨겨진 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담장으로 둘러싸인 한옥의 외부공간도 그렇다. 특히 한옥의 처마는 외벽 밖으로 길게 뻗어 나와 있기 때문에 벽 주변의 외부공간을 내부화할 수 있다. 이 집은 처마로 덮이고 외벽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사이 공간에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대부분의 화장실의 경우 안방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건넌방 내부에 설치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방을 반듯하게 배치하기 위해 화장실을 자투리 공간에 계획한 것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삶의 편리성, 생활공간으로서의 요구 등을 일정부분 양보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평면도

◀◀
화장실 내부
(왼쪽 페이지)

▶▶

화장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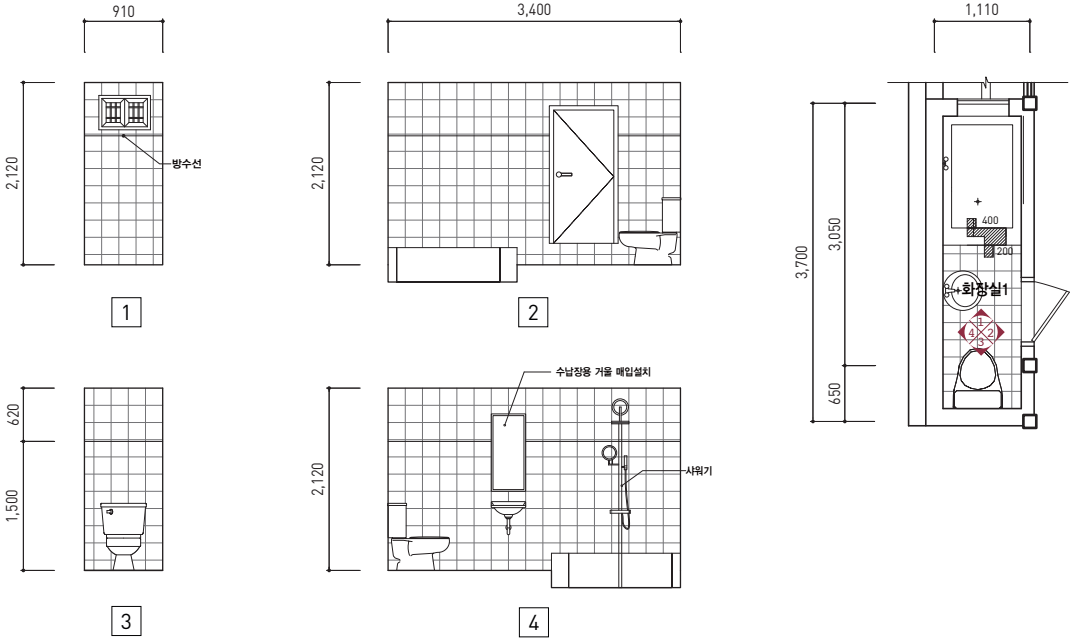
© 박영채

(오른쪽 페이지)

▼

안방 화장실

평면도 및 전개도(계획)



본채와 담장사이 공간 활용 (사례 2)

리모델링 전 이 집은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있는 구조였으나 부엌의 위치를 복원하면서 부엌과 화장실을 분리하였다. 기존욕실을 축소하면서 안방의 넓이를 확보하는 대신 본채와 담장 사이 공간을 증축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작은 폭의 화장실(안폭 910㎜×3,400㎜)에 나무욕조와(히노끼욕조, 깊이: 바닥에서 200㎜ DN 200㎜ UP), 세면기, 변기, 샤워기를 설치하였으며, 욕조위에는 자연환기창을 마련하였다. 리모델링 후 화장실의 크기는 변경전보다 축소되었으나 좁은 폭의 공간에서도 수직공간 높이를 확보하여 욕조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배치하였다.

- 안방에서 출입가능
- 안방 화장실 크기 : 3,700㎜×1,110㎜
- 히노끼욕조 설치 : 1,500㎜×910㎜ (깊이: 바닥에서 200㎜ DN, 200㎜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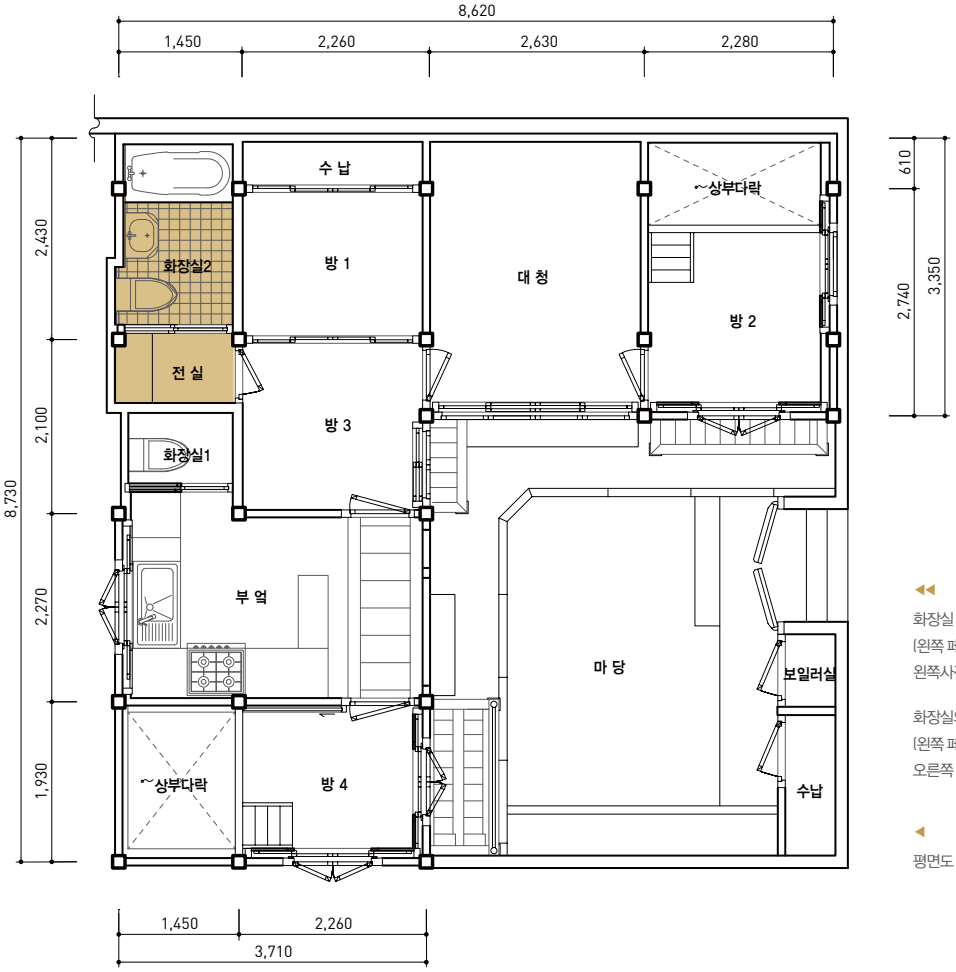
전실을 도입하여 편리성 확보

01

❖ 전실을 도입하여 탈의, 화장, 드라이 등 편리성을 확보

- 화장실 출입문 앞에 전실 설치
- 전실의 규모 : 1,000㎜×840㎜

안방의 좁은 공간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장실 앞에 전실을 마련하였다. 전실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화장실 출입문을 미닫이문으로 계획하였고, 수납장을 배치하였다. 주로 목욕 후 몸을 말리고 탈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화장실 출입문 맞은편에는 전신거울을 설치하였다.



◀◀
화장실 내부
(왼쪽 페이지,
왼쪽사진)

화장실의 전실
(왼쪽 페이지,
오른쪽 사진)

◀
평면도

© 박영채

2

물사용에 따른 설비 보완

전통한옥의 화장실에 없던 욕조나 샤워부스 등이 추가되면서 한옥에서 물사용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현대적인 시설과 설비를 도입하여 한옥의 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화장실을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면대가 있는 건식공간과 욕실이 있는 습식공간으로 구분하는가 하면, 목구조 건축인 한옥의 수분 접촉에 대비하여 방수코팅 된 회벽과 방수 목재, 방수 석고보드, 비닐페인트, 자기질의 타일, 나무널로 된 바닥 등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화장실 내부에 온수코일, 벽걸이 라디에이터를 등을 설치해 난방을 보완하고, 미닫이 시스템 창호나 기계식 환기구 등을 설치하여 화장실의 내부화에 따른 환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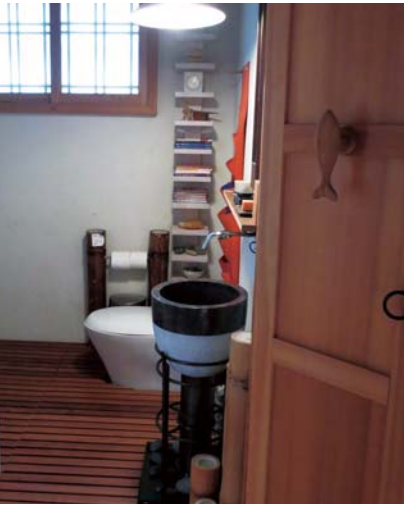
수분 접촉에 대비한 마감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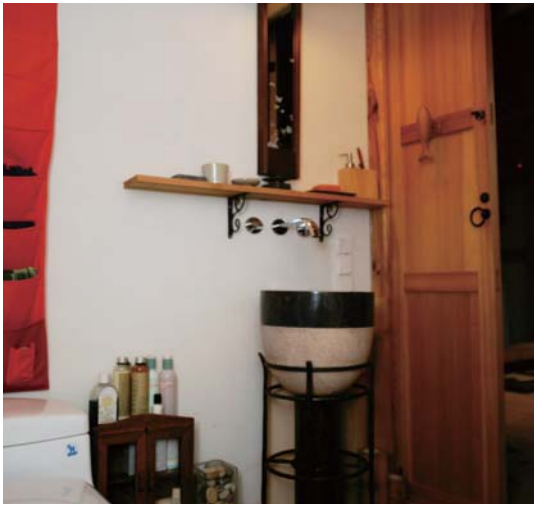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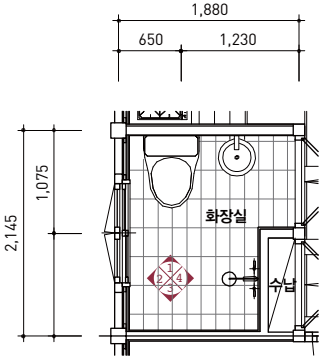
❖ 방수코팅된 회벽과 방수목재, 나무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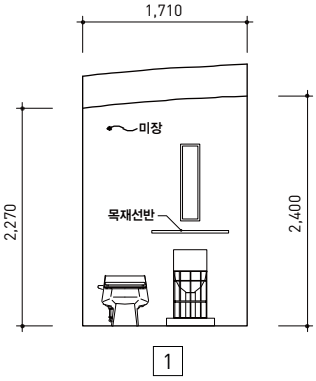
• 화장실 마감의 경우 벽은 방수코팅된 회벽을 사용하였으며, 바닥은 타일을 깔고 그 위에 나무널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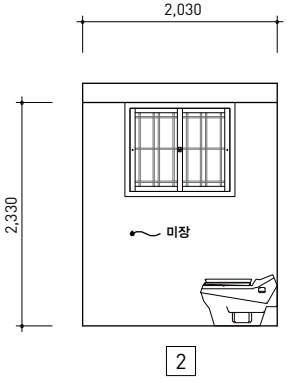
외부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부엌(탕비실)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부엌(탕비실)과 마당, 사무실에서 손쉽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화장실 크기는 1,880㎜×2,145㎜로 변기와 세면대, 샤워기를 설치하였으며, 마감은 방수코팅 된 회벽을 사용하였다. 바닥은 타일을 깔고 그 위에 나무널로 마감을 하였다. 나무널은 청소할 때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조립식으로 시공하였다. 타일마감의 경우 한옥에서 생경한 느낌을 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목재마감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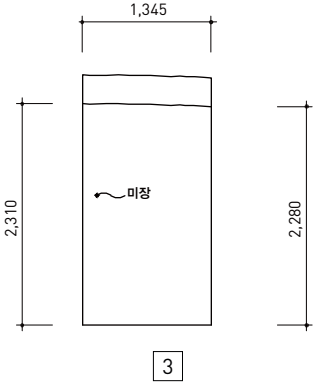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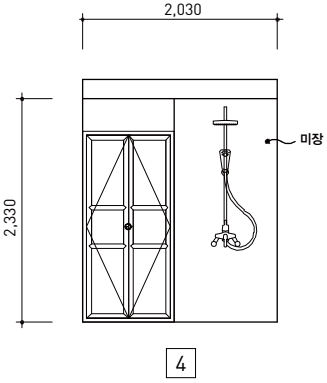












▶

안방 화장실
평면도 및 전개도

◀◀

세면대의 설치
(왼쪽 페이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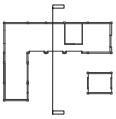
샤워기 설치
(왼쪽 페이지,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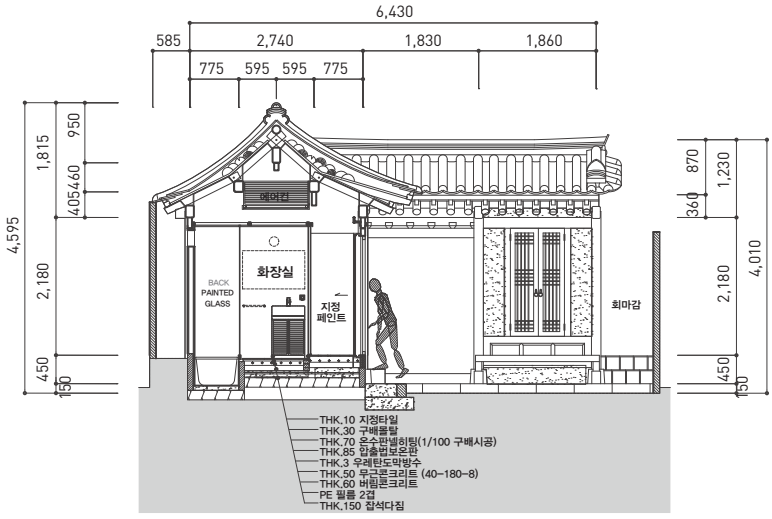
탈부착 가능한 목재바닥
(왼쪽 페이지, 왼쪽)

❖ 유리마감

기존 외부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한 후 내부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청과 안방 사이에 화장실을 계획하였다. 현관을 열자마자 바로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은 1,530㎜×1,815㎜ 크기로 변기, 세면대와 430㎜ 낮은 바닥에 욕조를 설치하였다. 화장실의 내벽마감은 타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사례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한 후 백페인트글라스(back painted glass)로 마감하여 모던한 느낌을 살렸다.

▼
화장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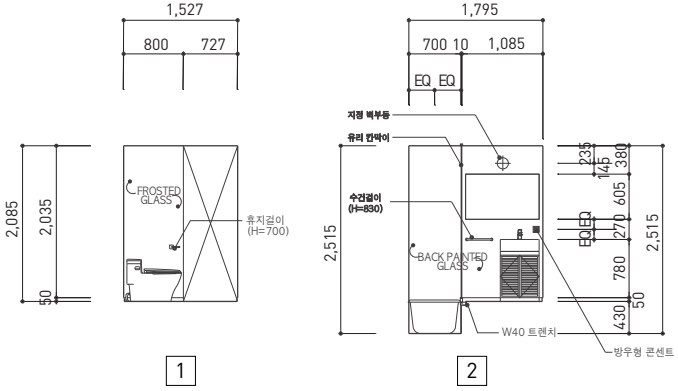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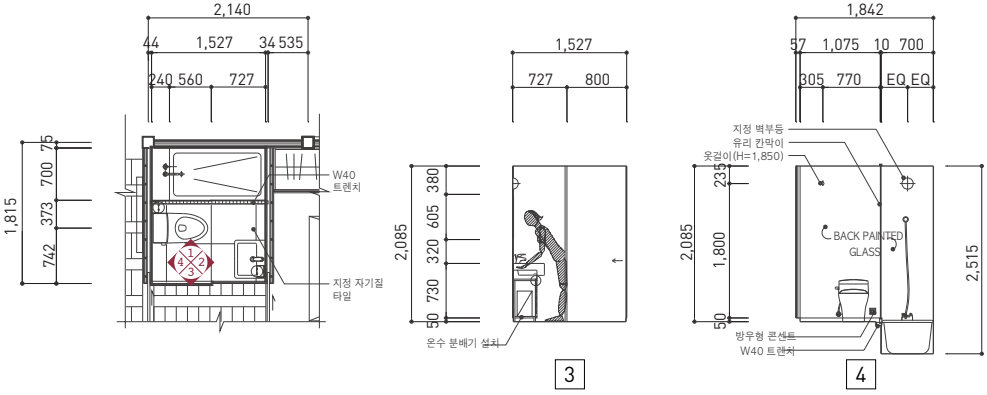
▶

입 · 단면도

▼

화장실 평면도 및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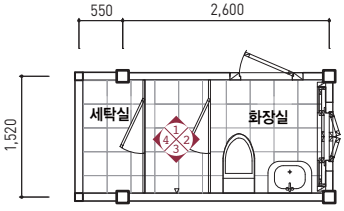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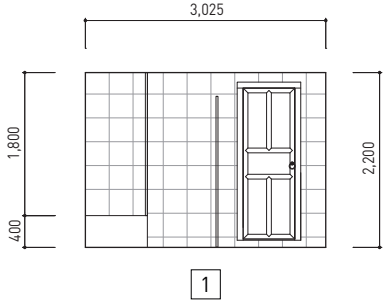
환기 설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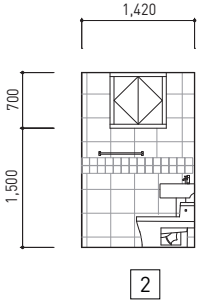
❖ 환기창을 유리-창호지-유리의 3중 구조로 제작하여 습기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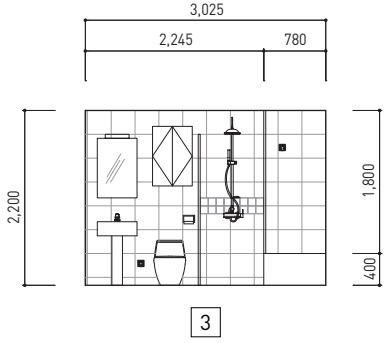
기존 외부공간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부엌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3,150㎜×1,520㎜ 크기의 화장실에는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세탁실을 설치하였고 부엌에서 출입 가능하도록 하였다. 내부천장은 목재로 마감하였고 벽은 타일로 시공하였다. 화장실의 환기창은 유리-창호(부직포 위에)-유리(간격 1-2㎜)의 3중 구조로 시공하여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샤워실을 분리하여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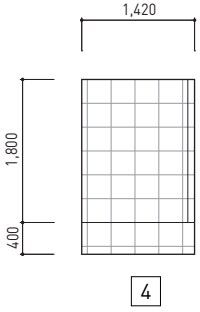
- 샤워실 옆으로 800㎜×1,420㎜ 크기의 샤워실 마련
- 화장실 환기창은 유리-창호[부직포 위에 창호지]- 유리[간격 1-2㎜]의 3중 구조로 제작











◀◀ 화장실 평면도 및 전개도 (왼쪽 페이지)

▼ 화장실 내부

❖ 기계식 환기구 설치

- 샤워부스의 크기 :
  1,290㎜×700㎜
  (전체 화장실 면적의 약 30%)
- 자연환기창 크기 :
  420㎜×520㎜

기계식 환기구 설치 (사례 1)

현대적인 느낌을 살려 화장실에 샤워부스를 설치하였다. 샤워부스의 크기는 1,290㎜×700㎜이며, 화장실 면적의 약 30%를 차지한다. 샤워부스에는 유리문을 설치하여 샤워 후 습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 환기창과 환기팬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화장실에 설치된 환기팬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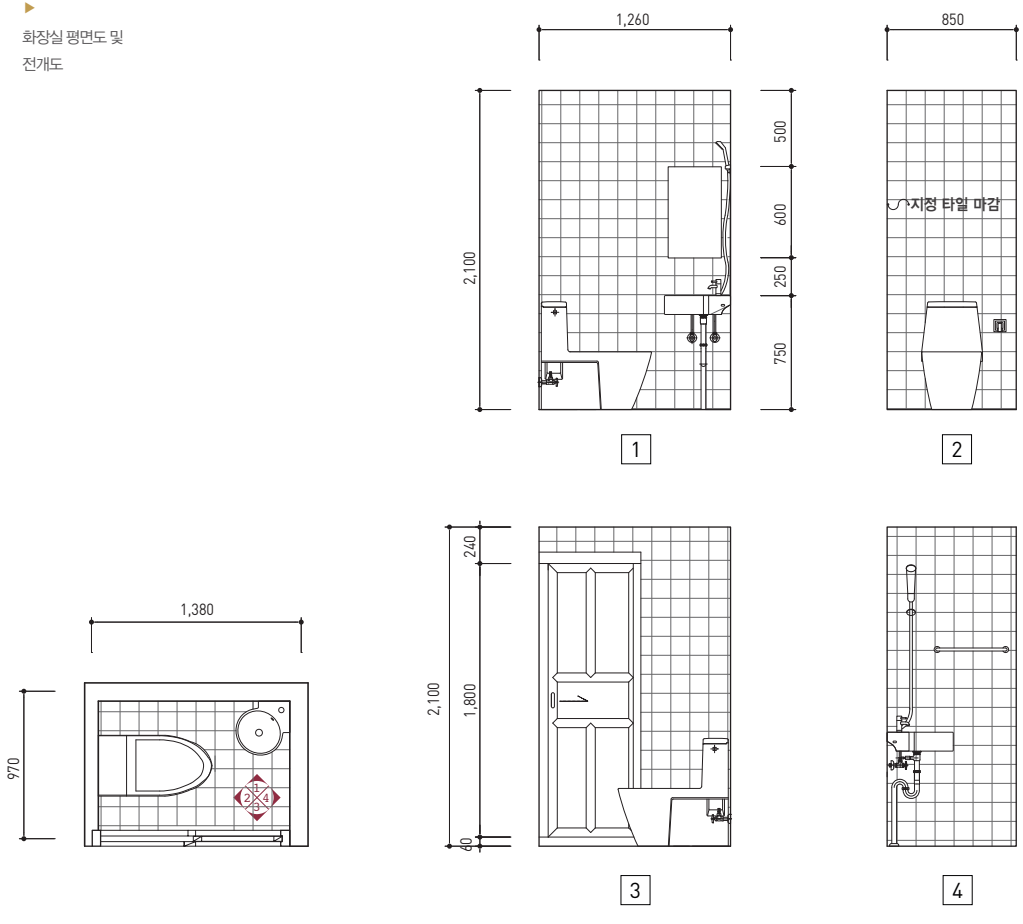
▼ 샤워부스 내 설치된 환기팬과 환기창

기계식 환기구 설치 (사례 2)

- 화장실 규모 : 1,380㎜×970㎜ (변기, 세면대, 샤워기)
- 환기팬을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시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기존 외부에 위치하고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화장실이 옆집과 가까워 환기창 대신 환기팬을 설치하여 강제 환기가 되도록 하였다. 1,380㎜×970㎜ (안폭 1,260㎜×850㎜) 작은 폭의 화장실에 세면대, 변기, 샤워기를 설치하였으며, 부엌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 화장실 평면도 및 전개도



난방 설비 보완

02

❖ 온수코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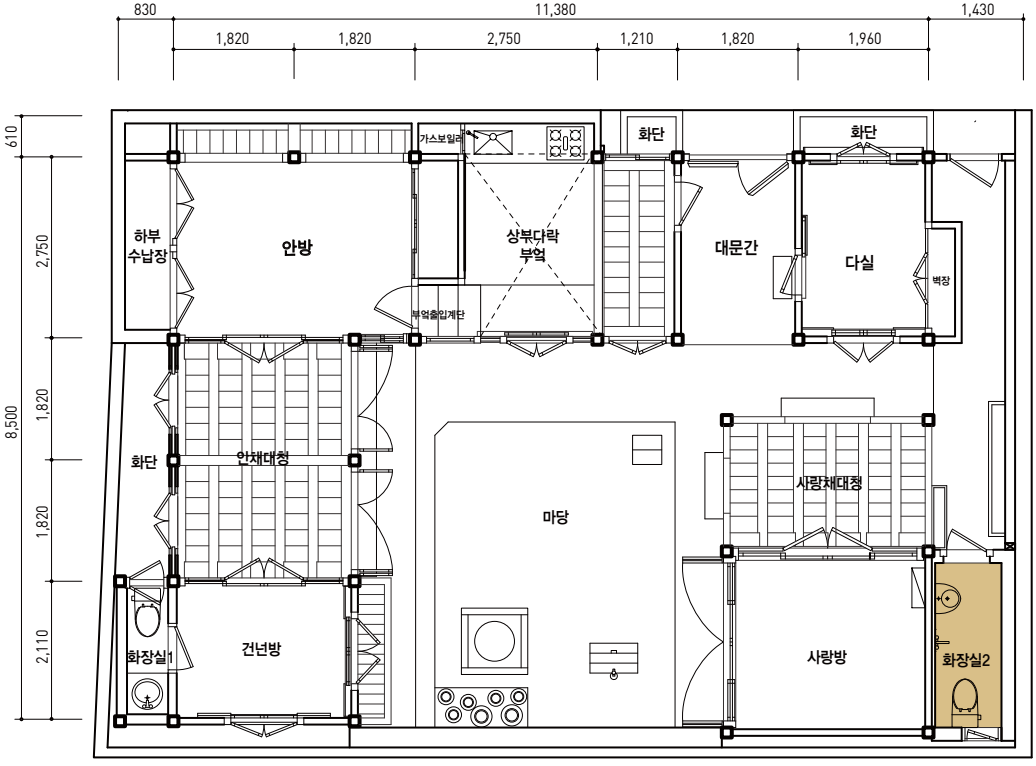
외부에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는 외부화장실의 경우, 외기에 면하는 부분이 많아 겨울철에 수도관이 동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난방을 시공하고 수도관에 열선을 설치하였다.

▶
화장실 내부 전경
©박영채
(왼쪽 페이지)

▶▶
화장실 출입구 전경
(오른쪽 페이지)

- 방문객을 위한 별도의 외부 화장실을 설치
- 화장실 폭 : 1,000㎜×2,480㎜(안쪽), 변기, 세면대, 샤워기를 설치
- 바닥면에는 도시가스 보일러로 작동되는 온수 코일을 깔아서 겨울의 추위에 대비

▼
평면도


830
11,380
1,430
1,820
1,820
2,750
1,210
1,820
1,960
610
2,750
1,820
1,820
2,110
8,500
하부
수납장
안방
가스보일러
상부다락
부엌
부엌출입계단
화단
대문간
화단
다실
벽장
화단
안채대청
마당
사랑채대청
화장실1
건넌방
사랑방
화장실2

❖ 벽걸이 라디에이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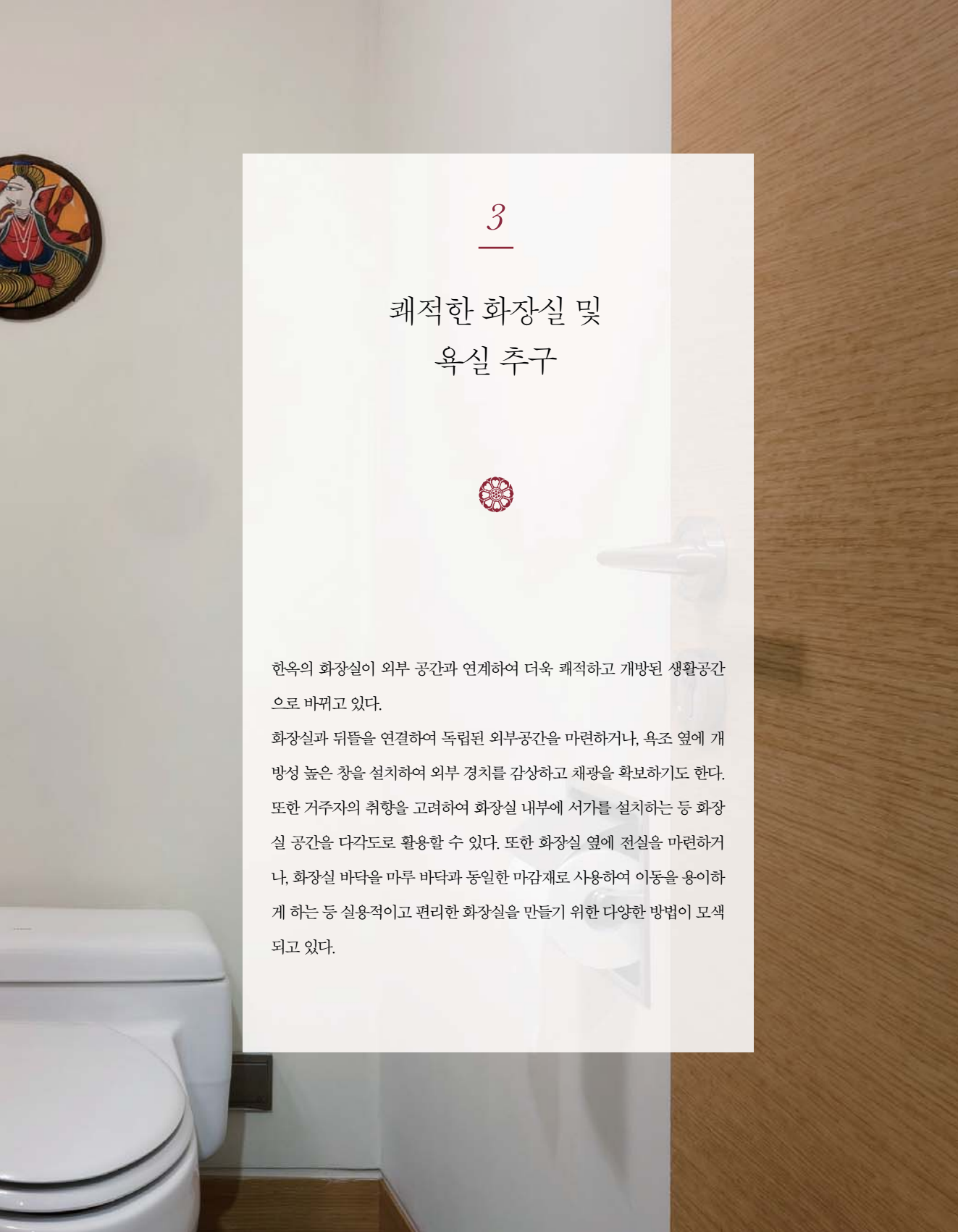
대부분 한옥의 경우 화장실이나 싱크대 바닥에 온수분배기를 설치하여 난방을 한다. 이 집은 화장실에 벽걸이 라디에이터를 설치하여 난방을 해결하고 수건 건조대 겸 수건걸이로도 활용하고 있다.

▶
리모델링 전 화장실 내부
(위)

리모델링 후 화장실 내부
© 박영채
(아래)

• 벽에 거는 라디에이터를 설치하여 화장실 난방을 보완하고 라디에이터는 수건걸이로도 활용함

© 박영채



3

쾌적한 화장실 및 욕실 추구

한옥의 화장실이 외부 공간과 연계하여 더욱 쾌적하고 개방된 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화장실과 뒤뜰을 연결하여 독립된 외부공간을 마련하거나, 욕조 옆에 개방성 높은 창을 설치하여 외부 경치를 감상하고 채광을 확보하기도 한다. 또한 거주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화장실 내부에 서가를 설치하는 등 화장실 공간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화장실 옆에 전실을 마련하거나, 화장실 바닥을 마루 바닥과 동일한 마감재로 사용하여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실용적이고 편리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건식공간과 습식공간 분리

03

❖ 건식공간(세면대, 변기)과 습식공간(욕조, 샤워부스) 분리

이 화장실은 현대의 대형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안방-드레스룸-화장실'이 연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규모는 1,600㎜×2,900㎜으로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변기와 세면대는 샤워실과 분리하여 건식으로 설치하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과 욕실은 대부분 습식형으로 바닥의 하수구를 통해 물이 흘러내려가는 배수시설을 갖췄다.

▶ 안방 화장실 전경
©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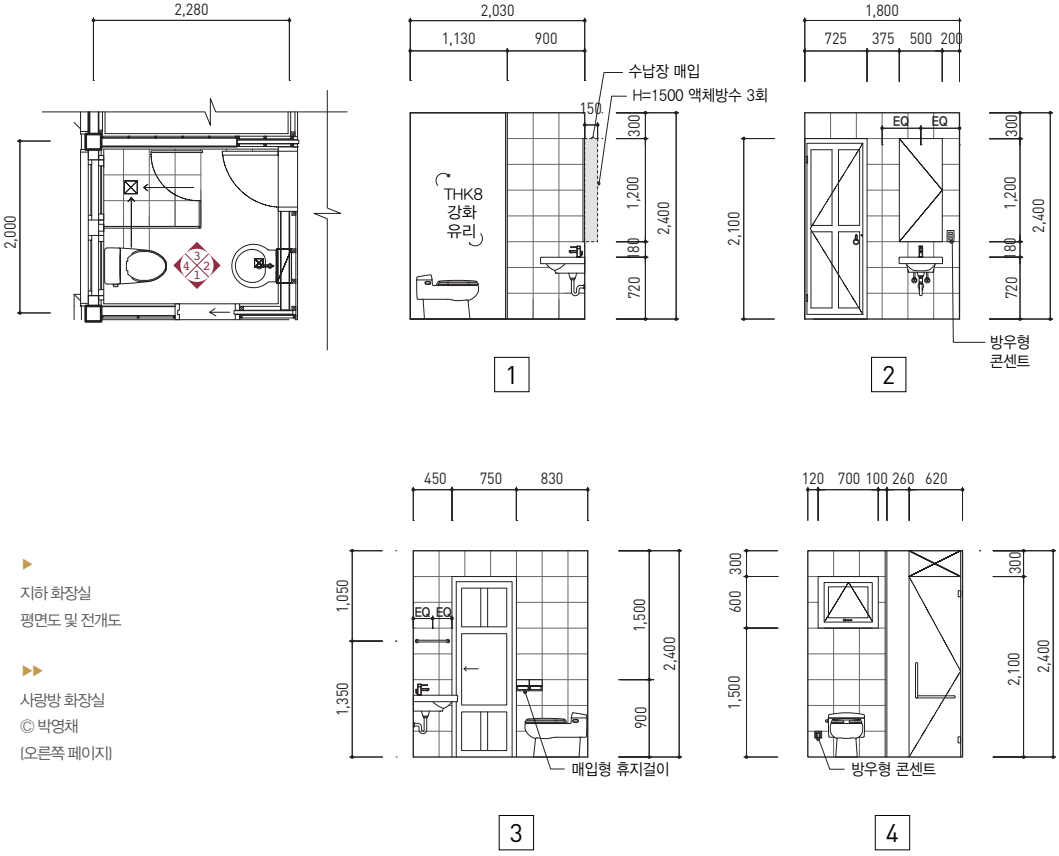
- 대형 아파트의 '안방-드레스룸-화장실' 구조
- 화장실 규모 : 안폭 1,600㎜×2,900㎜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설치)
- 생활 편의를 위해 건식과 습식 공간을 분리
- 샤워부스에서 뒤뜰로 출입가능

반면 건식형은 화장실과 욕실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한 방법으로 별도의 배수시설 없이 바닥에 카펫이나 러그를 깔고, 세면대나 욕조의 물이 바닥으로 튀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식 화장실은 습하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색다른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바닥이 말라있어 곰팡이 등의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적고, 물기로 미끄러질 염려가 줄어 아이나 노인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 화장실 바닥은 안방과 동일하게 우물마루를 깔았다. 습식 공간인 샤워부스는 돌바닥으로 인테리어 하여 자연스러움을 살리고 청소와 물빠짐이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샤워부스에서 뒤뜰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듦으로써 샤워 후에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느낄 수 있게 배려하였다.

게스트룸 옆에 위치한 화장실은 현관에서 들어와 사적영역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여 방문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다. 2,000㎜×2,280㎜ 규모에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식공간과 습식공간을 분리하였다. 변기와 세면대는 건식공간으로 복도와 같은 강화마루로 마감하였고, 샤워부스는 습식공간으로 방수공사 후 돌바닥으로 마감하였다.

- 화장실 규모:2,000㎜×2,280㎜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설치)
- 건식과 습식공간 분리



▶ 지하 화장실 평면도 및 전개도

▶▶ 사랑방 화장실 © 박영채 (오른쪽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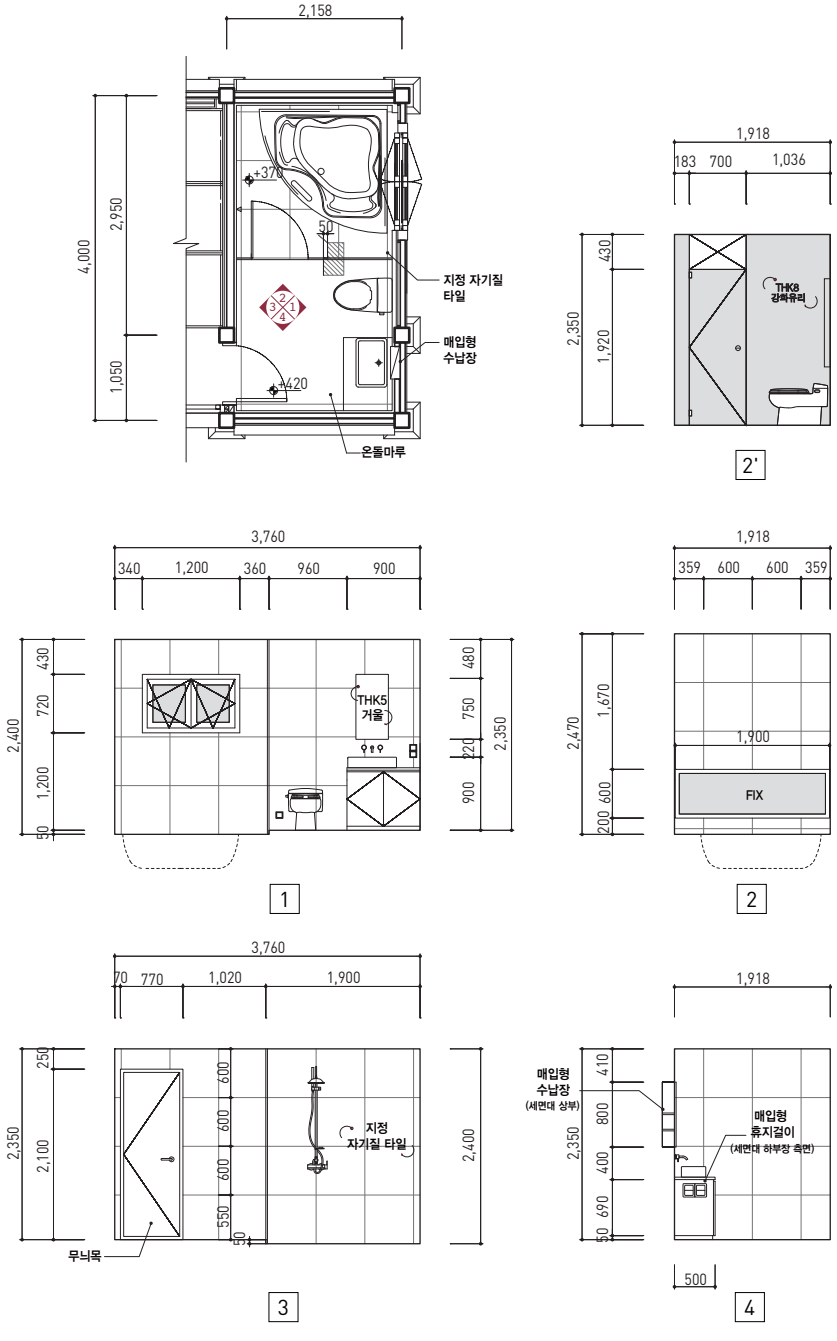
매립형욕조 도입

03

❖ 한옥의 바닥 높이를 조정하여 매립형욕조 도입

- 화장실 규모 : 안폭 1,918㎜×3,760㎜ (변기, 세면대, 욕조 설치)
- 바닥의 높이차를 이용해 매립형 나무욕조를 설치
- 환기창 크기 : 1,200㎜×760㎜

안방 내에 위치하는 화장실의 규모는 안폭 1,918㎜×3,760㎜으로 변기, 세면대, 바닥의 높이차를 이용한 매립형 나무욕조를 설치하였다. 전통한옥의 맛과 멋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바닥 아래 공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바닥욕조는 좌식문화에 익숙한 우리의 생활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입욕뿐만 아니라 발씻기 등 사용의 편리함이 돋보이는 사례이다. 경우에 따라 매립형 나무욕조 대신 전개도와 같은 원형의 타일욕조를 설치할 수 있다.



▶

안방 화장실
평면도 및 전개도
(원형 욕조를 설치한
초기계획)

◀◀

화장실 내부 사진
© 박영채
(왼쪽 페이지)

◀
리모델링 전
본채 화장실

▼
리모델링 후
본채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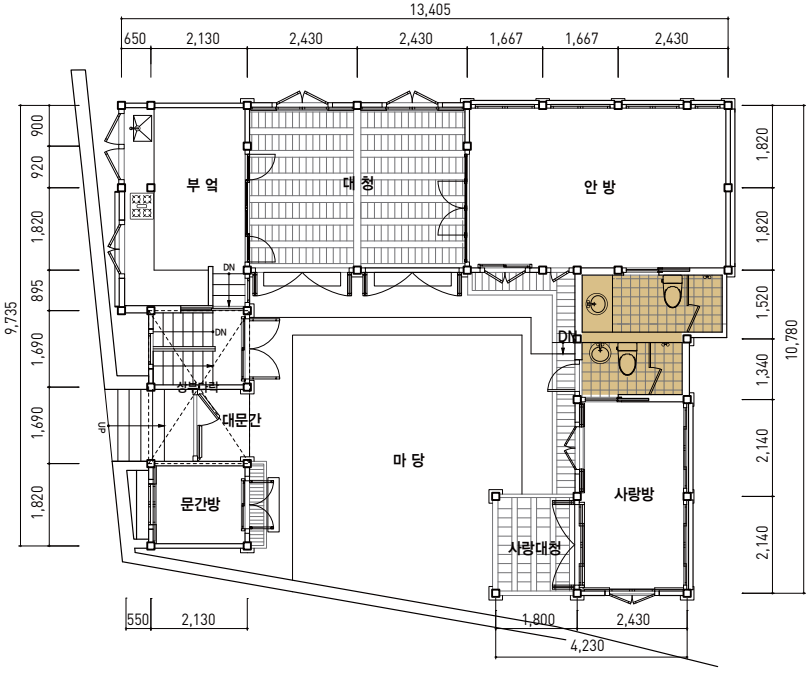
▲ 리모델링 후 본채 화장실

▶ 리모델링 전 본채 화장실

풍경의 도입

❖ 화장실과 뒤뜰을 연결

이 화장실은 뒤뜰을 연결해 외부공간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였다. 직접 밖으로 통할 수 있는 미닫이 시스템 창호(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였으며, 화장실 처마 밑 바닥에는 나무널을 깐 작은 마당을 마련하여 외부에 아늑한 개인공간을 만들었다. 한때는 뒷간으로 불리던 냄새나는 화장실이 현대에 이르러 별도의 마당까지 갖게 되었으니, 마당을 중심으로 향해있던 한옥의 전통적인 공간이 새롭게 다가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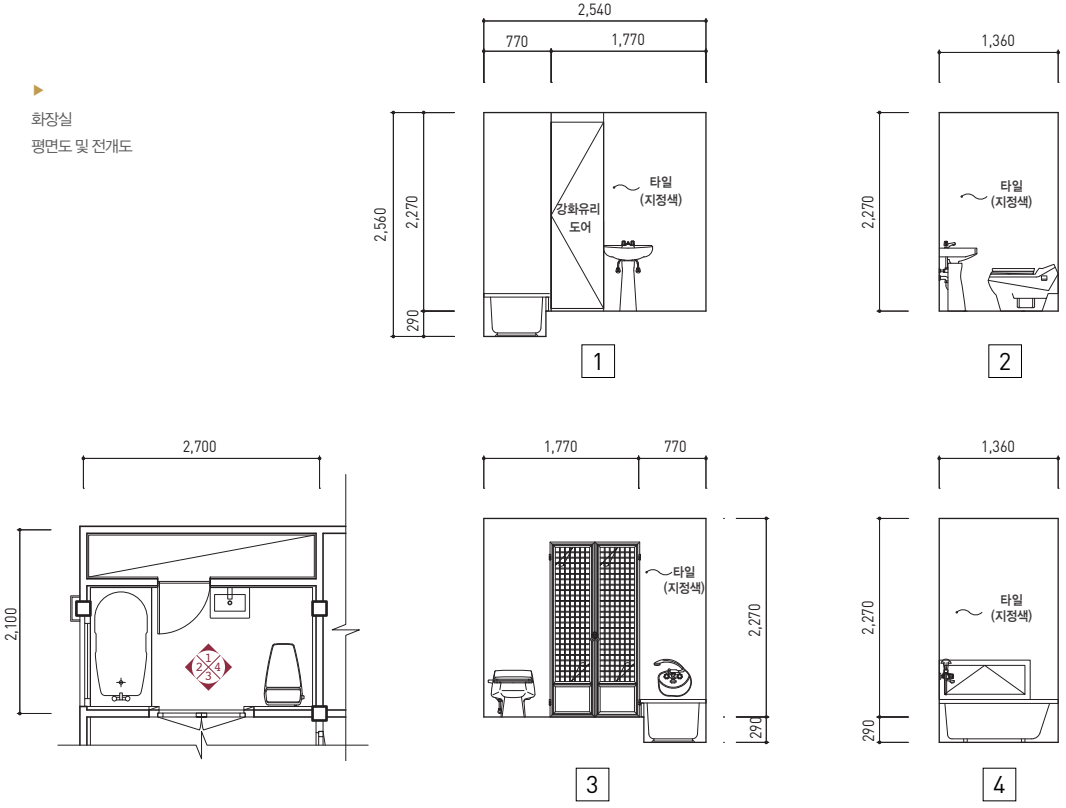
▶ 평면도

❖ 욕조 옆에 창 설치

안방에서 출입가능 한 2,700㎜×2,100㎜ 규모의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다른 화장실에 비해 안방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화장실에 세면기, 변기, 샤워기, 욕조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환기창을 설치하였다. 바닥욕조 옆에 큰 창을 통해 목욕을 하면서 외부 공간을 감상 할 수 있어서 한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정취를 느낄 수 있다.

- 화장실 규모 : 2,700㎜×2,100㎜ (변기, 세면대, 욕조 설치)
- 방에서 출입가능 한 화장실
- 환기창(시스템도어)을 통해 자연환기가 가능

▶ 화장실 평면도 및 전개도



▲
욕조 옆에 설치한 창

디자인요소 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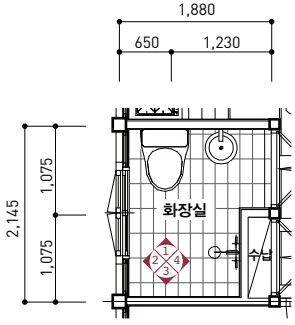
❖ 공간에 재미를 더하는 디자인 요소 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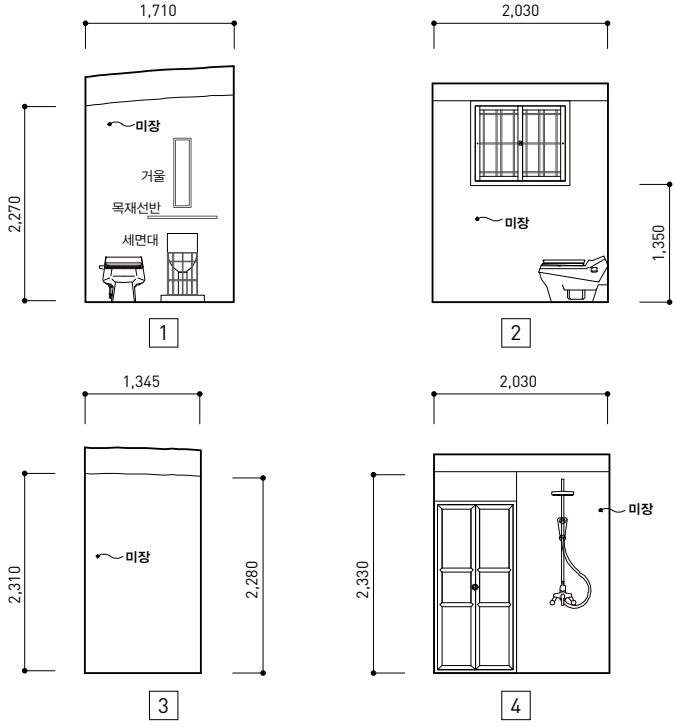
- 수납공간 : 365㎜×1,070㎜
- 화장실 크기 : 2,145㎜×1,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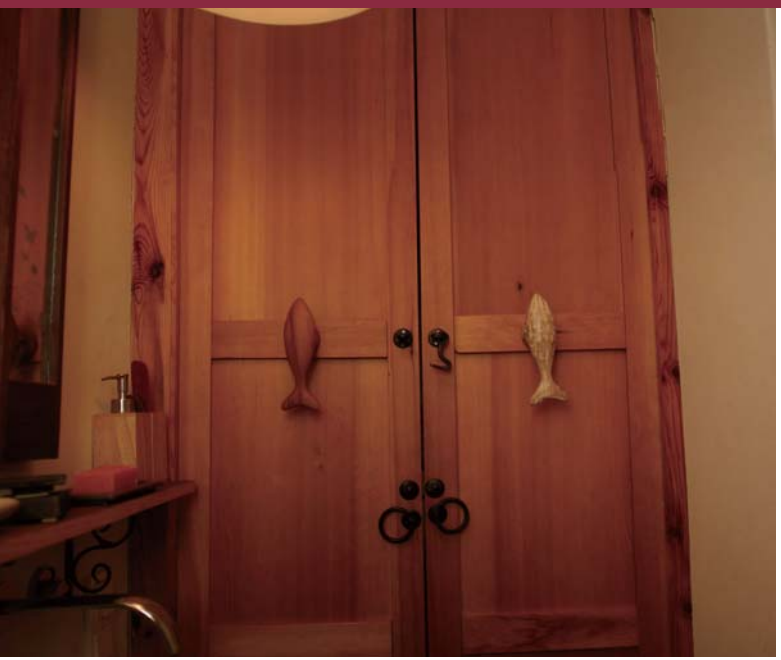
이 화장실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변기 옆 벽면에 서가를 설치하고, 도자기 모양의 세면대와 물고기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문, 나무판자로 설치한 심플한 선반, 나무기둥 모양의 화장지 거치대 등 화장실 곳곳에 흥미롭고 편안한 디자인 요소를 겸비하여 공간에 재미를 더하였다. 화장실이 실용적인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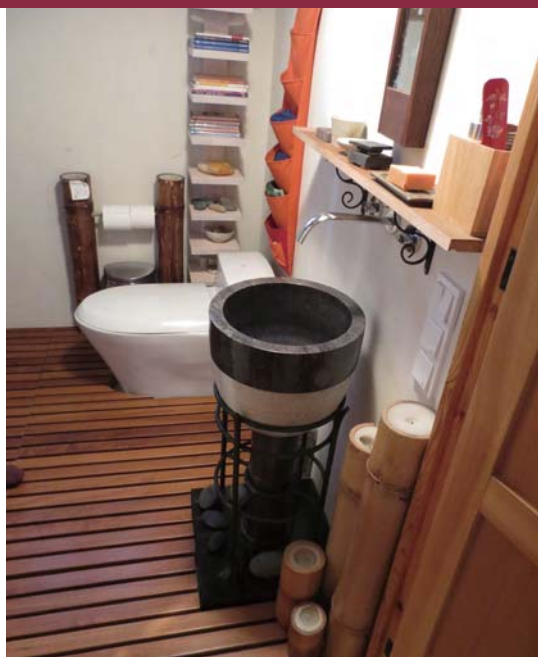
▶
화장실
평면도 및 전개도

▶▶
화장실 내부공간
(오른쪽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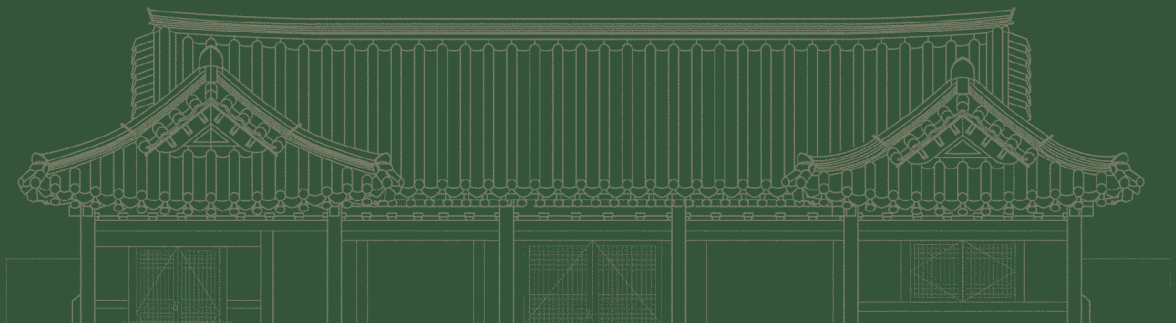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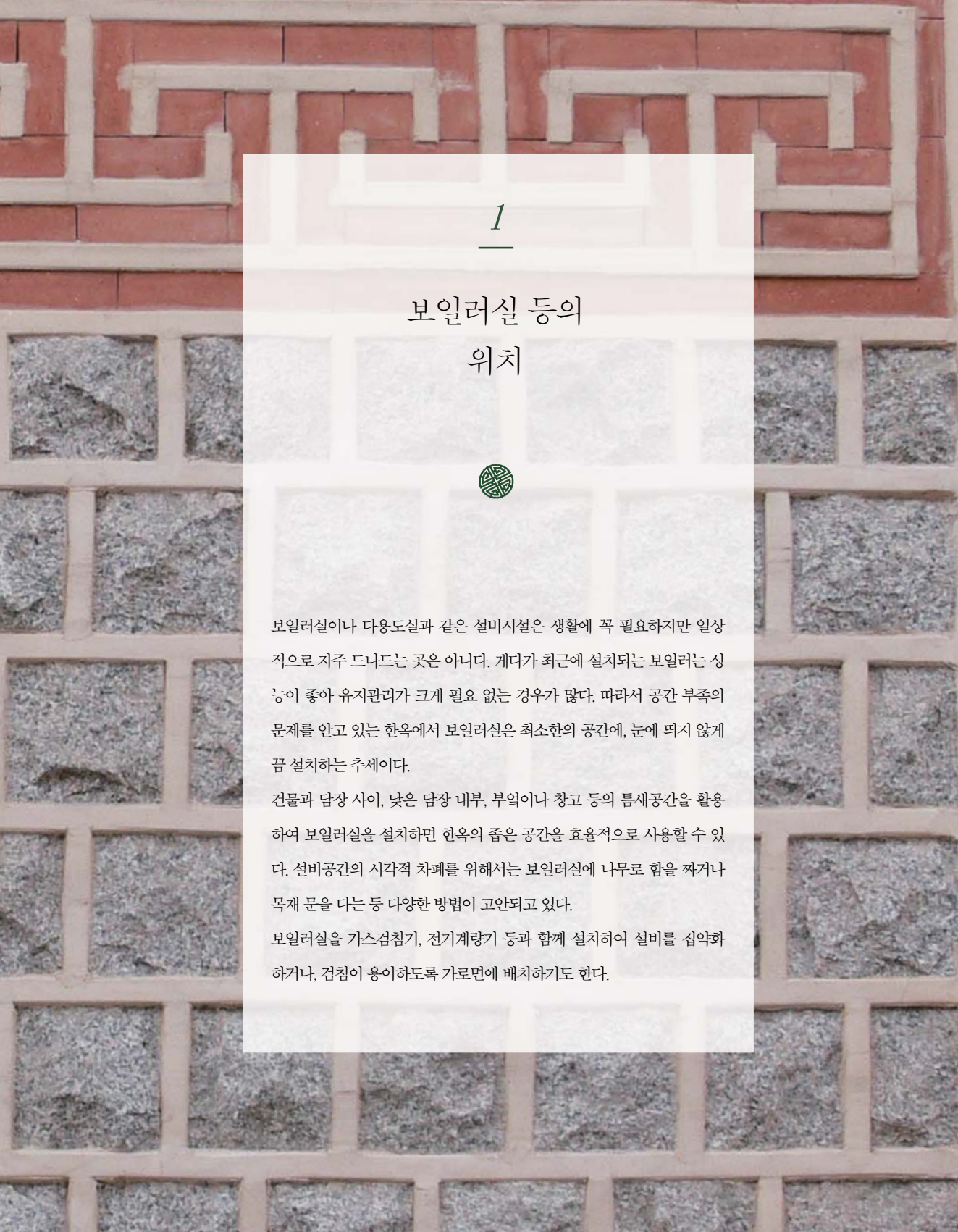




보일러실과 자투리 공간

- 보일러실 등의 위치
- 자투리 공간의 활용
- 전기 및 배관





1

보일러실 등의 위치

보일러실이나 다용도실과 같은 설비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드나드는 곳은 아니다. 게다가 최근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성능이 좋아 유지관리가 크게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간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옥에서 보일러실은 최소한의 공간에, 눈에 띄지 않게끔 설치하는 추세이다.

건물과 담장 사이, 낮은 담장 내부, 부엌이나 창고 등의 틈새공간을 활용하여 보일러실을 설치하면 한옥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설비공간의 시각적 차폐를 위해서는 보일러실에 나무로 함을 짜거나 목재 문을 다는 등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보일러실을 가스검침기, 전기계량기 등과 함께 설치하여 설비를 집약화하거나, 검침이 용이하도록 가로면에 배치하기도 한다.

자투리 공간에 설치

01

◈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보일러실 설치

틈새공간을 활용한 보일러실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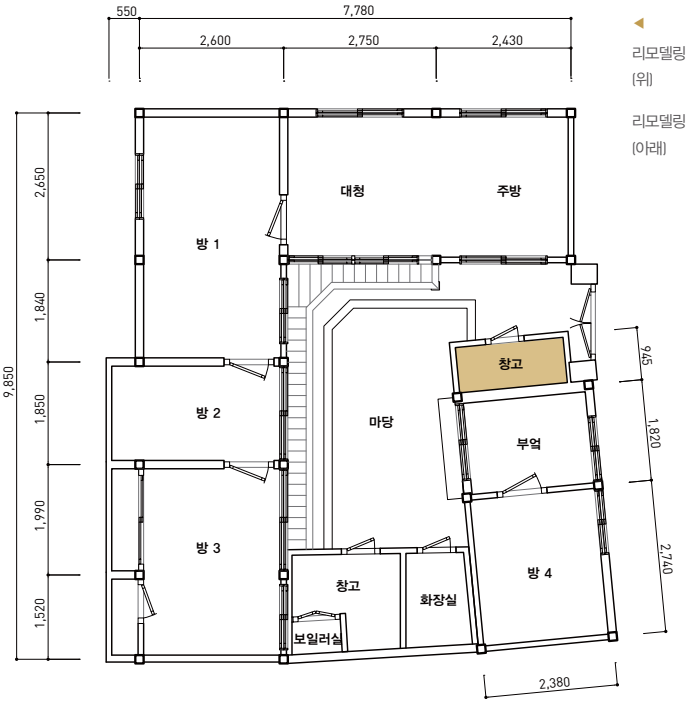
대문 옆 창고 안에 있던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대문과 별채 사이 틈새공간을 증축하여 보일러실을 설치하였다. 틈새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한옥의 공간적 유연성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보일러실의 크기는 1,130㎜×5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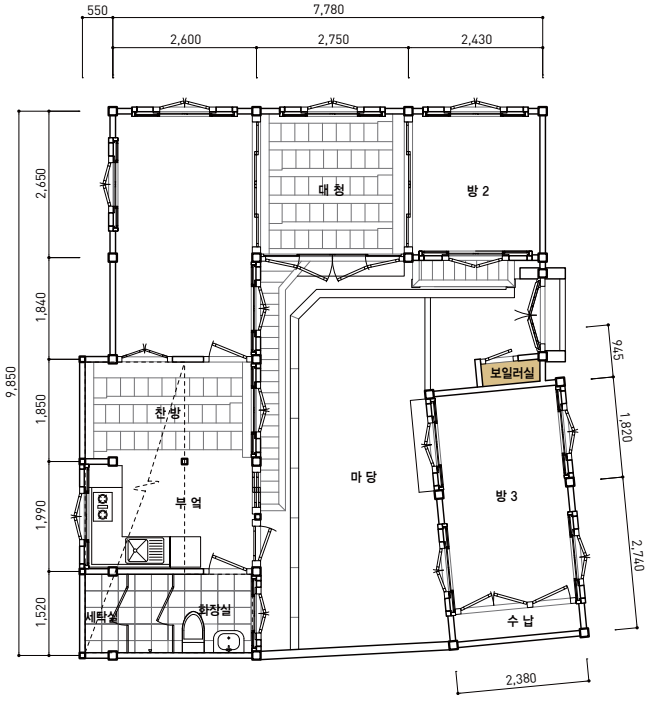
- 보일러실 크기 : 1,130㎜×500㎜

▶ 보일러실이 설치된 창고 (리모델링 전)

▶▶ 진입로 확보위해 증축부 철거 후 대문 왼편에 보일러실 설치 (리모델링 후 / 오른쪽 페이지)

● 보일러실의 위치





리모델링 전 평면도 (위)

리모델링 후 평면도 (아래)

담장처마 아래에 설치

변경 전 외부 화장실 안에 있던 보일러를 철거하고 대문 옆 낮은 담장 처마 아래에 보일러실을 새로 설치하였다. 담장을 활용해 작은 한옥의 공간구성을 효율적으로 하였으며, 목재 대문과 담장 벽면에 설치된 목재문, 그리고 대문 지붕과 담장 지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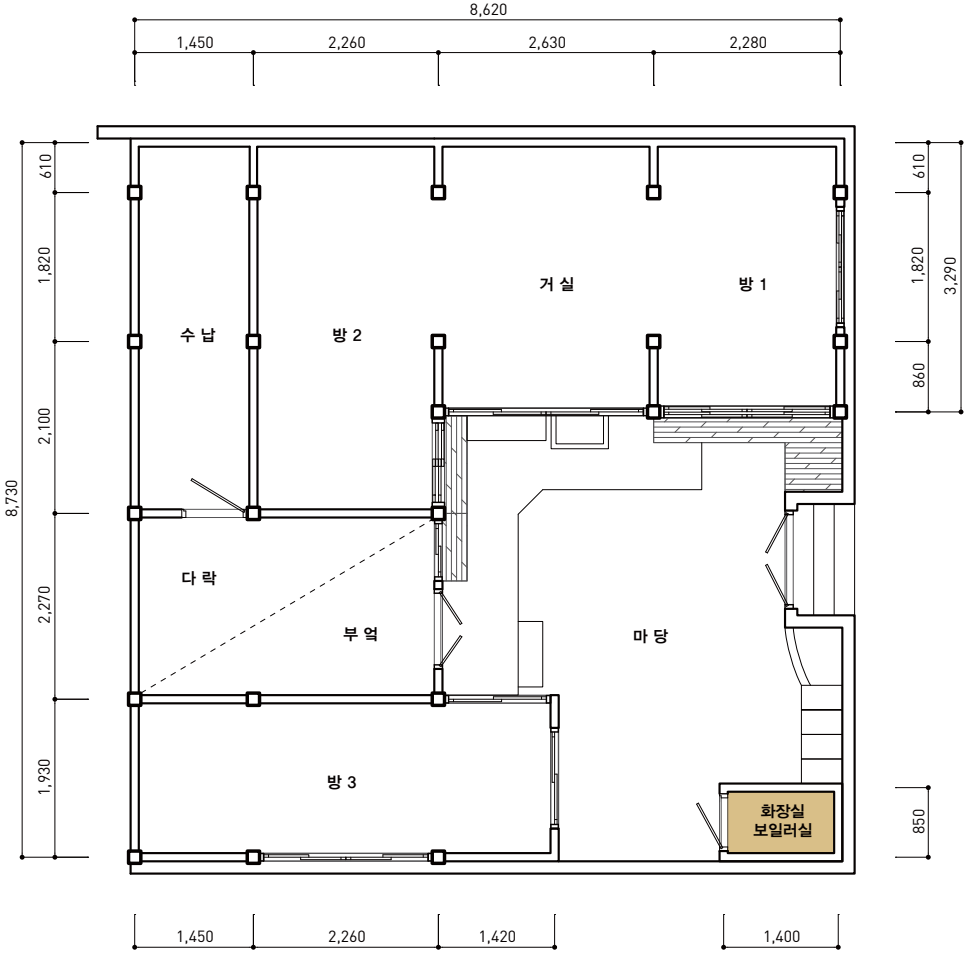
▼
리모델링 전
보일러실 전경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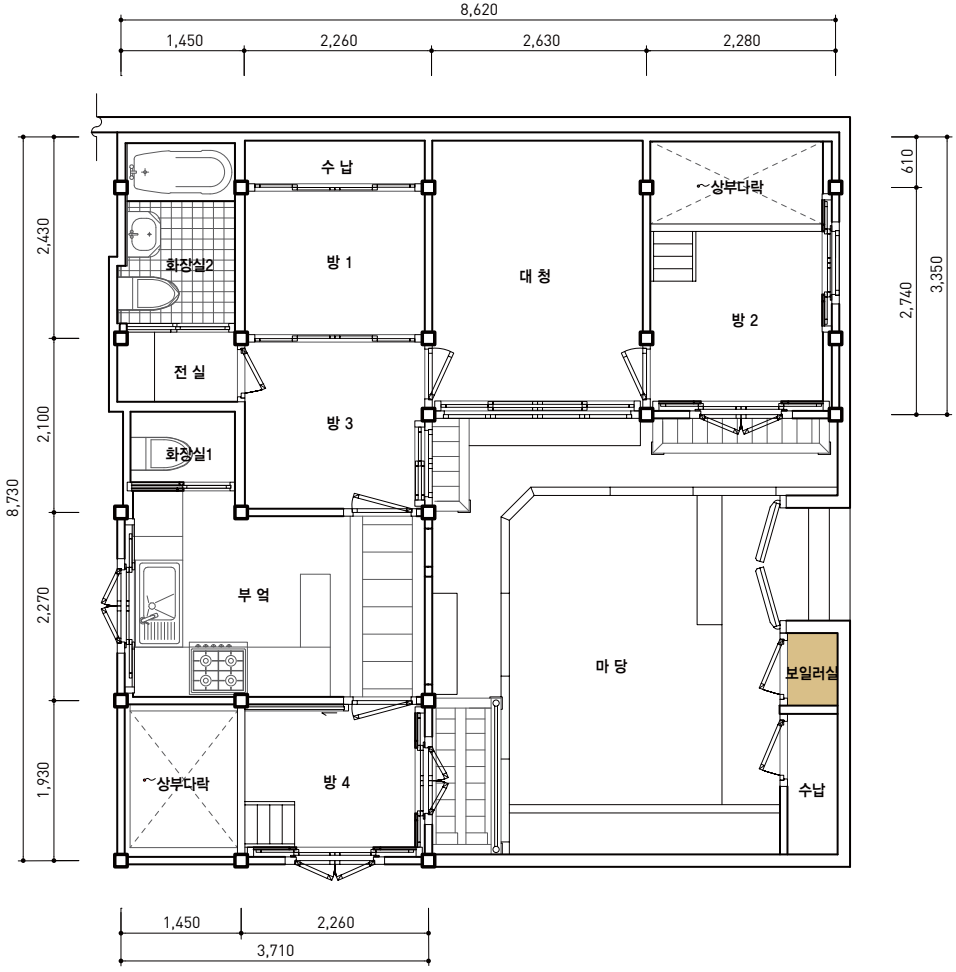
리모델링 후
보일러실 전경 (아래)

- 보일러실의 규모 :
  695㎜×1,000㎜
- 대문 옆 낮은 담장 처마아래
  보일러실 설치 :
  1m이하의 건축물

▶▶
리모델링 후 평면도
(오른쪽 페이지)

▼
리모델링 전 평면도




8,620
1,450
2,260
2,630
2,280
610
2,740
3,350
2,430
2,100
2,270
1,930
8,730
수 납
~상부다락
화장실2
방 1
대 청
방 2
전 실
방 3
화장실1
부 엌
마 당
보일러실
수납
~상부다락
방 4
1,450
2,260
3,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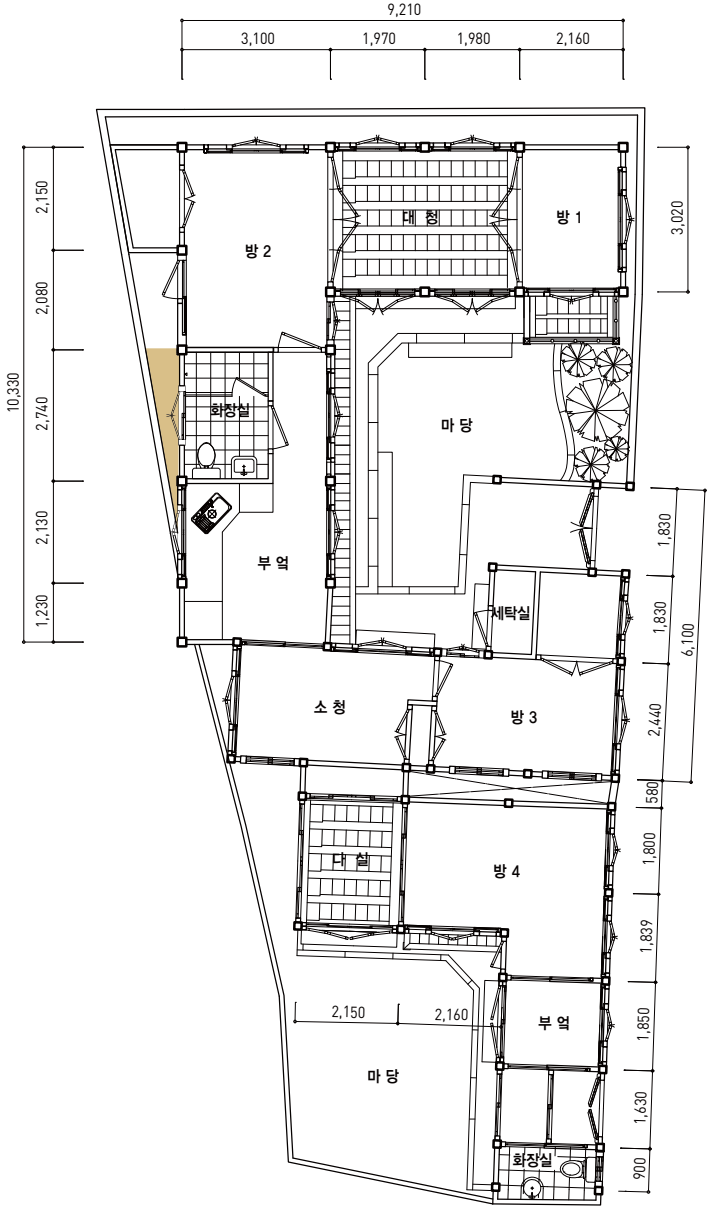
● 보일러실의 위치

화장실 뒤 담장사이 공간을 증축하여 보일러실 설치

건물과 담장사이 자투리 공간을 증축하여 보일러실을 설치하였다. 이 집의 특징은 마당을 제외한 외부공간 곳곳에 수납공간을 마련한 것인데,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
평면도

▶▶
담장사이 보일러실
(오른쪽페이지)



● 보일러실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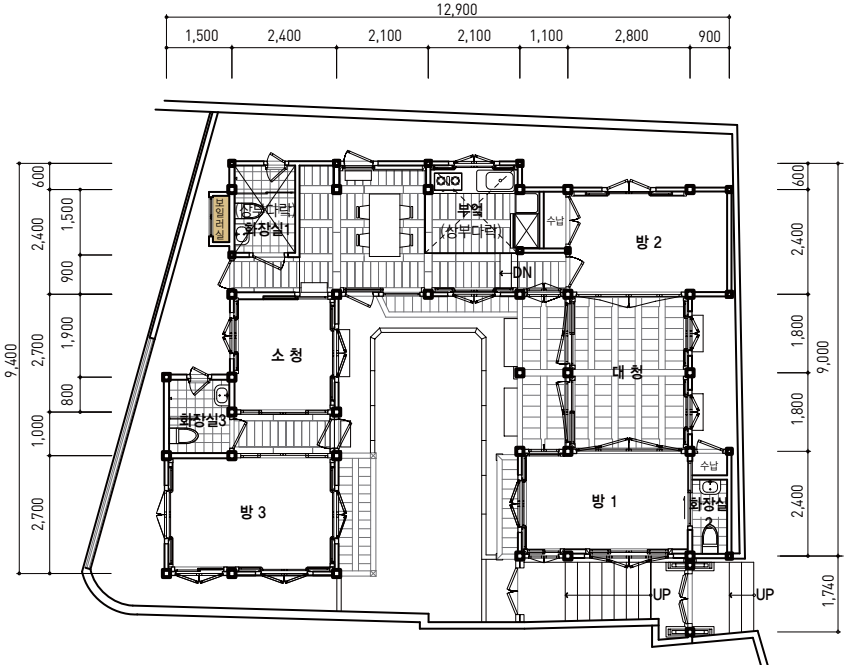
시각적 차폐

◈ 시각적 차폐를 고려한 보일러실 설치

화장실 뒤 보일러실 증축

이 사례는 화장실 뒤편으로 585㎜×1,240㎜크기의 보일러실을 증축하였다. 보일러실에 목재 문을 달고 널판을 둘러 설비시설을 시각적으로 차단했다.

• 화장실1 뒤편에 증축 : 585㎜×1,240㎜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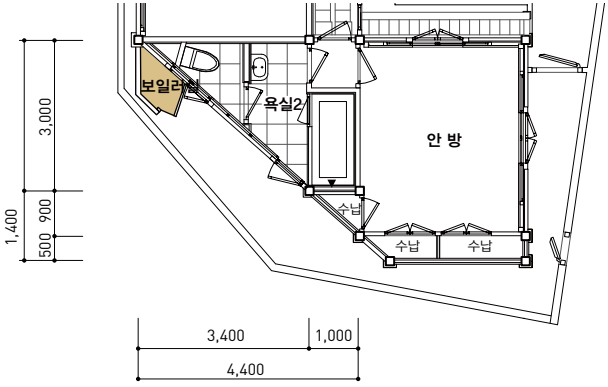
▶▶ 증축한 보일러실 전경 (오른쪽 페이지)

LG

벽과 담장 사이에 보일러실 설치

기존에 보일러실 설치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부엌 내부에 보일러가 위치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화장실 뒷벽과 담장 사이 공간에 실을 증축하여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지붕 상부는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하였으며 추후에 외부 도장을 하였다.

- 보일러실 크기 : 1,080mm×740mm(0.56㎡)



▲ 보일러실 위치

▶ 리모델링 전 보일러실 위치

▶▶ 리모델링 후 보일러실 전경 (오른쪽 페이지)

● 보일러실의 위치

가로면에 배치

01

◈ 검침이 용이하도록 가로면에 보일러실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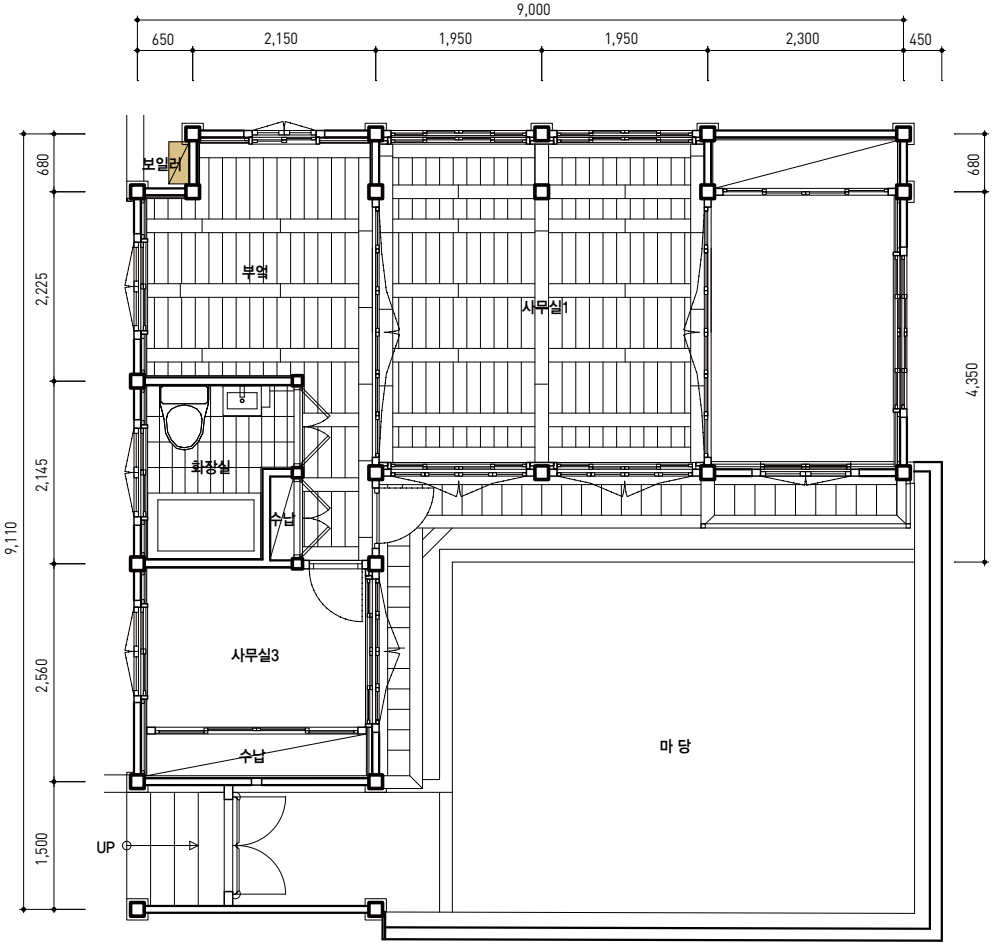
- 부엌 뒤 도로와 맞닿는 곳에 보일러실 설치
- 보일러실 크기 : 650㎜×680㎜

▶ 보일러실 전경

▶▶ 평면도 (오른쪽 페이지)

가로면에 보일러실 설치

최근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성능이 좋아 유지관리가 크게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일러실을 최소한의 공간에 최소한의 동선을 갖도록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일러실에 가스검침기, 전기계량기를 함께 설치하고 도로면에 배치할 경우 검침원이 집 내부에 들어서지 외부에서 쉽게 외부에서 검침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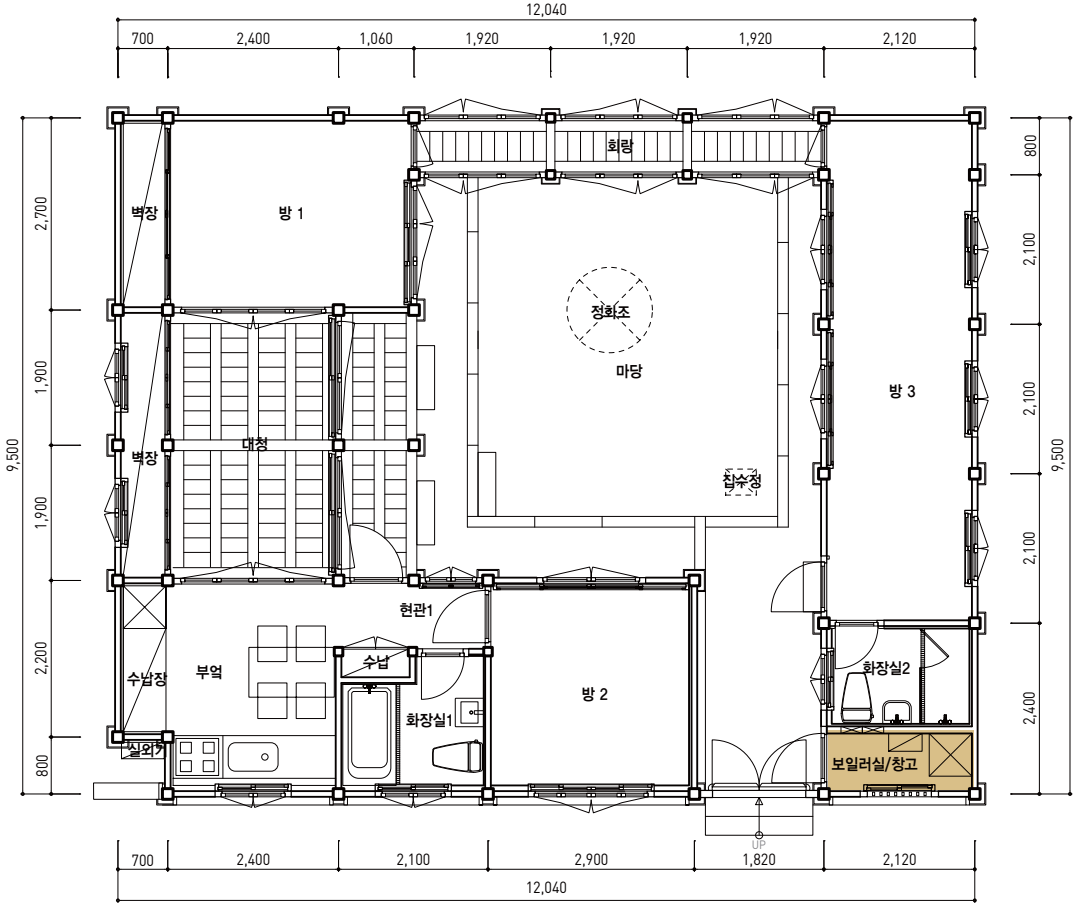


● 보일러실의 위치

대문 옆 가로면에 보일러실 설치(사례 1)

보일러실의 경우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한옥 배면부에 설치하거나 가로면에 면한 축대 등에 공간을 만들어 설치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 기존 대문간에 있던 보일러를 철거하고 대문옆 가로면에 보일러실을 설치하였다.

• 대문옆에 보일러실 설치



◀◀
평면도
(왼쪽 페이지)

▶
대문 옆
보일러실

● 보일러실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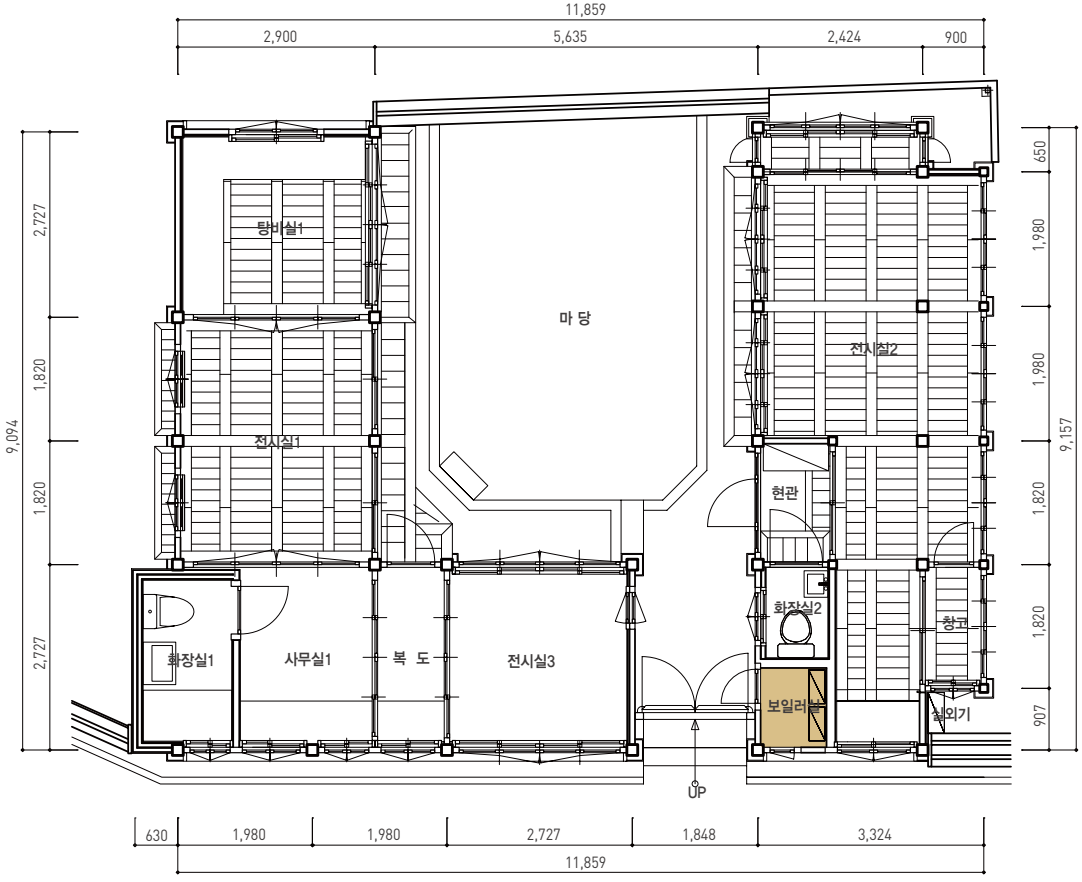
대문 옆 가로면에 보일러실 설치(사례 2)

리모델링 전 방 뒤에 있던 보일러실을 철거하여 전시실로 편입하고 별채 화장실 뒤편에 보일러실을 설치하였다. 보일러실의 크기는 1,100㎜×1,277㎜이며, 대문이 있는 가로에 면해있다. 에어컨 실외기는 담장 뒤에 배치하였으며, 수도계량기는 외부에 설치하여 집주인이 부재할 때도 검침원이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일러실 크기 : 1,100㎜×1,277㎜

◀◀
가로면에 위치한
보일러실
(왼쪽 페이지)

▼
평면도



2

자투리 공간의 활용

현대화된 생활에서 주택 내 다양한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별도의 수납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평면적 확장이 제한된 주택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한옥의 층고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층고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수직적인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진다. 다락은 한옥의 높은 층고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다용도 공간으로서 수납공간, 약식 침실, 놀이방, 서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한 마당의 데크, 지하창고 및 방공호, 뒷마당 등 한옥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다용도 공간을 개발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부분 다락의 활용

◈ 생활 공간으로서 열린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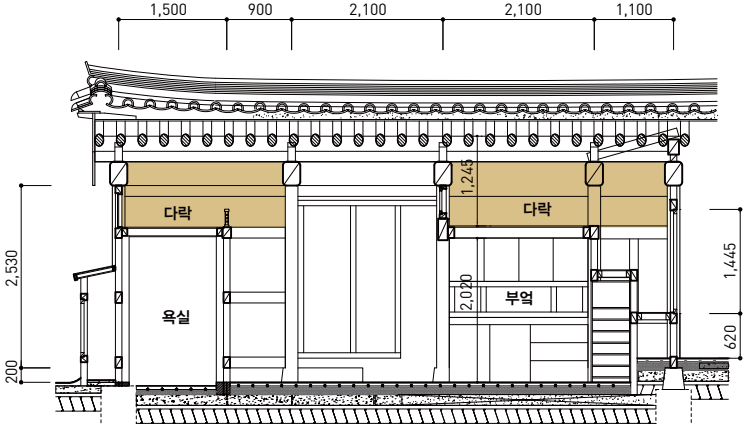
• 부엌층고 : 3,060㎜

다실로 조성한 다락

이 부엌은 바닥의 높이를 낮춰 3,060㎜층고를 확보하였고 이러한 상부공간의 여유를 활용하여 부엌 및 식당, 욕실1의 상부에 2,100㎜×2,000㎜, 1,500㎜×1,900㎜ 크기의 다락을 만들어 넓은 수납공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화장실 상부다락은 차를 마시면서 바깥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다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수납공간 및 다실로 조성한 다락 (오른쪽 페이지)

▸ 횡단면도



수납공간의 크기

구분	변경후	
다락크기	부엌 상부	2,100㎜×2,000㎜
	욕실 상부	1,500㎜×1,900㎜
다락높이	670㎜	
수납장 크기	1,30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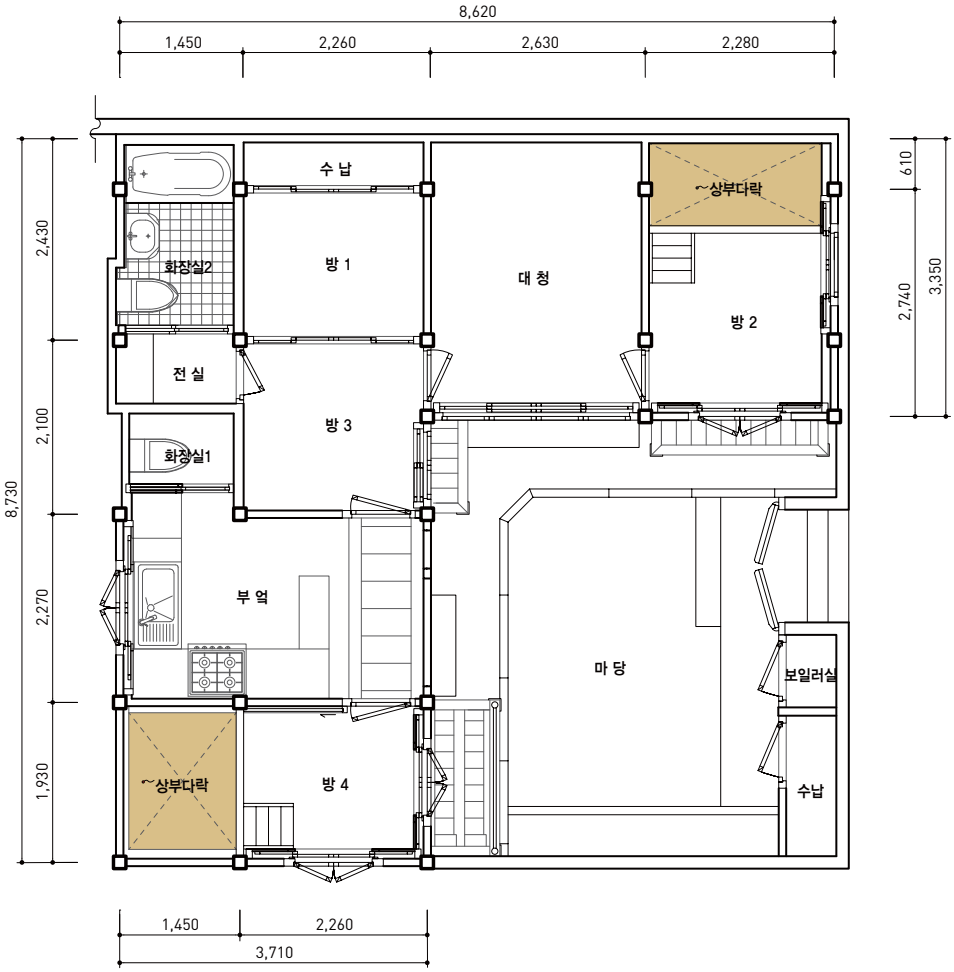
◈ 침실다락

- 리모델링 후 3칸의 계단으로 연결된 중간다락을 만들어 아이들이 침실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과거의 다락은 대부분 수납공간으로 사용되었던 반면에 현대의 다락은 좁은 면적의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사례는 리모델링 전에는 부엌 상부의 다락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2와 방4에 계단으로 연결된 상부다락을 만들어 아이들의 침실로 사용된다.

▼ 평면도

▶▶ 생활공간으로 조성한 다락 [오른쪽 페이지]



기타 자투리 공간의 활용

02

◈ 마당데크

마당에 설치된 데크를 통해 신발을 신지 않고도 방에서 방으로, 방에서 부엌으로, 방에서 대청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당의 데크가 실내동선을 연결하는 기능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바닥의 높이 차를 이용하여 데크 아래 수납공간을 마련하였다. 데크 아래 공간은 잡동사니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
데크아래 설치된 수납공간

◈ 다용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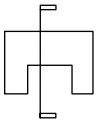
- 다용도실의 크기 : 2,450㎜2,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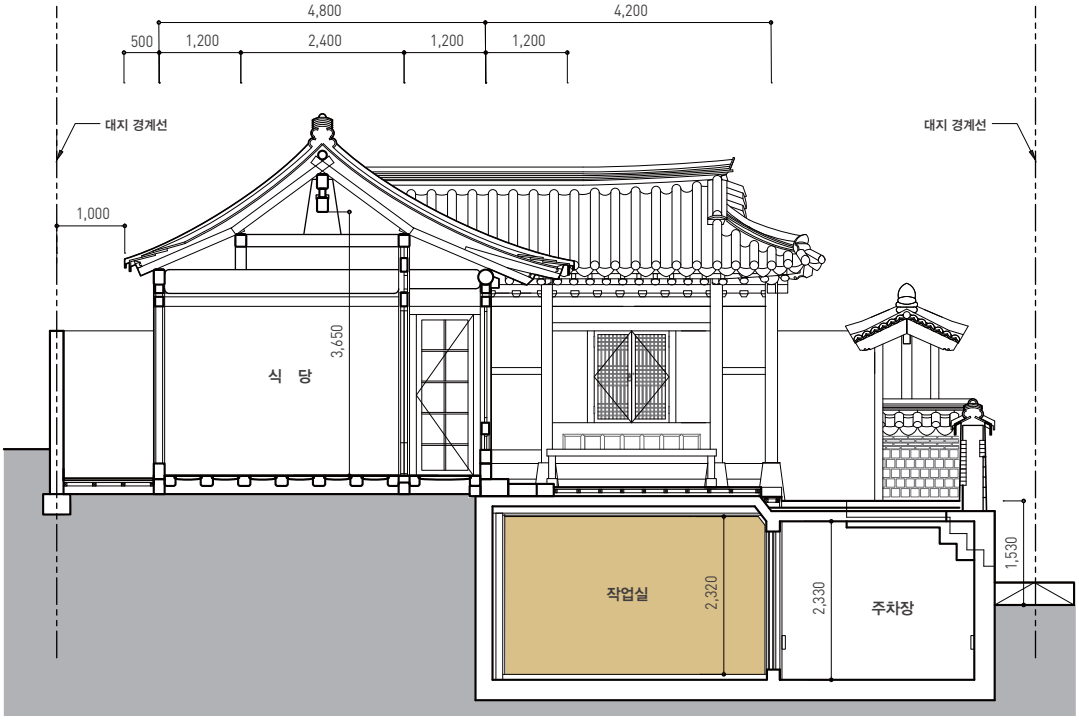
지하에 2,450㎜×2,800㎜ 규모의 다용도실을 설치하였다. 다용도실 내부에 옷장과 전신거울을 설치하여 드레스룸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세탁기와 수납장을 설치하여 다용도실로 이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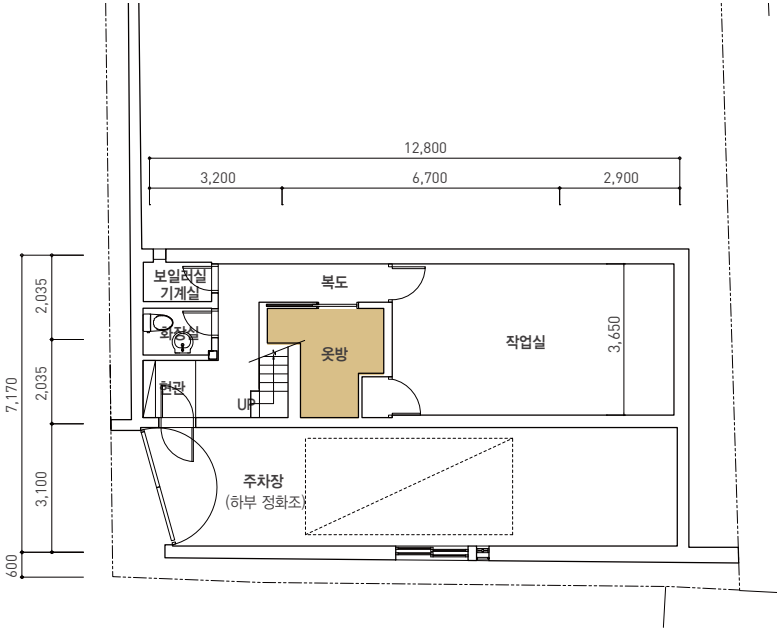
▶ 다용도실의 활용 (오른쪽 위,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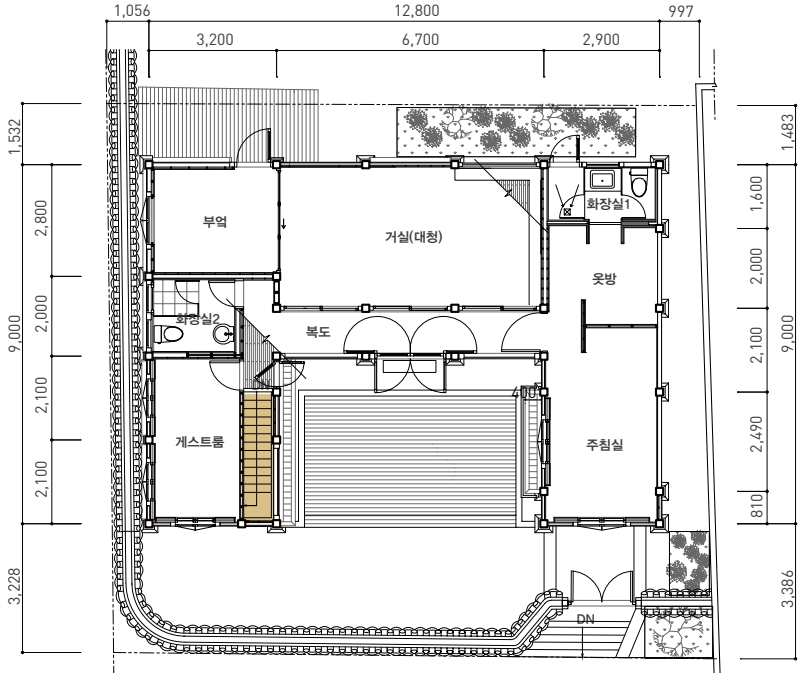
▼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 박영채 (왼쪽)

▼
종단면도




4,800
4,200
500
1,200
2,400
1,200
1,200
대지 경계선
대지 경계선
1,000
3,650
식 당
작업실
2,320
2,330
주차장
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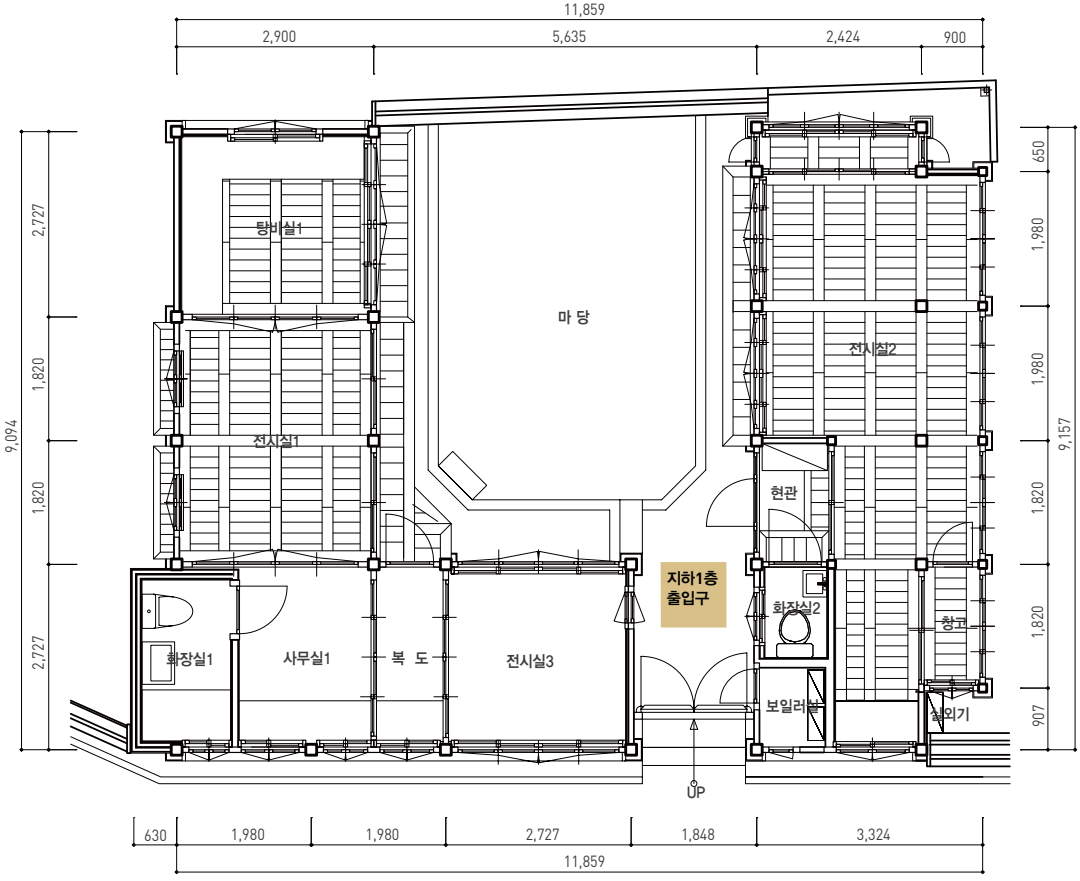
▶
지하 평면도
(위)

1층 평면도
(아래)

◈ 지하 방공호의 활용

근대시기에 건축된 한옥에는 지하 방공호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 전쟁시 방공호로 활용하고 평상시 연탄광 기능을 하던 곳이다. 이 집은 대문과 전시실3 아래에 지하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건축주는 지하 방공호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등 수납공간으로 사용한다.

- 현재는 지하 방공호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수납공간으로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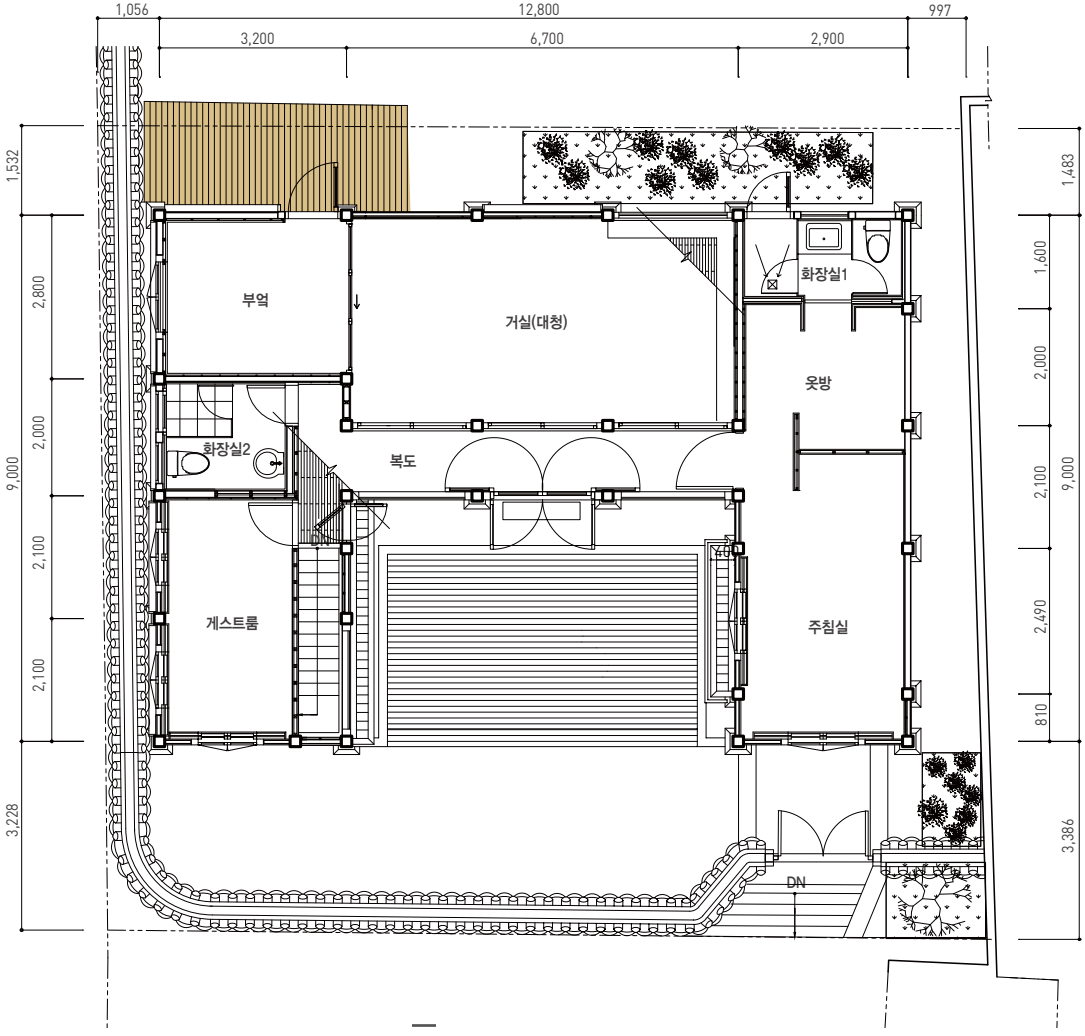
◀
평면도
(왼쪽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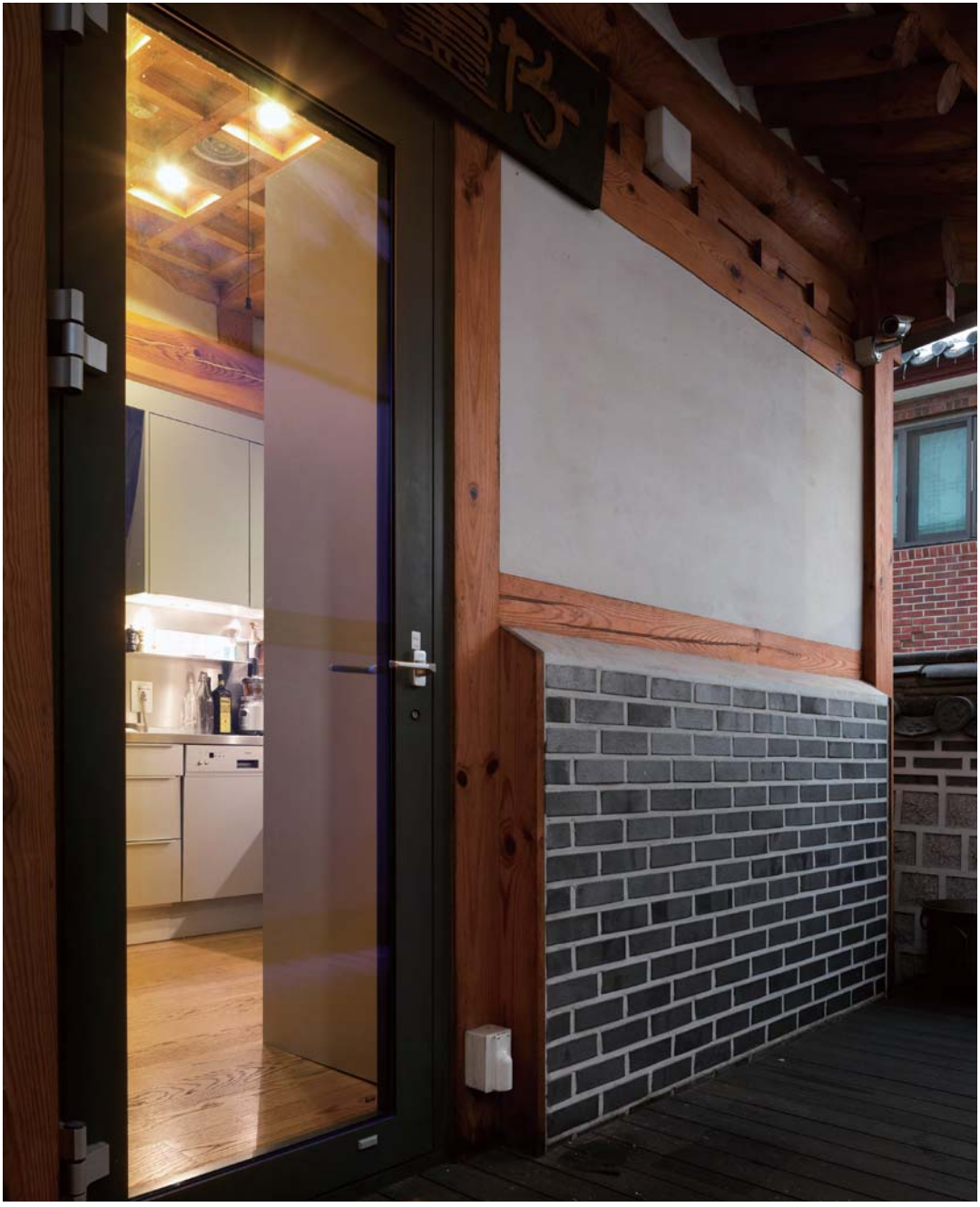
▼
대문앞 방공호로
내려가는 문

외부 데크 설치

- 건물 배면에 데크를 설치하여 부엌과 연계
- 부엌뒤 외부공간을 마련하여 저장 및 수납이 가능한 여유공간 확보
- 부엌 뒤 데크의 크기 : 4,500㎜×1,800 ㎜

이 집은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건물 배면에 뒤뜰을 설치하였다. 뒤뜰 한쪽에 4,500㎜×1,800㎜ 크기의 데크를 설치하여 부엌과 연결하고 다용도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은 음식의 저장 및 가재도구를 수납, 세탁기 설치 등을 하거나 그 외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살림의 편의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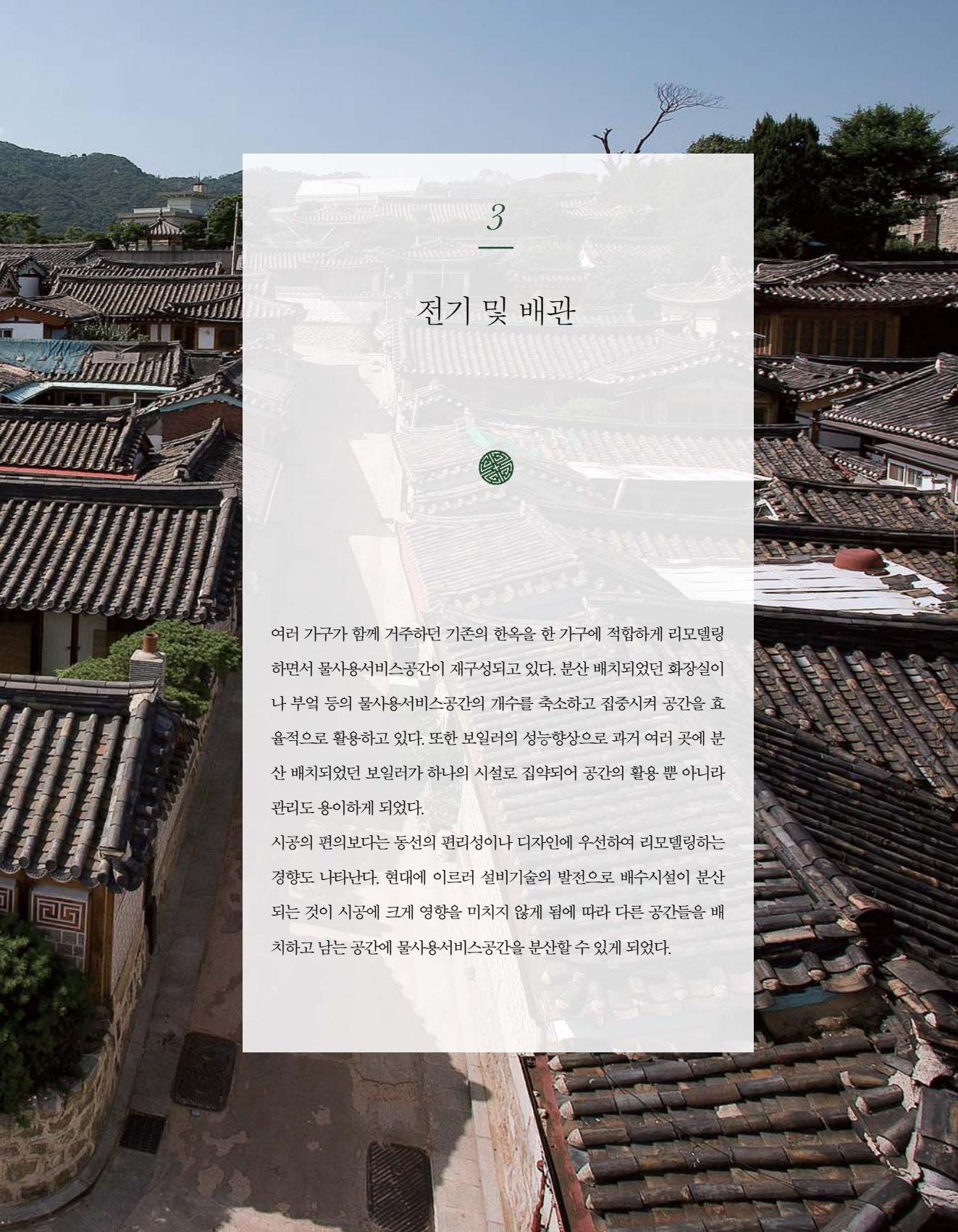




◀ 평면도 (왼쪽페이지)

▲ 외부 데크 설치 모습 ©박영채

© 박영채



3

전기 및 배관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던 기존의 한옥을 한 가구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면서 물사용서비스공간이 재구성되고 있다. 분산 배치되었던 화장실이나 부엌 등의 물사용서비스공간의 개수를 축소하고 집중시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의 성능향상으로 과거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었던 보일러가 하나의 시설로 집약되어 공간의 활용 뿐 아니라 관리도 용이하게 되었다.

시공의 편의보다는 동선의 편리성이나 디자인에 우선하여 리모델링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현대에 이르러 설비기술의 발전으로 배수시설이 분산되는 것이 시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에 따라 다른 공간들을 배치하고 남는 공간에 물사용서비스공간을 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용이한 관리를 위한 설비의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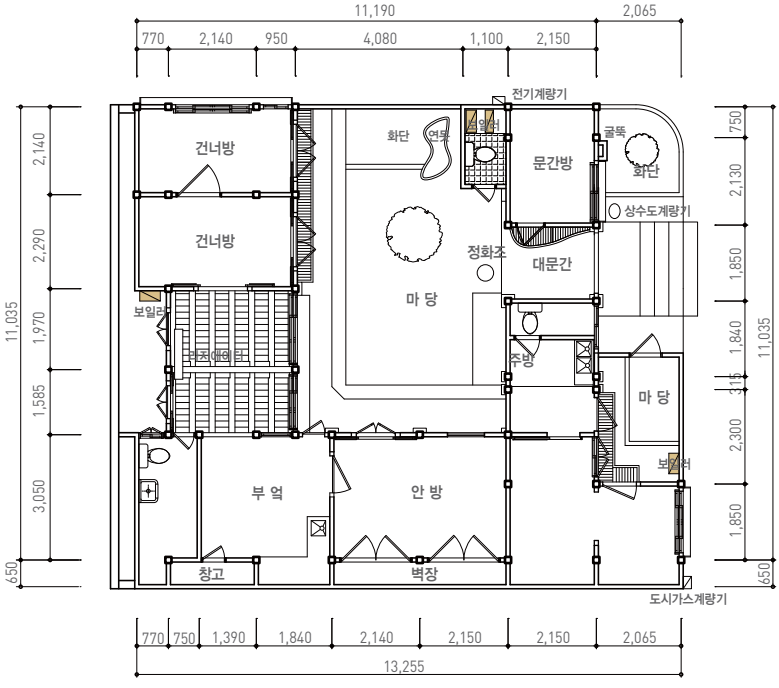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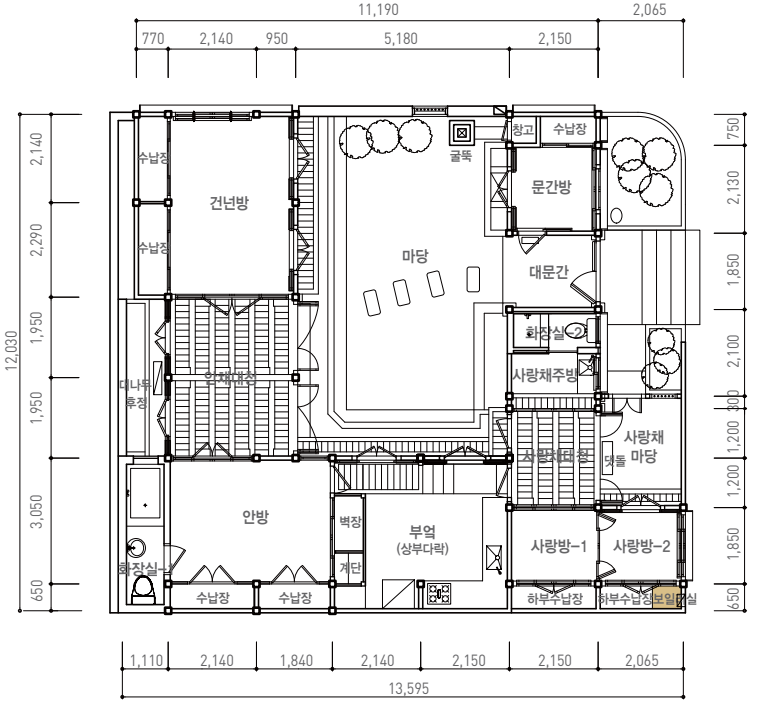
◈ 분산 배치되었던 보일러를 하나의 시설로 집약화

분산된 보일러실의 집약화

보일러의 성능향상으로 과거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었던 보일러가 하나의 시설로 집약화되었다. 변경 전 건넌방, 사랑채 마당과 문간방 옆에 존재하던 3개의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사랑방 처마아래 공간을 확장하여 하부수납장을 설치하고 그 일부에 보일러실을 마련하였다. 보일러실의 크기는 안폭 550㎜×700㎜이며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도 설치되어 있다. 수도계량기는 검침이 용이하도록 대문간 가까이에 설치하였다.

- 처마아래 확장된 공간에 보일러실 설치
- 외부에서 점검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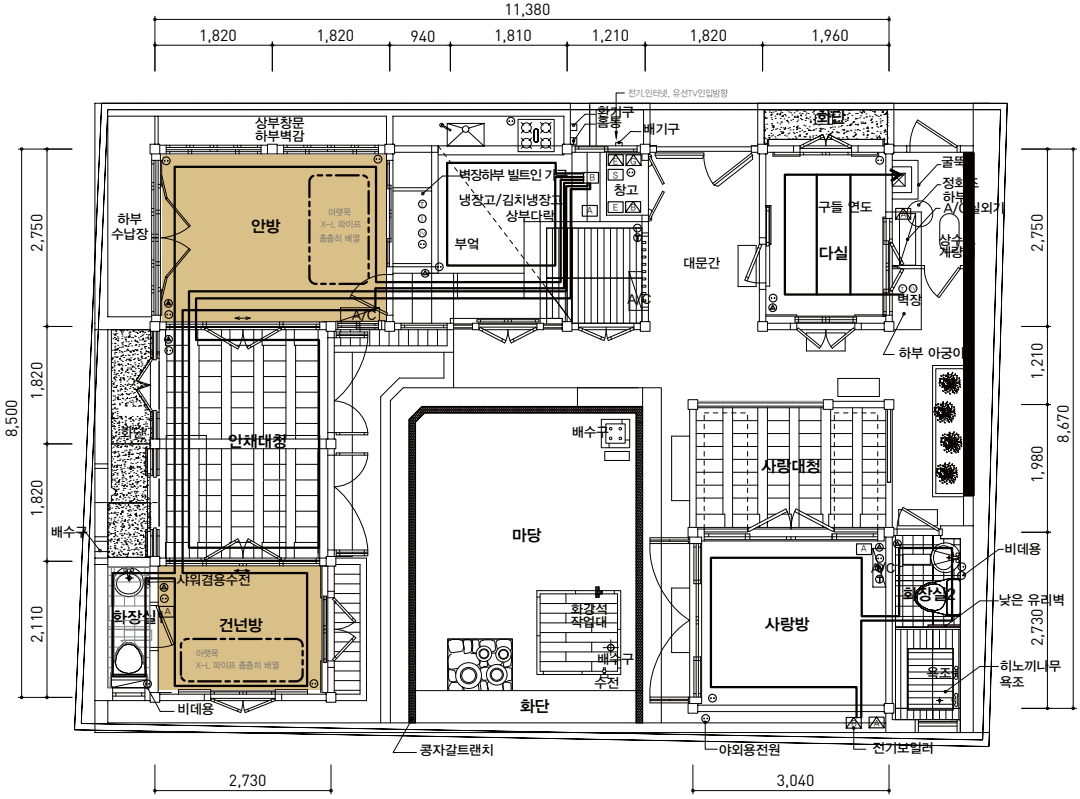
◀◀
옥외 보일러실 전경
(왼쪽 페이지)

▶
리모델링 전·후 평면도

◈ 난방배관

안채의 경우-안방-건넌방-화장실1, 안채대청, 부엌 등 크게 공간으로 나누어 난방배관하였고, 안방과 건넌방 한쪽 바닥에는 X-L파이프를 촘촘히 배열하여 한옥의 아랫목을 재현하였다. 사랑채의 경우 사랑방-화장실2로 이어지는 난방배관을 하였다. 난방배관을 화장실 바닥까지 확장하여 냉기로 인한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을 보완하였다. 또한, 대문간 옆에 위치한 다실 하부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구들로 난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일러는 안채와 사랑채 각각 1개소씩 설치되었고, 안채 부엌 내부 벽장과 작업대 사이 공간을 활용하여 보일러실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난방 배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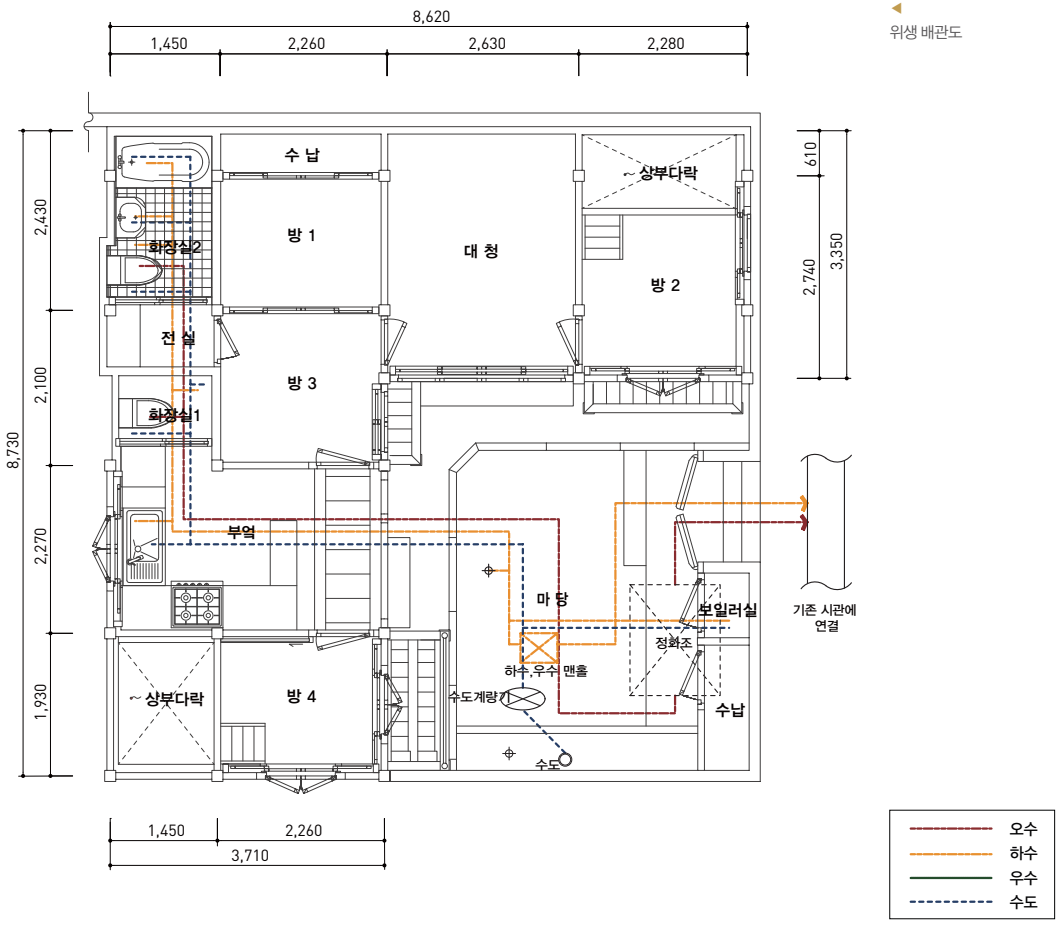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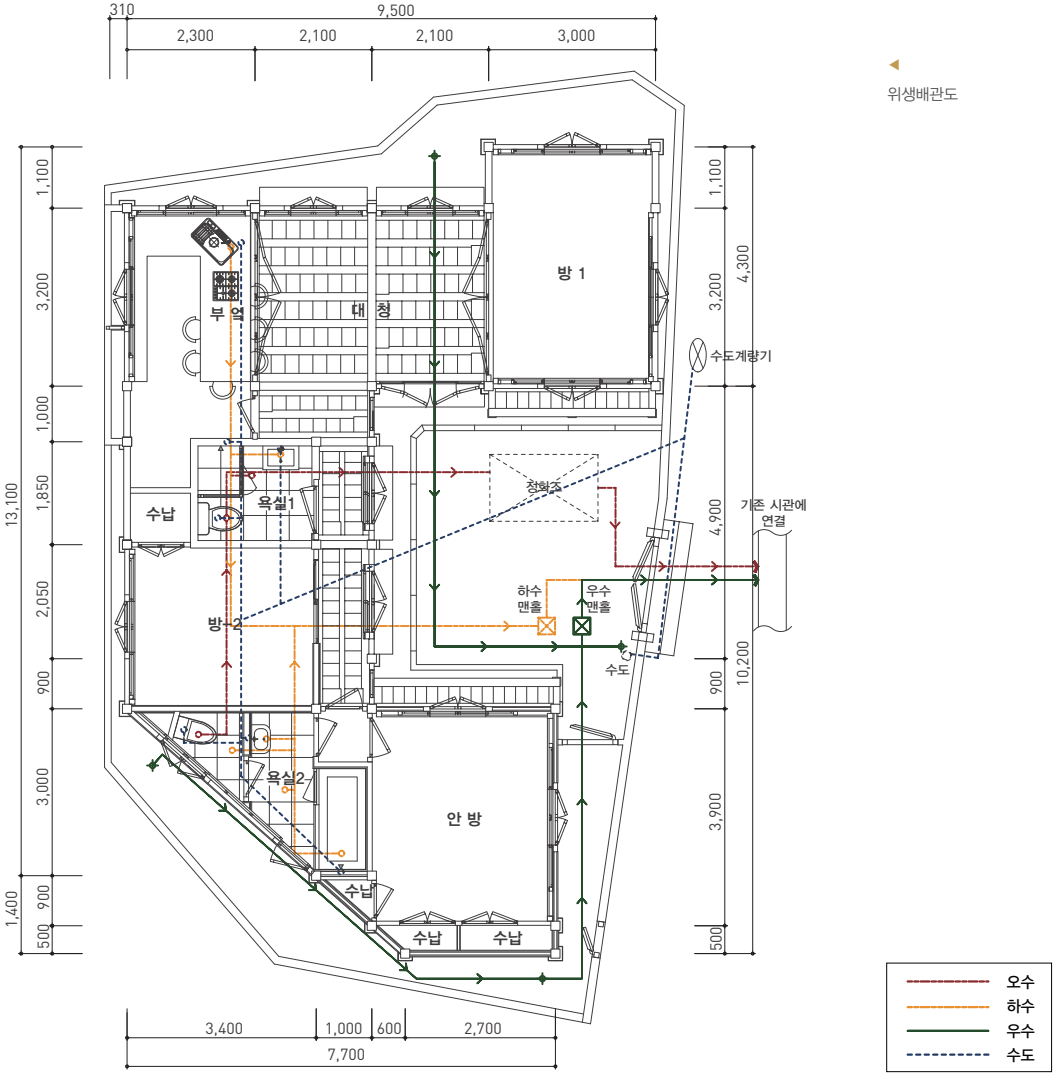
Ⓐ 스위치	Ⓣ 텔레비전	Ⓔ 전기계량기	Ⓐ 에어콘실외기	Ⓢ 보안단말기
Ⓣ 전화	⊖ 2구콘센트	Ⓖ 가스계량기	Ⓑ 냉온수분배기	
Ⓘ 인터넷	Ⓔ 전기분전함	Ⓐ 에어콘실내기	Ⓑ 보일러	

◈ 상하수도 배관

부엌 및 욕실 각 공간에 원활한 수도공급이 되도록 수도관을 배치하였다. 부엌-화장실1-화장실2를 일직선 상에 두어, 상하수도관이 한번에 지나도록 효율화하였다. 건물 중심의 마당에 정화조, 하수맨홀을 설치하여 사용 후 발생하는 오 · 하수를 분리 집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설비가 되도록 하였다. 집수된 오 · 하수는 건물 외부 도로의 시관에 연결하도록 계획하였다. 보일러실, 건물 외부, 처마 등에서 집수된 우수 역시 마당에 설치된 우수맨홀에 모아졌다가 도로의 시관으로 보내지도록 계획하였다. 수도계량기는 대문간에 가까운 마당 또는 대문간 외부에 설치하여 외부에서도 수도검침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 위생 배관도




310
9,500
2,300
2,100
2,100
3,000
1,100
3,200
1,000
1,850
2,050
900
3,000
900
500
13,100
1,400
1,100
3,200
4,300
4,900
900
3,900
500
10,200
부엌
대청
방 1
수도계량기
욕실1
수납
창호도
기존 시관에 연결
하수 맨홀
우수 맨홀
방 2
수도
욕실2
안 방
수납
수납
수납
3,400
1,000
600
2,700
7,700
오수
하수
우수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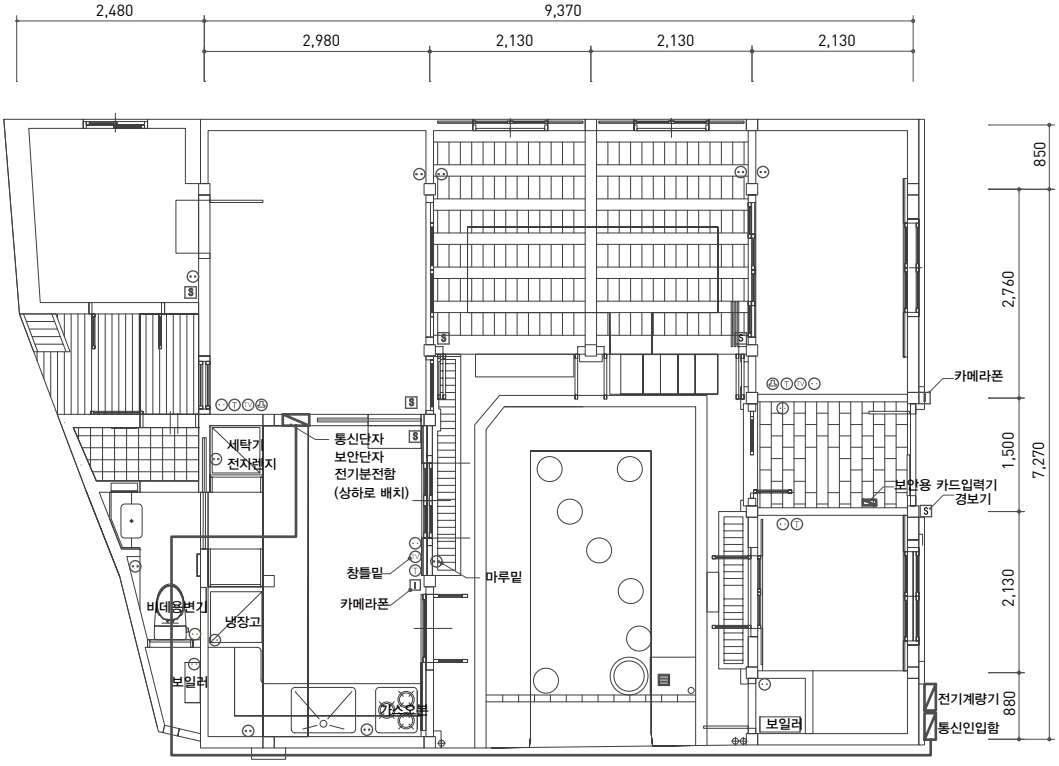
위생배관도

◈ 전기설비

각 실에서 필요한 전기콘센트, 인터넷, 전화 등 단자와 스위치, 냉난방 조절기 등을 실의 코너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용의 편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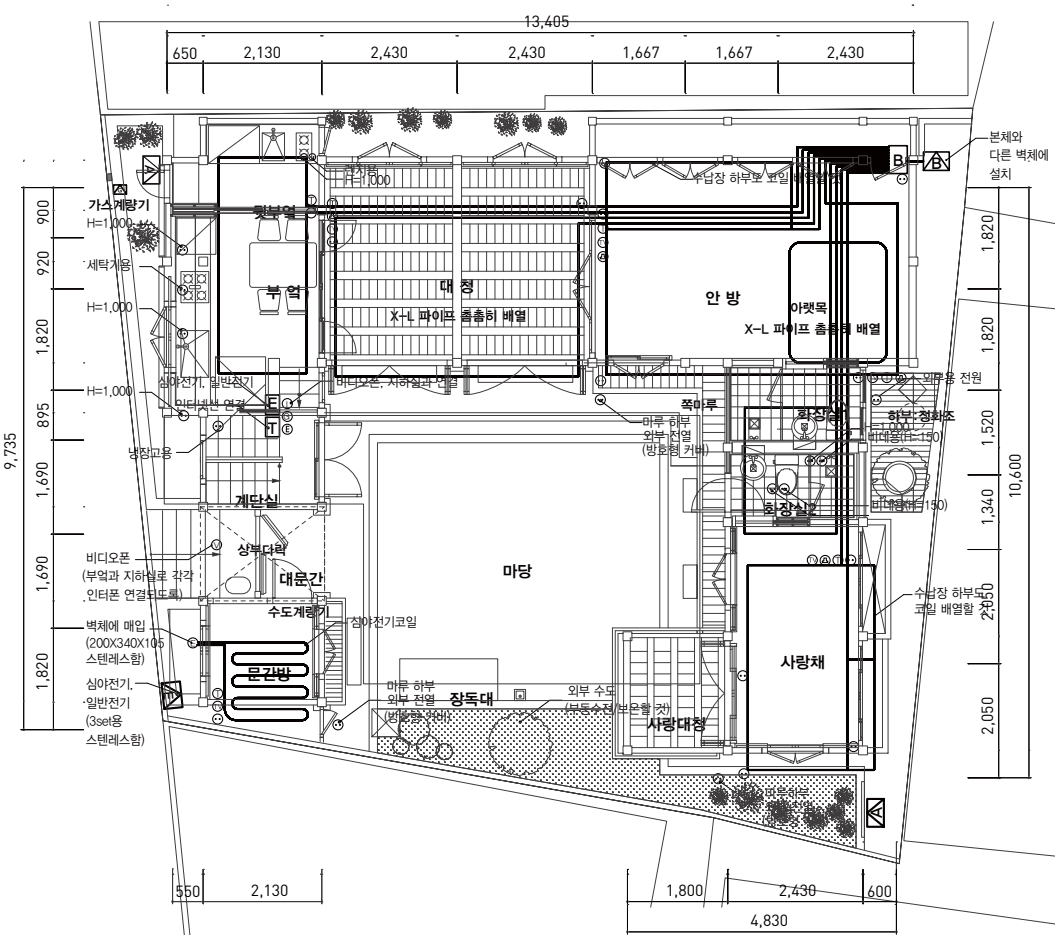
▼
전력배치도



범례
- ⊙ 2구 콘센트(220V)
- Ⓣ 전화
- 1 인터폰(카메라배선)
- Ⓘ 인터넷 전용회선
- Ⓣv 유선TV
- S 보안용센서

사례 2

▼
전력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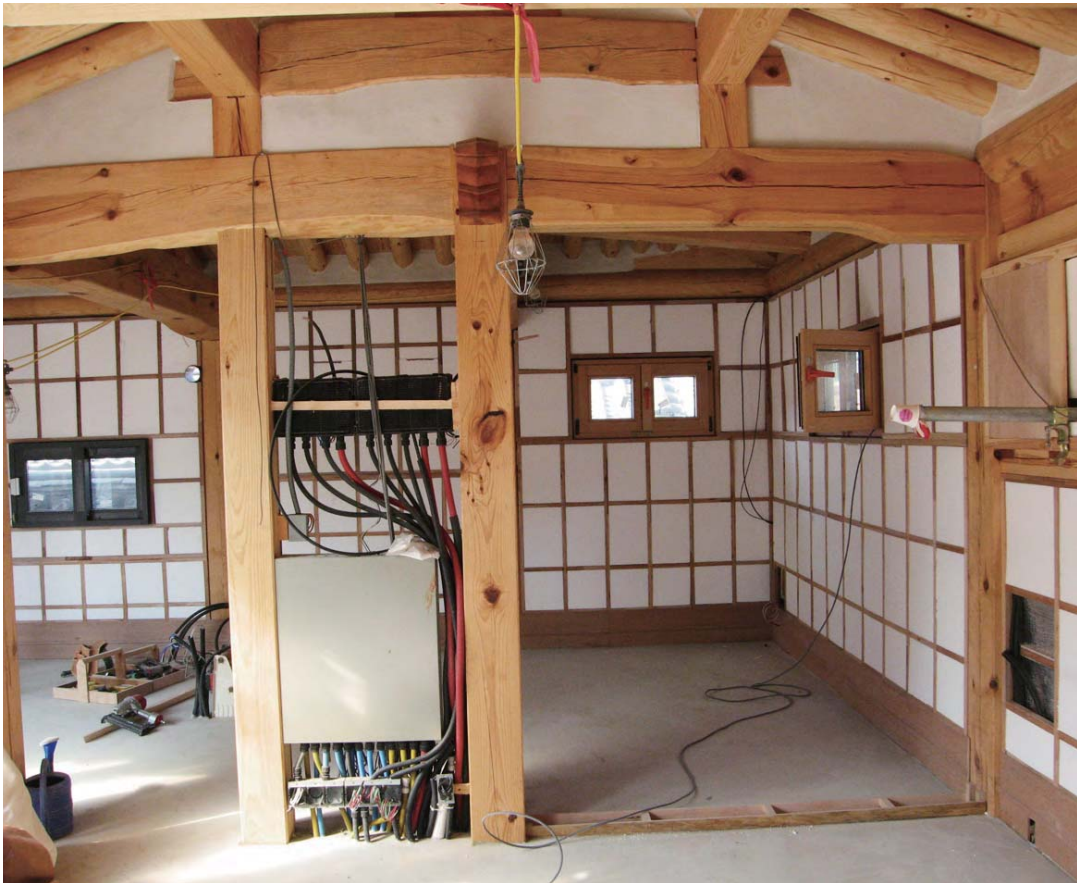
범례

Ⓐ 스위치	Ⓣⓥ 텔레비전	Ⓒ 가스보일러 조절기	E 전기분전함	A 에어콘실내기	Ⓐ 보일러
Ⓣ 전화	⊙ 2구 콘센트	Ⓘ 인터폰	Ⓔ 전기계량기	Ⓐ 에어콘 실외기	S 보안 단말기
Ⓐ 인터넷 전용회선	Ⓔ 심야난방 조절기	Ⓥ 비디오폰	Ⓖ 가스계량기	B 냉온수 분배기	T 통신분전함 수도배관시 반드시 단열재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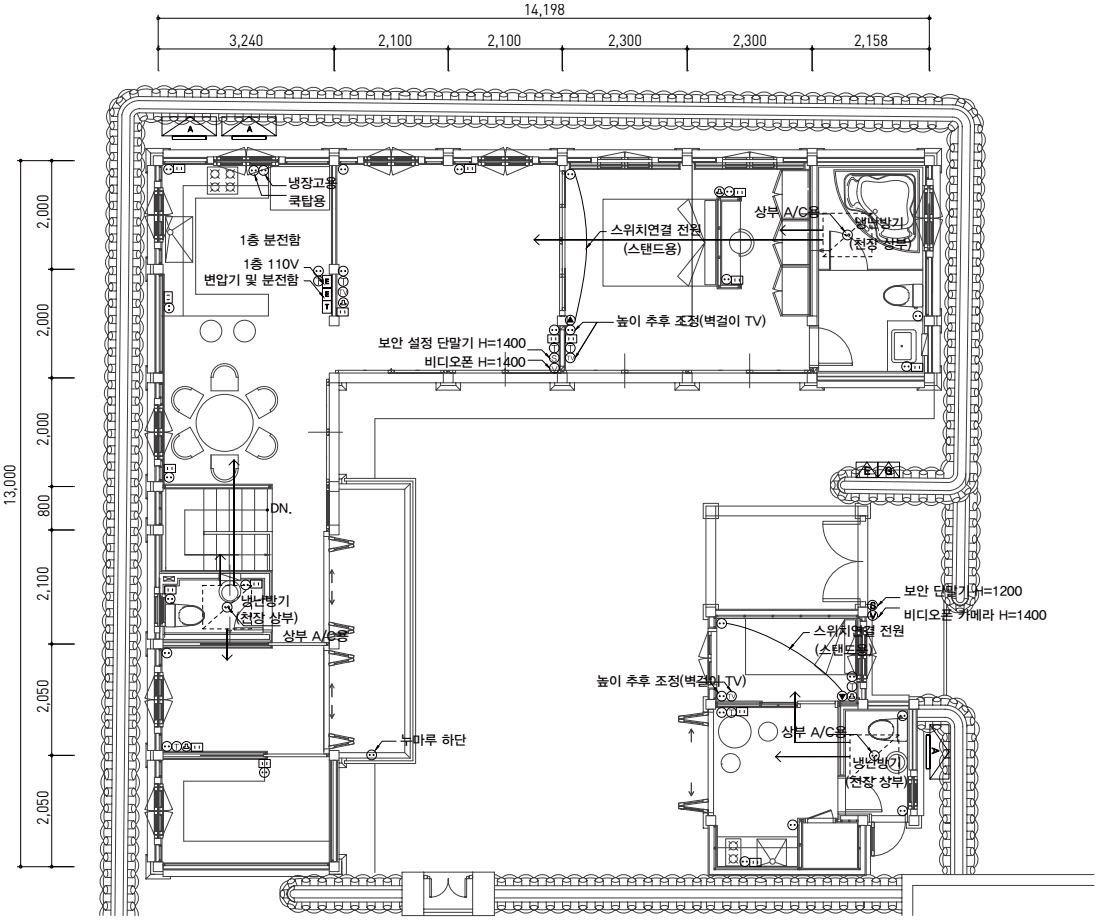
사례 3

벽걸이형 TV설치와 보안카드 및 비디오폰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전기콘센트 및 TV단자의 높이 계획과 통신 및 전력배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기 및 통신 설비의 용이한 유지관리를 위해 보안 메인 단말기는 지하에, 설정용 단말기는 대청에 설치하였다.

▼
배선설치 현장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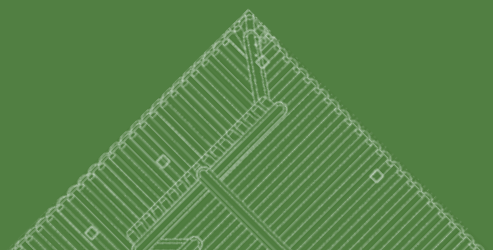
▼
전력배치도



범례

Ⓢ 스위치	Ⓣⓥ 텔레비전	E 전기분전함	Ⓐ 에어콘실외기	A 에어콘실내기
Ⓣ 전화	⊙ 2구콘센트	Ⓔ 전기계량기	B 냉온수분배기	S 보안단말기
Ⓘ 인터넷	110V 2구콘센트	Ⓖ 가스계량기	Ⓑ 보일러	

사례
찾아가기



사례1

북촌HRC

24-25,
58-59,
104-105,
114-115,
143-145
162-164,
177

사례2

황두진건축사사무소

80-81,
86-87,
119,
179

사례3

가은앤파트너스

56-57,
75
82-83
108-109,
134-135,
152-153

사례4

북촌HRC

28-29,
36-37,
112-113,
140-142

사례5

가은앤파트너스

54-55,
78-79,
84-85
128,
154-155

사례6

가은앤파트너스

66-67,
156-157,
168-169

사례7

황두진건축사사무소

38-41,
70-71,
74,
100-101,
116-118
176

사례8

북촌HRC

26-27,
30-31,
75,
94-97,
148-149,
160-161

사례9

북촌HRC

50-51,
62-63,
98-99
129,
150-151,
178

사례10

황두진건축사사무소

130,
180

사례11

황두진건축사사무소

34-35,
68-69,
76-77,
102-103,
174-175

사례12

가은앤파트너스

46-47

사례13

황두진건축사사무소

52-53,
122-125,
165-167
170-171

사례14

북촌HRC

48-49,
88-89,
146-147

사례15

황두진건축사사무소

44-45,
64-65,
126-127
181-182

사례16

가은앤파트너스

131-133

사례17

북촌HRC

60-61

사례18

황두진건축사사무소

32-33,
110-111

한옥고치는 책 II

-주방 ·욕실·다용도실

인쇄일	2014.12.23
발행일	2014.12.30
지은이	건축도시공간 국가한옥센터
펴낸이	제해성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431-8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301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8
홈페이지	www.auri.re.kr / www.hanokdb.kr
이메일	information@auri.re.kr
책임편집	이강민
편집	김희정,이민경
디자인	얼스 (서원희)
인쇄	이지온프린트
등록번호	제385-3850000251002008000005호

Copyright ⓒ 201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ISBN 979-11-5659-038-5 (세트)

979-11-5659-039-2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 있으며,
비매품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